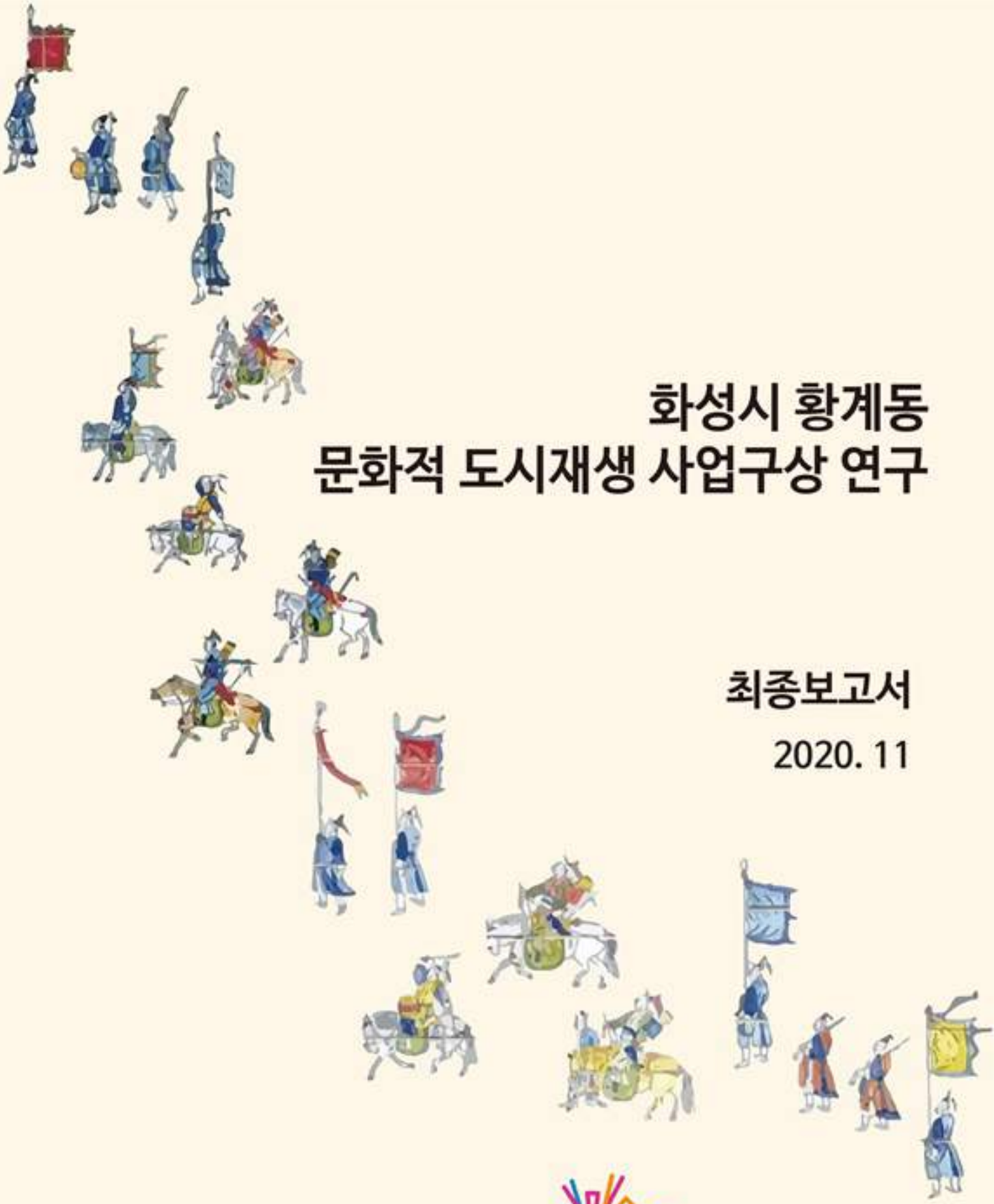


화성시 황계동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구상 연구

최종보고서

2020. 11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 황계동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구상 연구

최종보고서

2020.11

화성시문화재단

연구기관: ㈜도시환경연구센타

제 출 문

화성시 문화재단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구상 연구조사(황계동)”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11

㈜도시환경연구센타 대표

전 영 옥

참 여 연 구 진

연구총괄책임	㈜도시환경연구센타	전 영 옥
연구원	㈜도시환경연구센타	윤 서 원
연구원	㈜도시환경연구센타	문 수 원
연구자문	협성대학교	이 상 문

■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목적 및 범위 1
2. 연구추진체계 4

Ⅱ. 문화자원의 가치 검토 11
1. 역사문화자원 가치검토 11
2. 신규도입자원 개발 48
3. 종합검토 78

Ⅲ. 문화적 공간구상 81
1. 기존 자원 및 시설 검토 81
2. 마을 문화재생 공간계획 구상안 86
3. 인근지역과 연계방안 검토 108

Ⅳ. 콘텐츠·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과제 구상 113
1. 기본방향 113
2. 사업과제 구상 114

Ⅴ. 운영방안 149
1. 운영주체 도입방안 149
2. 운영활성화 방안 165
3. 사업추진체계 구축방안 170

Ⅵ. 사업예산 산출 및 확보방안 175
1. 정부·지자체 관련 사업 검토 및 재원조달계획 175
2. 사업예산 산출 197

황계동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종합구상도 205

부 록
정조대왕 효행음식이야기 207

■ 표 목 차

[표 2-1] 19세기 말 20세기 초 황계동일대의 행정구역 변화 ····· 15
[표 2-2] 정조 이후 건릉 및 현륭원 능행차 ····· 28
[표 2-3] 원소정례(園所定例)(1789~1793)에 나타난 현륭원 관련 직제 ····· 31
[표 2-4] 원소정례(園所定例)(1789~1793)에 나타난 화소구역 내 전답 배분현황 ····· 33
[표 2-5] 수원도호부의 3단1묘 ····· 40
[표 2-6] 역사적 사실의 범주화 ····· 43
[표 2-7] 발굴된 문화콘텐츠의 활용가능성 ····· 44
[표 2-8] 콘텐츠 운영사례 검토 ····· 48
[표 2-9] 황계동 문화콘텐츠의 활용가능성 종합 검토 ····· 78
[표 3-1] 성황산 보호수 현황 ····· 81
[표 3-2]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 91
[표 3-3] 황계동 마을연대표 ····· 103
[표 4-1] '정조대왕 이야기길 마을유산해설' 관련 체험프로그램 예시(문화체험) ····· 117
[표 4-2] '정조대왕과 함께 점심식사' 관련 체험프로그램 예시(문화체험) ····· 118
[표 4-3] '정조 효행음식-각색다식' 관련 체험프로그램 예시(문화체험) ····· 119
[표 4-4] '비빔밥' 관련 체험프로그램 예시(문화체험) ····· 120
[표 4-5] '쌀' 관련 체험프로그램 예시(농업체험) ····· 121
[표 4-6] '감자' 관련 체험프로그램 예시(농업체험) ····· 122
[표 4-7] '화분' 관련 체험프로그램 예시(기타체험) ····· 123
[표 4-8] 화(華)화(畵)화(和)프로젝트(화성시 문화재단, 2013년) 사례 1 ····· 140
[표 4-9] 화(華)화(畵)화(和)프로젝트(화성시 문화재단, 2013년) 사례 2 ····· 141
[표 4-10] 화(華)화(畵)화(和)프로젝트(화성시 문화재단, 2013년) 사례 3 ····· 142
[표 4-11] 화(華)화(畵)화(和)프로젝트(화성시 문화재단, 2013년) 사례 4 ····· 142
[표 5-1] 프로그램별 운영주체 ····· 149
[표 5-2] 주민자치사업 프로그램별 연차계획 ····· 150
[표 5-3] 농업회사법인의 특성 ····· 151
[표 5-4] 농업인 및 농촌지역의 정의 ····· 152

[표 5-5] 필수요소를 포함하는 장별 구성 예 ····· 153
[표 5-6] 사업계획서 세부항목 예 ····· 154
[표 5-7] 축제를 위한 체크리스트 ····· 163
[표 5-8] 편의시설 설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 164
[표 5-9] 황계동 반경 10㎞이내 위치한 학교수 ····· 166
[표 6-1] 문화적 공간조성사업 사업비 확보방안 검토(안) ····· 176
[표 6-2] 주민제안사업 접수 건수 및 예산 편성액 현황 ····· 178
[표 6-3] 콘텐츠 운영프로그램 사업비 확보방안 검토 ····· 183
[표 6-4] 축제위원회 심의 순위에 따라 지원 금액 차등 지급 ····· 190
[표 6-5] 자생특화축제 공모사업 심의항목 및 배점 ····· 191
[표 6-6] 인문도시지원사업 프로그램 구성(예시) ····· 195
[표 6-7] 신청절차 ····· 196
[표 6-8] 정조대왕 이야기길 조성사업 예산(안) ····· 197
[표 6-9] 콘텐츠 운영프로그램 사업예산 산출 ····· 203

■ 그 림 목 차

[그림 1-1] 연구목적 ····· 1
[그림 1-2] 공간적 범위 ····· 2
[그림 1-3] 연구추진과정 ····· 6
[그림 1-4] 황계동 주민협의체와 역사문화자산 콘텐츠 공유(20.04.21) ····· 6
[그림 1-5] 황계동 주민협의체와 역사문화자산 콘텐츠 공유(20.05.20) ····· 7
[그림 1-6] 황계동 주민대표 간담회(20.06.16) ····· 7
[그림 1-7] 황계동 주민협의체와 프로그램 개발(20.06.26) ····· 7
[그림 1-8] 중간보고회(20.07.31) ····· 8
[그림 1-9] 최종보고회(20.11.17) ····· 8
[그림 2-1] 문화유산 자원의 가치 검토방법 ····· 11
[그림 2-2] 사도세자의 능원이장과 성황산 및 황계동의 위치 ····· 13
[그림 2-3] 1915년 제27호 동리촌 명칭 및 구역변경보고(경기도) ····· 15
[그림 2-4] 조선총독부 수원군 지도 안룡면 부분, 국가기록원 소장 ····· 16
[그림 2-5] 조선총독부 수원군 안녕면 황계리 지도(1918), 국가기록원 소장 ····· 17
[그림 2-6] 1872년 제작된 지방지도 수원도호부 부분 ····· 19
[그림 2-7] 화소구간의 검토 ····· 20
[그림 2-8] 건릉지(健陵誌) 능원침내금양전도(1879) ····· 20
[그림 2-9] 황계동 지역내로 추정되는 필로구간 ····· 24
[그림 2-10] 일성록 기록에 따른 황계동 일대 정조년간 능행차길 ····· 25
[그림 2-11] 정조국장도감의궤 ····· 29
[그림 2-12] 園所定例(1789~1793) 顯隆園編 ····· 32
[그림 2-13] 본부대황교작나죄인등행사문안(本府大皇橋作拏罪人等行査文案), 고종28년(1891년), 규장각소장 필사본 ····· 33
[그림 2-14] 조선총독부 수원군 안녕면 황계리 지도(1918)에 나타난 길과 현재 도로 비교 ····· 37
[그림 2-15] 조선시대 화성시 해당지역의 읍치 ····· 38
[그림 2-16] 조선시대 읍치의 공간구성 모식도 ····· 39

[그림 2-17] 영조년간 제작된 광여도(廣輿圖) ····· 41
[그림 2-18] 현재 성황산에 위치한 당산목 ····· 41
[그림 2-19] 황계동에서의 정조와 관련된 축제 및 행사의 의미 ····· 45
[그림 2-20] 성황제사의 의미 ····· 45
[그림 2-21] 능지기(수호군) 관점에서 본 스토리텔링의 활용가능성 ····· 46
[그림 2-22] 미추홀구에 위치한 토지금고 마을박물관 입구 ····· 49
[그림 2-23] 미추홀구 마을박물관의 전시내용 ····· 50
[그림 2-24] 다자와코 예술촌 세부도 ····· 52
[그림 2-25] 지역 전통문화와 연계된 체험 프로그램 ····· 54
[그림 2-26] 와라비 전용 극장에서 진행되는 공연 ····· 54
[그림 2-27] 참여객과 대화를 나누는 벤자민 프랭클린 ····· 56
[그림 2-28] 구성 프로그램 ····· 57
[그림 2-29] '샴페인 페어'를 재현한 프로뱅 축제 ····· 58
[그림 2-30] 프로뱅 축제 프로그램 소개 ····· 60
[그림 2-31] 공연 및 체험 중심으로 구성된 민들레 연극 마을 ····· 61
[그림 2-32] 민들레 마을에서 진행되는 공연과 체험 내용 ····· 62
[그림 2-33] 민들레 마을의 계절별 축제 ····· 63
[그림 2-34] 가창창작스튜디오 전경 ····· 64
[그림 2-35] 가창아트맵 프로젝트(2019) ····· 65
[그림 2-36] 가창아트맵 프로젝트(2018) ····· 66
[그림 2-37] 가창아트맵 프로젝트 실외 전시(2018) ····· 66
[그림 2-38] 가창아트맵 프로젝트 실내 전시(2018) ····· 67
[그림 2-39] 참여객이 완성하는 해피 월 ····· 67
[그림 2-40] 해피 월의 구성 ····· 69
[그림 2-41] 지역의 다양성을 표현한 포르투 디자인 ····· 70
[그림 2-42] 포르투 디자인이 활용된 사례 ····· 71
[그림 2-43] 그림책이 전시된 송정그림책 마을 찻집 ····· 73
[그림 2-44] 마을 찻집 콘텐츠 소개 ····· 74
[그림 2-45] 페캄 도서관 전경 및 내부 ····· 75
[그림 3-1] 성황산 보호수(정조대왕 당산목) ····· 82

[그림 3-2] 황계동 주진입로인 황계길 ····· 82
[그림 3-3] 황계공원 ····· 83
[그림 3-4] 마을회관 현황(도시재생사업 대상지) ····· 83
[그림 3-5] 기존 자원 및 시설 검토 ····· 85
[그림 3-6] 현재 남아있는 태실지의 화소 표지석 사례 ····· 87
[그림 3-7] 정조대왕 이야기길 출발구역 단기적 정비(1안) ····· 87
[그림 3-8] 정조대왕 이야기길 출발구역 단기적 정비(2안) ····· 88
[그림 3-9] 약수동 이야기길 사인 사례 ····· 88
[그림 3-10] 울산 중구 이야기길 안내판 사례 ····· 88
[그림 3-11] 울산 중구 울산큰애기 이야기길 안내판 사례 ····· 89
[그림 3-12] 수원 팔색길 이야기 안내판 ····· 89
[그림 3-13] 황계동 일원의 소하천 위치도 ····· 90
[그림 3-14]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례 ····· 90
[그림 3-15] 정조이야기길 출발구역 용도지역현황도 ····· 92
[그림 3-16] 정조이야기길 출발구역 지목현황도 ····· 93
[그림 3-17] 정조이야기길 출발구역 공시지가현황도 ····· 93
[그림 3-18] 정조문화공원 후보지(안) ····· 94
[그림 3-19] 향후 활용가능한 능행차길 ····· 95
[그림 3-20] 향후 정조문화공원 활용 예시 ····· 95
[그림 3-21] 보호수 인근 국유지 현황 ····· 97
[그림 3-22] 국유지 내 성황사 재현 구상도(안) 1 ····· 98
[그림 3-23] 국유지 내 성황사 재현 구상도(안) 2-서북향 ····· 98
[그림 3-24] 어정(御井)사례 ····· 99
[그림 3-25] 성황산 구역 조성도(안) ····· 100
[그림 3-26] 정조대왕 이야기길 정비 구상(안) ····· 100
[그림 3-27] 황계동 관련 고지도 ····· 104
[그림 3-28] 황계마을박물관 내부 설치 예시도 ····· 105
[그림 3-29] 가평군 묵안리 도농교류센터 내 다목적 강당 ····· 107
[그림 3-30] 현재 남아있는 정조대왕 필로 표석 사례 ····· 108
[그림 3-31] 기존 정조대왕 이야기길과 현재 활용가능한 길 ····· 110
[그림 4-1] 황계동 콘텐츠 운영프로그램 개발의 기본방향 ····· 113

[그림 4-2] 정조대왕과 함께 점심식사 프로그램(예시) 115
[그림 4-3] 정조대왕이 혜경궁 홍씨에게 올렸던 효행밥상 116
[그림 4-4] 삼색다식과 상화꽃떡 116
[그림 4-5] 1년 단위 주민동아리 지원사업 추진방법 124
[그림 4-6] 평생학습마을 공동체사업 사례 125
[그림 4-7]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미술동아리 활동 126
[그림 4-8] 제1회 정조대왕 성황제(2019) 127
[그림 4-9] 강릉단오제 국사성황제 전경 129
[그림 4-10] 강릉단오제 국사성황제 복식 131
[그림 4-11] 강릉단오제 국사성황제 절차 재현 132
[그림 4-12] 인터렉티브형 공공예술프로젝트 설치위치 135
[그림 4-13] Interactive Art Wall 사례 136
[그림 4-14] 과정중심 커뮤니티 아트프로젝트 시행방법 139
[그림 4-15] 들꽃마을 상기리 프로젝트(2013) 140
[그림 4-16] 두 개의 현판 데코레이션 프로젝트(2013) 141
[그림 4-17] 화화화 프로젝트 아카이빙전(2014) 143
[그림 4-18] 화성시 역사문화학술세미나(화성시 문화유산과) 145
[그림 5-1] 정조대왕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방법 156
[그림 5-2] 주민동아리 조직단계 157
[그림 5-3]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주체 158
[그림 5-4] 정조대왕 성황대제 추진위원회 구성안(2021년) 161
[그림 5-5] 정조대왕 능행차 마을축제 추진위원회 구성안(2025년) 162
[그림 5-6] 황계동 반경 10㎞이내 위치한 학교분포 현황 165
[그림 5-7] 문화교육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중장기) 168
[그림 5-8] 성황대제 및 마을축제 연계 활성화방법(중장기) 169
[그림 5-9] 황계동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추진체계안(단기) 170
[그림 5-10] 문화콘텐츠 프로그램간의 연계(단기) 172
[그림 5-11] 문화콘텐츠 프로그램간의 연계(중장기) 172
[그림 6-1] 주민참여예산 편성 과정 178
[그림 6-2]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절차 180
[그림 6-3]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체계 185

[그림 6-4] 1차 년도(신규)마을기업 심사일정 ····· 185
[그림 6-5]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공모과정 ····· 186
[그림 6-6] 생활문화동호회 추진과정 ····· 188
[그림 6-7]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사업 공모과정 ····· 189
[그림 6-8] 자생특화축제 공모사업 추진과정 ····· 191
[그림 6-9] 지역예술활동 지원사업 공모과정 ····· 193
[그림 6-10] 화성 문화재단 주최 지역예술인 간담회 ····· 193

Ⅰ 서 론

1. 연구목적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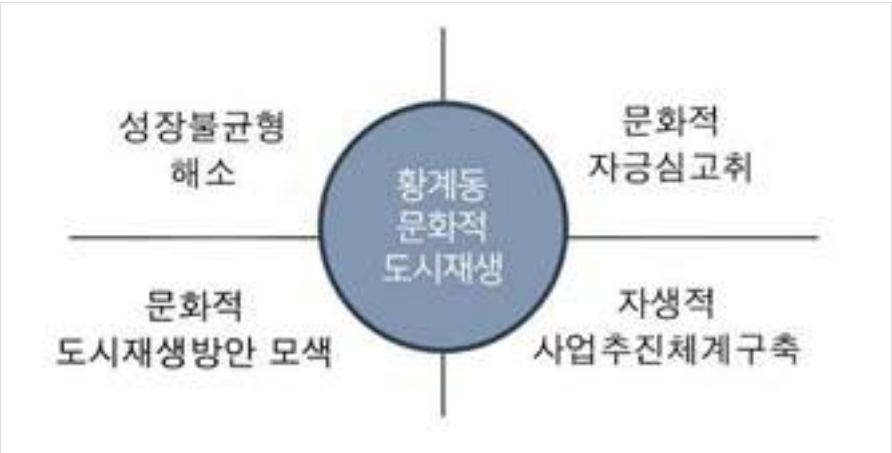
2. 연구추진체계

Ⅰ. 서론

1. 연구목적 및 범위

1) 연구목적

- 군 공항 소음 피해지역인 황계동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이와 연계된 도시활성화의 필요성 대두
  - 화성 동부권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편중으로 인한 성장불균형 초래
  - 군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문화프로그램과 접목하여 해결책 모색
  - 화성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2019)에 따라 황계동의 역사·지리적 문화가치와 연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이 필요해짐.
- '정조대왕 마을'이라는 역사문화 콘텐츠와 이와 연계한 다양한 사업발굴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도모
  - 황계동 일대의 지역 정체성·역사문화적 콘텐츠 발굴 및 스토리라인 개발
  - 정조대왕의 능행차와 연계된 마을주민의 자긍심과 문화적 관심을 바탕으로 문화복지 및 삶의 질 개선 방향 구축
- 신규 도입가능한 문화프로그램 발굴을 통한 지역사회 활력 제고방안 마련
- 지역민의 지속적 문화재생사업 관리를 위한 자생적 사업추진체계 구축



[그림 1-1] 연구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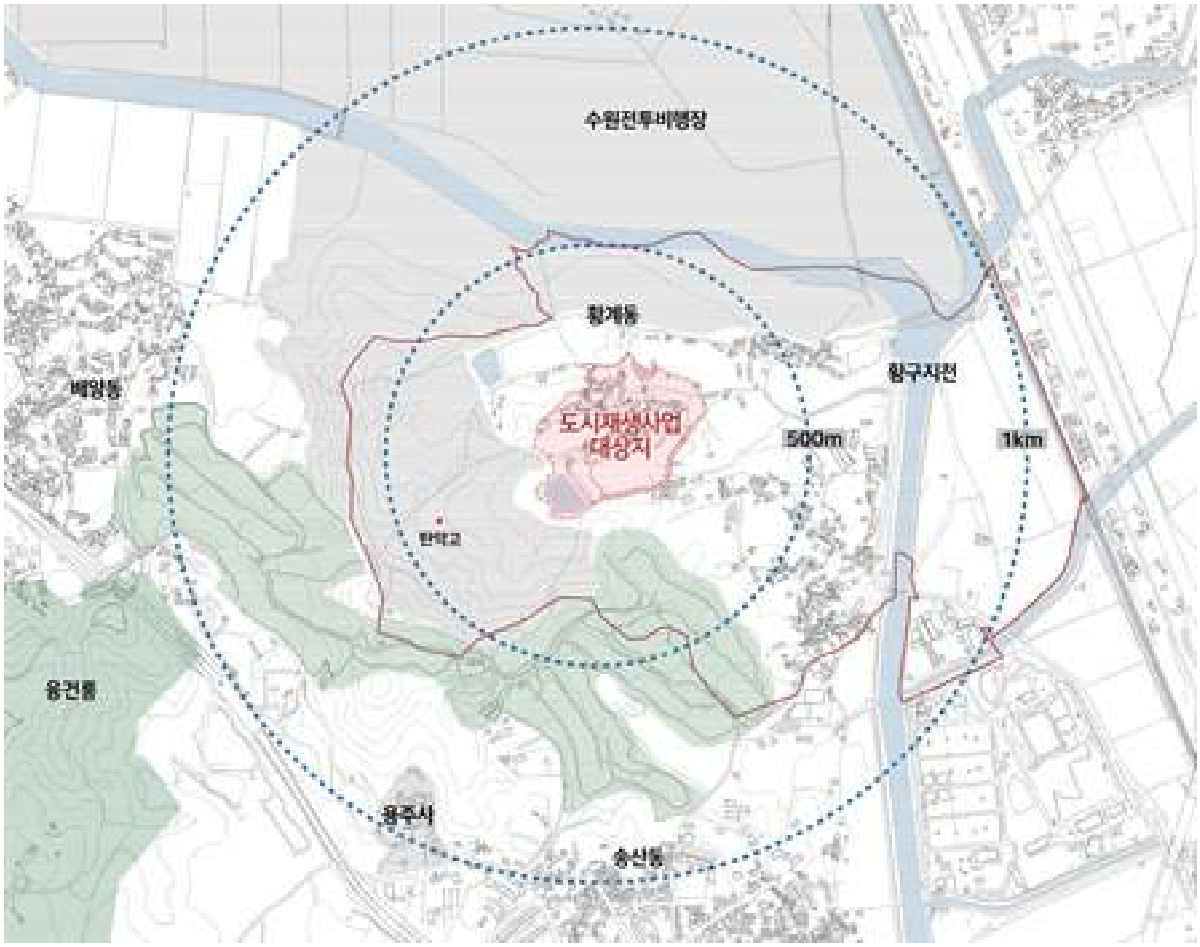
2) 연구범위

가. 시간적 범위

- 단기사업 목표연도: 2025년
- 중장기사업 목표연도: 2035년

나. 공간적 범위

- 위치: 경기도 화성시 황계동 일원 및 관련 인근지역



[그림 1-2] 공간적 범위

다. 내용적 범위

① 자원가치 검토

- **활용가능 자산의 가치 검토**
  - 문화적 도시재생의 자산으로써 활용 가능 자산(보유자원, 환경자원 등)의 가치 검토

- 유무형 도입자원 개발

② 문화공간구상

- 기존 시설 검토
  - 인문·사회·환경/토지이용, 공간조성, 기반시설 등 검토
- 마을 문화재생 공간계획 구상안 마련
  - 콘텐츠·운영프로그램과 연계한 유휴공간 활용 문화인프라 조성 검토
- 인근지역과의 연계방안 검토

③ 콘텐츠·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과제 구상

- 사업화 기본방향
  - 화성 대표 역사문화자산인 '정조' 관련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사업화방안 모색
-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과제 구상
  - 마을 문화재생 기반 마중물사업 기획 및 운영방안 검토
  - 예술인, 청년, 학생들과 함께 하는 시민 참여형 문화예술사업 제안
  - 역사문화공간 활용 문화콘텐츠 운영사례 검토를 통한 신규도입자원 개발

④ 운영방안

- 운영주체 도입방안
  - 개발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문화예술인, 마을 기업 등 다각적 검토
- 운영 활성화 방안
- 사업 추진체계 구축 방안
  - 지속가능한 문화재생사업을 위한 문화적 도시재생 추진체계 구축 마련

⑤ 사업예산 산출 및 확보방안

- 사업예산 산출
- 정부 및 지자체 관련 사업 검토
- 재원조달계획

2. 연구추진체계

1) 연구추진과정

가. 1단계

- **황계동의 활용가능 자산 가치검토**
  - 조선시대 정조이전시대의 화성지역 2개의 문화중심(수원도호부 읍치, 남양도호부 읍치) 중의 하나였던 황계동 일대 재조명
  - 정조 이후 사도세자의 능원을 화산일대로 이전한 뒤, 성황산 및 황계동 일대의 역사문화적 가치 재조명
  - 정조대왕 능행차시 황계동일대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역사적 사실을 문화적 재생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정조의 능행차 동선과 황계동 및 성황산 일대 옛길을 분석하여 문화적 활용방안 적극 도출
- **부족한 자원을 검토하고 유사사례를 분석함.**

나. 2단계

- **도시재생사업으로 구상된 기존 시설 검토**
  - 기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를 위해 정조대왕능행차로, 청운제를 중심으로 한 수변공원, 도시재생어울림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도출
-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연계한 문화재생 공간계획 구상안 마련**
  - 황계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진행과정과 연계하여 실현가능한 프로그램을 공공공간에 접목
  - 옛길: 정조대왕 능행차길상의 중요한 마을로서 역사문화적 가치 복원
  - 수변공원: 기존 저수지와 연계한 공공공간으로서 문화콘텐츠 프로그램을 운영
  -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주민여가 및 생활편의시설로 조성될 도시재생어울림센터 내에 황계동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담아 주민들은 자긍심을 고취하고 방문객에게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획함.
- **인근지역과 연계방안**

- 정조대왕 능행차와 관련된 문화콘텐츠는 용주사 일대, 화산동일대 등과 연계하면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

다. 3단계

- **화성 대표 역사문화자산인 '정조' 관련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사업화방안 모색**
  - 황계동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적 자산인 정조년간의 기록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화 방안을 모색하고 동시에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
- **조기에 시행가능한 마중물사업 우선 기획**
  - 황계동에서 가능한 프로그램 중 조기에 시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개발
- **황계동 주민들과 연계하여 실행가능한 프로그램을 기획**
  - 마을주민 및 지역내 문화예술인이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문화예술사업을 구상
  - 마을만들기 방법의 접목으로 주민협의체 등과 적극 소통하면서 사업과제 구상 진행

라. 4단계

- **지속가능한 문화콘텐츠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 수립**
  - 개발된 프로그램별 가능한 운영주체 도입을 검토하여 주민협의체, 문화예술인, 마을기업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
  - 지속가능한 문화재생사업화를 위한 문화적 도시재생 추진체계 구축(안)을 마련하고 민, 관, 전문가들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상함.
- **프로그램별 사업예산을 도출하여 재원조달계획을 수립**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별도의 문화적 도시재생과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 관련 사업을 검토함.

[그림 1-3] 연구추진과정

2) 연구추진경위

- 2020.04.08.: 연구용역 착수
- 2020.04.21.: 1차 주민워크숍(황계동의 역사와 마을 유산 이해)

[그림 1-4] 황계동 주민협의체와 역사문화자산 콘텐츠 공유(20.04.21)

- 2020.05.07.: 화성시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관계자와 협의

- 2020.05.20.: 2차 주민워크숍(정조마을 황계동의 역사문화 탐구)

[그림 1-5] 황계동 주민협의체와 역사문화자산 콘텐츠 공유(20.05.20)

- 2020.06.16.: 주민대표 간담회

[그림 1-6] 황계동 주민대표 간담회(20.06.16)

- 2020.06.26.: 3차 주민워크숍(역사문화콘텐츠 기반 프로그램 개발)

[그림 1-7] 황계동 주민협의체와 프로그램 개발(20.06.26)

- 2020.07.07.: 화성시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관계자와 협의

- 2020.07.31.: 중간보고회 개최(오후)

[그림 1-8] 중간보고회(20.07.31)

- 2020.07.31.: 주민간담회(저녁)
- 2020.10.26.: 도시재생 총괄코디네이터(이상문 교수) 자문
- 2020.11.03.: 김도근 의원 간담회(화성시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관계자 참석)
- 2020.11.17.: 최종보고회 개최

[그림 1-9] 최종보고회(20.11.17)

Ⅱ 문화자원의 가치 검토

1. 역사문화자원 가치검토
2. 신규도입자원 개발
3. 종합검토

Ⅱ. 문화자원의 가치 검토

1. 역사문화자원 가치검토

1) 기본방향

- 황계동의 문화유산 자원의 가치 검토는 다음의 기준을 가지고 실시함.

① 황계동과 관련된 역사적 사료들을 시계열적으로 조사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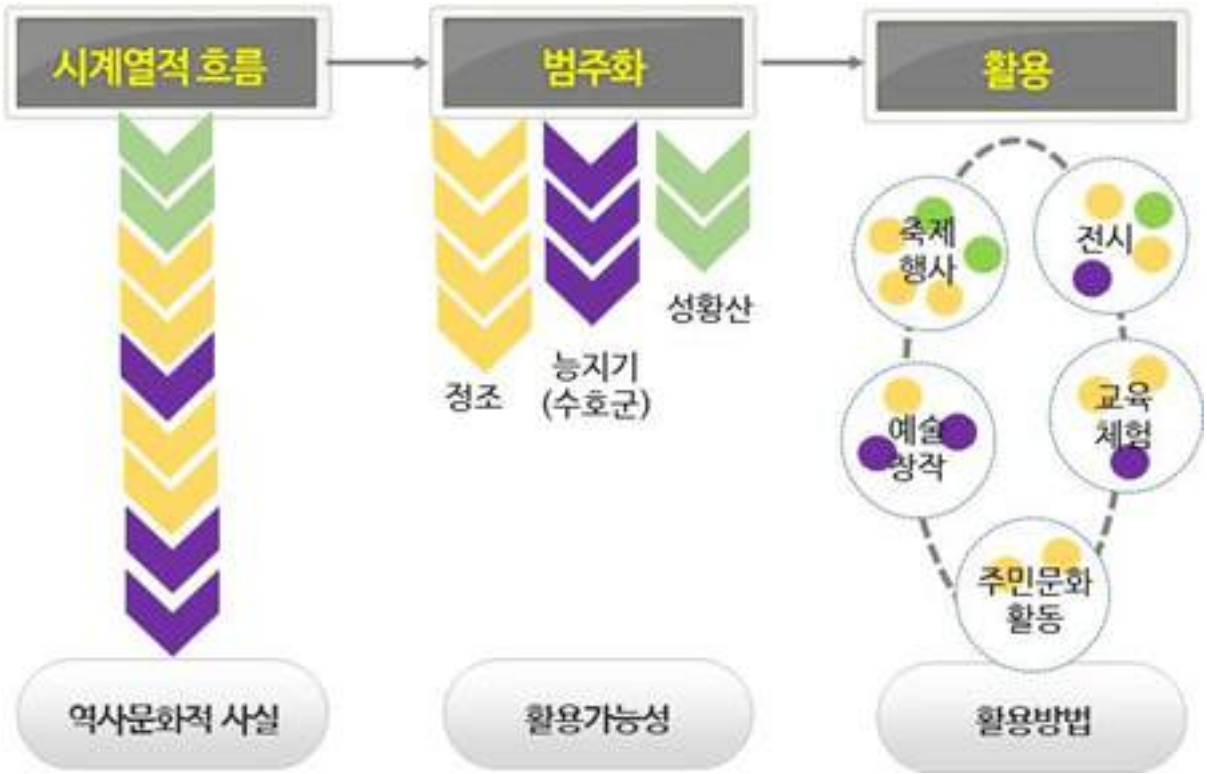
- 정조 이전, 정조년간, 정조이후~대한제국, 일제 강점기, 현대로 나누어 역사적 사료들을 조사 및 분석

② 활용 가능한 사료 중 관련성 높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범주화(categorization)

- 활용가능한 사료들은 각각 비슷한 내용들끼리 묶고 이에 대한 대표 콘텐츠 발굴

③ 범주화된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검토

- 황계동내에서 대표콘텐츠들의 활용방법 모색



[그림 2-1] 문화유산 자원의 가치 검토방법

2) 시계열적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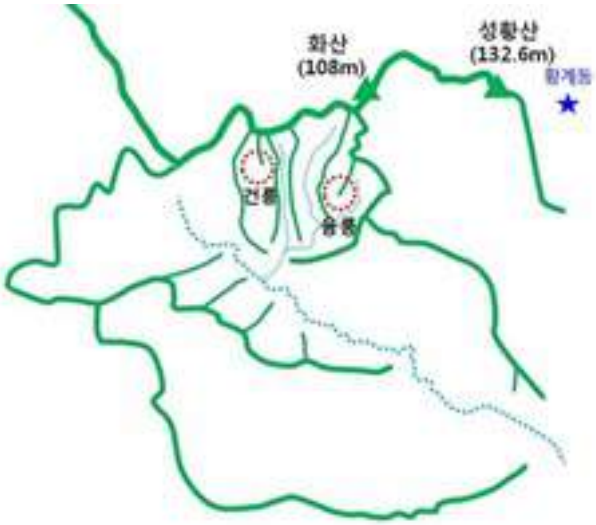
가. 정조 이전

- **성황산과 황계동 일대가 속했던 옛 수원의 지명은 매홀(買忽; 물골), 수성군(水城郡), 수주(水州) 등 물과 관련된 이름을 가지고 있었음.[1)]**
  - 고구려 지배하에 물골이라는 의미인 매홀현이라 하였으며, 통일신라시대인 757년(경덕왕 16년)에 수성군으로 개칭
  - 『고려사』「지리지」에 의하면 940년(태조 23년) 수주로 승격하였으며, 991년(성종 10년)에는 한남(漢南), 수성(隋城) 등 별호로 불림.
- **고려시대 축조되어 1789년(정조 13년) 사도세자 능원을 옮기기 전까지 사용하던 수원 고읍성(경기도 기념물 제 93호)이 남아있음.**
  - 현재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산1번지에 남아있음.
  - 고려 때 수원에 읍성으로 쌓았으며, 조선 정조 13년(1789)에 사도세자의 무덤을 이곳으로 옮기면서 새로운 읍성을 쌓을 때까지 사용되었던 곳
  - 지금 성벽은 건릉북쪽의 산꼭대기에서 서쪽으로 능선을 따라 내려와 수원대학교 정문 옆까지 남아 있음.
  - 길이는 약 540m, 높이는 약 2.5m이며 성벽은 흙을 다져 쌓았으며 현재 길 때문에 나누어져 있음.
  - 길이 지나가는 이 곳을 마을 사람들은 '고서문(古西門)', '고자문(古字門)' 이라 부르는데, 이 곳은 서문터로 여겨지며, 성의 동북쪽 꼭대기에도 동문터의 흔적이 남아 있음.
- **화산 및 성황산 일대는 사도세자 능원을 옮기기 전까지 377년간(1413~1789) 수원도호부의 읍치로서 행정·문화의 중심지로서 역할 수행**
  - 1413년(태종 13년) 수원으로 최종 개명하여 도호부를 설치
  - 화산(108m) 및 성황산(132.6m)아래 관아와 향교 등을 배치하여 관내를 구성
  - 1789년(정조 13년) 사도세자 능원을 영우원(배봉산)에서 현륭원(화산)으로 이장할 때까지 읍치로서 역할 수행

1) 世宗實錄地理志(1454), 水原都護府

나. 정조년간

- **사도세자 능원을 당시 양주 중량포 배봉산 아래 영우원에서 수원 화산으로 이장하게 되면서 정조의 능행차(총 13차)가 시작됨.**
  - 1789년(정조 13년) 7월 이장을 결정하고 10월에 왕이 친히 공역을 감독하는 가운데 화산 기슭 현륭원으로 이장함.
  - 10월 4일 영우원을 출발하여 10월 7일 화산에 도착



자료: 정경연, '풍수기행: 화성 사도세자의 묘 융릉', 중부일보 2017.1.11. 삽도

[그림 2-2] 사도세자의 능원이장과 성황산 및 황계동의 위치

- **1789년 능원이전 후, 1800년까지 12년간 총 13차례 원행이 있었음.**
  - 특히 1795년 7차 원행은 혜경궁 홍씨 회갑연을 하기 위하여 새로운 신작로도 개설됨.
  - 기존의 원행로는 과천로였으나, 시흥로를 개설하여 시흥행궁, 안양행궁을 신축하고 여러 교량을 축조함.
  - 1795년 7차 원행은 7박8일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어가행렬이 전례 없이 장엄한 위용을 갖추고 시행됨.
  - 1795년 윤2월9일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창덕궁을 출발하여 12일 현륭원을 참배하고 13일에는 회갑연을 대대적으로 베풀었으며, 14일에는 신풍루에 나아가 사방 백성들에게 쌀을 나누어주고 15일 화성행궁을 떠나, 16일 시흥행궁을 거쳐 환궁함.
  - 1800년 13차 원행(1.13)은 왕세자 책봉을 고하는 자리이기도 하였으며, 원행을 마친 후 돌아와 곧 세자 책봉을 한 뒤(2.2), 6월28일 창경궁 영춘헌에서 정조 승하

다. 정조 이후~대한제국

- **순조 즉위 후, 5년간 건릉에 행차하지 못하다가 1804년 원행을 시작하여 이후 재임기간 중 총 7회 원행을 실시함.**
  - 1800년 7월4일 순조 11살의 나이로 즉위
  - 순조가 왕위에 오른 지 5년이 지나도록 선왕의 능원인 건릉에 행차하지 못하다가 순조 4년(1804) 8월에 행차
  - 순조는 재위기간 35년 동안 총 7회 건릉과 현륭원에 능행차를 함.
- **정조 서거이후 5명의 왕(황제)이 총 15회 건릉과 현륭원에 능행차를 함.**
- **1895년 5월 조선시대 8도제를 폐지하고 23부제를 공포**
  - 개화파 정부는 1413년부터 이어져온 8도제의 지방행정구역을 23부로 개편하고 전국 337개의 군을 부의 관할에 둠.
  - 유수부, 부, 목, 도호부, 군, 현으로 구분되던 읍격을 일률적으로 군으로 조정하고 부에는 관찰사, 군에는 군수를 두어 지방행정사무를 통괄함.
  - 이때 화성지역(수원도호부와 남양도호부)은 수원군과 남양군으로 변경되어 인천부에 속하게 됨.
- **1896년 23부제는 종래의 8도제를 근간으로 한 13도제로 전환**
  - 수원군과 남양군은 경기도에 속하게 되었으며 수원군에 경기도관찰부가 설치됨.
- **1906년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9월 칙령 49호 '지방구역정리건'을 공포하면서 면에 대한 통폐합을 단행함.**

라. 일제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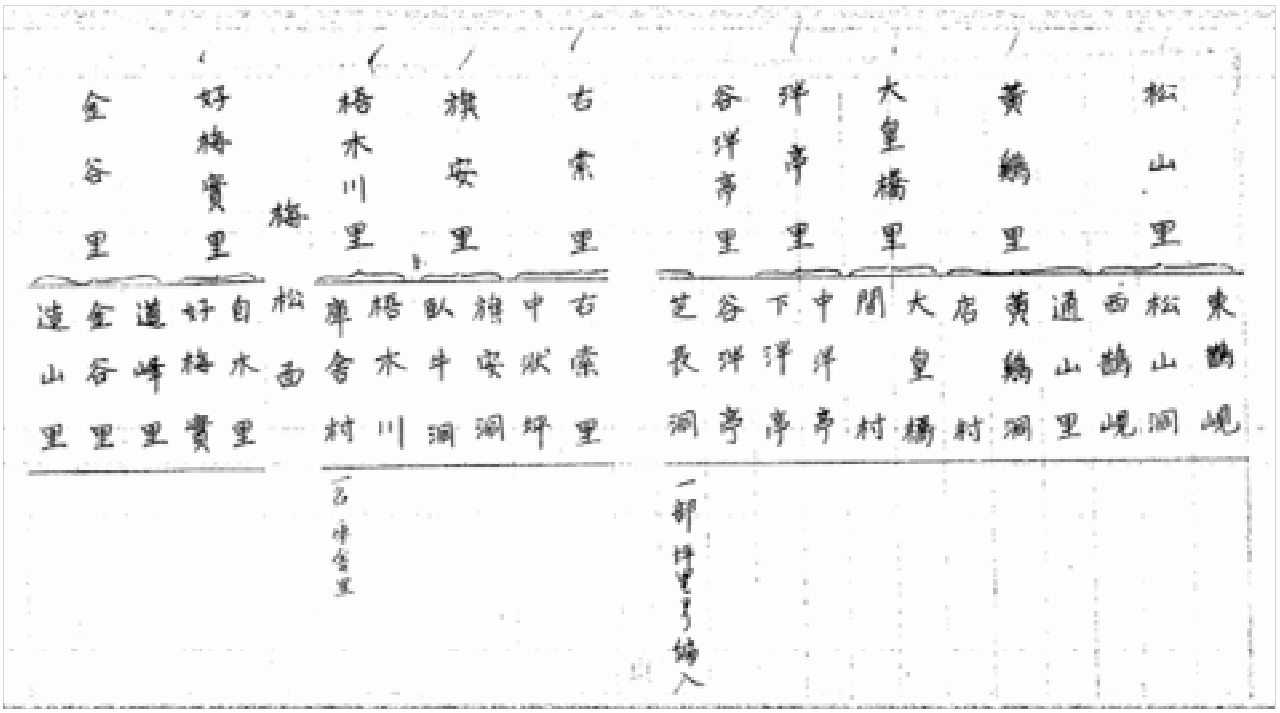
- **한일합방 후 1914년 대대적인 군면통폐합을 실시함.**
  - 개편된 수원군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각면은 대개 둘 이상의 면이 합해졌으며, 이름도 변경되었음.
  - 이때 동리명칭과 구역도 대폭적으로 통폐합되어 지명의 변동이 있었음.
  - '황계동'이라는 명칭은 1912년 조선총독부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 나타남.
  - 1915년 제27호 '동리촌의 명칭 및 구역변경보고(경기도)'에 따르면 황계리는 통산리(通山里), 황계동(黃鷄洞), 점촌(店村)을 합하여 '황계동'으로 고친 것으로 나타남.
  - 점촌은 현재 황계동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마을로 17·18세기 이후 상업의 발달에 따라 큰 도로변에 주막촌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간단한 숙박설비를 갖추고 식사

를 할 수 있는 마을[2])을 의미함.

[표 2-1] 19세기 말 20세기 초 황계동일대의 행정구역 변화

구분	1899년 (수원군 읍지)	1912년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1914년
안녕면	야반정, 독지동, 배양동, 작현동, 송산리, 장지촌, 하류천, 곡반정, 궁촌	안녕리, 동작현, 서작현, 송산동, 점촌, 황계동, 간촌, 대황교, 곡반정, 중반정, 하반정, 배양치	<u>안룡면 13개리로 통폐합</u> 평리(남부면 평촌, 중보리, 지장도 일부) 세리(남부면 상유천, 세동, 산루동 일부, 안녕면 독산리) 장지리(남부면 향목동, 장지동, 하류천) 배양리(안녕면 안녕리, 문시면 배양동) 안녕리(안녕면 안녕리, 문시면 석곶동) 송산리(안녕면 동작현, 송산동, 서작동) 황계리(안녕면 황계동, 점촌, 통산리) 대황교리(안녕면 대황교, 간촌) 반정리(안녕면 중반정, 하반정) 곡반정리(안녕면 곡반정) 고색리(용복면 고색리, 증보평, 남부면 지장도 일부) 기안리(용복면 기안동, 와우동) 오목천리(용복면 오목천, 고사촌)
용복면	기전리, 상송리, 신촌, 고색리	기안동, 와우동, 고사촌, 고색리, 중보형, 오목천	

자료: 화성시(2015.12), 화성시 도시계획사, pp.4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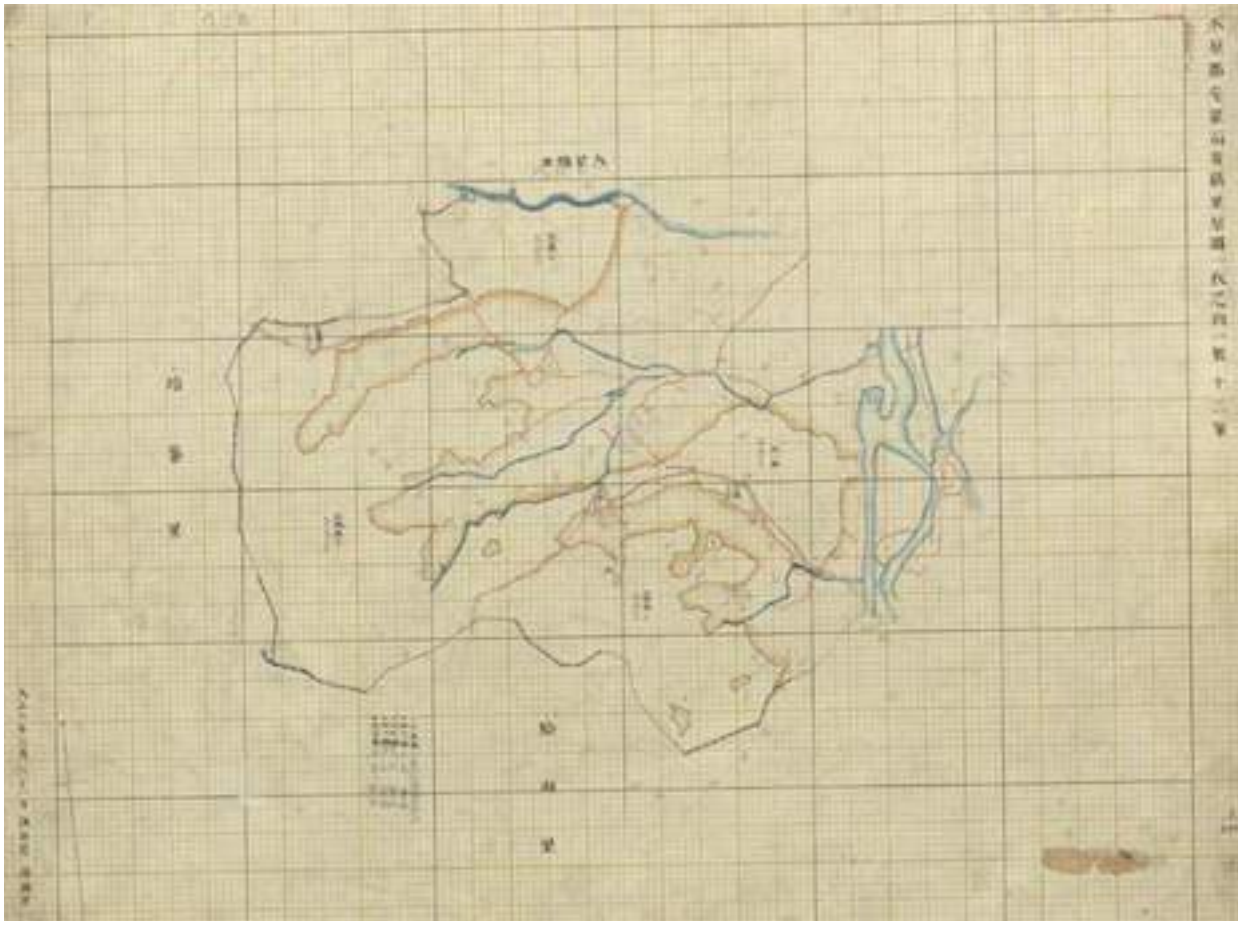
[그림 2-3] 1915년 제27호 동리촌 명칭 및 구역변경보고(경기도)

2) 화성시사편찬위원회(2005.12), 화성시사 Ⅰ, 충・효・예의 고장(乾), p.279

주석: 개정전 면경계는 검은 일점쇄선, 면명은 붉은색임. 개정후 면경계는 노란선, 면명은 남색임.

[그림 2-4] 조선총독부 수원군 지도 안룡면 부분, 국가기록원 소장

- **능원 화소구역 경계를 정할 때 개인토지를 사들여 왕실소유로 관리해나갔으나, 일제 강점기에 일부 동양척식주식회사로 넘어감.**
  - 1918년 조선총독부에서 제작한 황계리 지도를 보면, 황계리의 산림은 아직까지 창덕궁 소유로 표시되어 있으나, 주변지역의 산림은 동양척식주식회사로 넘어간 것으로 표시되어 있음.
  - 그 당시 산1, 2, 3, 4, 9, 10, 11림은 창덕궁 소유였으며, 산 5, 6, 7, 8, 12림은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로 기록되어 있음.



[그림 2-5] 조선총독부 수원군 안녕면 황계리 지도(1918), 국가기록원 소장

- 1937년경 중일전쟁 때 대황교동 일대에 수원공군기지가 건설됨.

마. 현대

- 중일전쟁(1937) 때 만들어진 수원공군기지가 1954년 대한민국 공군에 관할권이 이양되어 오늘에 이름.
- 황계동 지역은 1963년 태장면과 안룡면을 병합하여 태안면으로 개칭
  - 태장면의 3개리와 안룡면의 5개리를 수원시에 넘기고 태장면의 나머지 8개리와 안룡면의 6개를 신설된 태안면에 병합함.
- 1985년 태안면이 태안읍으로 승격
- 2005년 태안읍을 폐지하고 황계동 일대는 화산동으로 전환하여 오늘에 이름.
  - 화성시 태안읍을 폐지하고 화성시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으로 전환

3) 역사문화자원의 범주화(categorization)

가. 정조와 관련된 콘텐츠

① 황계동 일대는 능원의 시작점

- **사도세자 능원의 산불을 막기 위하여 정한 화소(火巢)[3]구간에 황계동 일부가 포함됨.**
  - 현륭원을 조성한 뒤, 1789~1793년에 기록한 원소정례(園所定例)에 따르면 화소경계의 둘레길이를 명기하고 있음[4].
  - 원소정례에 따르면 화소경계 총둘레가 15,038보(약 22.6㎞)에 이르렀으며 화소구간을 표시한 표석이 배양치, 홍범산 들머리, 하남산, 세람교에 세워졌다고 기록하고 있음.
  - 동쪽의 안녕 독지촌으로부터 성황산 뒤편까지 1,950보[5](약 2.95㎞), 성황산 뒤부터 배양치 표석까지 990보(약 1.49㎞)라는 기록이 있음.
  - 현재 위치를 알 수 있는 배양치, 세람교를 중심으로 화소구간을 추정하면 황계동 일원의 일부가 능원의 화소구역 안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그림 2-6] 1872년 제작된 지방지도 수원도호부 부분

3) 산불을 막기 위(爲)하여, 능원(陵園), 묘(墓) 등(等)의 해자(垓子) 밖에 있는 풀과 나무를 불살라 버린 곳

4) 園所定例(1789～1793) 顯隆園編 火巢境界周回步數
東自安寧禿旨村北至城隍山後一千九百五十步/自城隍山後至培養峙標石九百九十步/自培養峙標石至草山五百五十步/北自草山西南至龍伏西池村七百五十步/自西池村至臥牛川六百步/自臥牛川至洪範山入首岡脊標石一千二百步/西自洪範山入首標石南至溪洞八百五十步/自溪洞至栞堂巖下一千七百步/自栞堂巖至鳳鳥峰下貞松村一千步/自貞松村至上南山二千一百步/南自上南山東至下南山標石八百五十步/自下南山標石至老山一千一百五十步/自老山至細藍橋標石八百五十步/自細籃橋還至安寧禿旨村四百九十八步/以上一萬五千三十八步/比舊加三千三百五十二步

5) 6척=1보=1.5m로 계산함

자료: 園所定例(1789～1793)기록 참조

[그림 2-7] 화소구간의 검토

[그림 2-8] 건릉지(健陵誌) 능원침내금양전도(1879)

- **대황교 주변에는 오얏나무와 밤나무, 잡목 등을 식목함.**
  - 일성록 1798년 4월28일 기록에 따르면, 능원내에는 소나무를 심었으며, 대황교 이하 황교동에서 하옹봉 좌우까지 빙 둘러 오얏나무 9,736그루, 밤나무 9,877그루, 잡목 4,317그루를 심었다고 기록함.[6)]
  - 같은 날 기록에는 수목의 벌레잡는 일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각각 구역을 나누어 성황산 북동쪽 기슭의 형제정부터 수일점 뒤쪽기슭, 대황교와 황교동까지는 용인이 맡았으며, 벌레잡기에 대한 임금을 지불함.

일성록(日省錄) 기록 사례(정조)
1798.4.28.: 차사원이 소나무 7만 7876그루를 심었는데, 지역은 다음과 같다. 고서문 밖 홍범산(洪範山) 서쪽 배양치(培養峙)에서 성황산(星皇山) 서쪽 옛 향교 터와 둘째 백호(白虎)의 산허리 아래, 잔도현 서쪽까지 빙 둘러서 심었다. 오얏나무 9736그루와 밤나무 9877그루, 잡목 4317그루를 심었는데, 지역은 다음과 같다. 대황교 이하 황교동에서 하옹봉(下甕峯) 좌우까지 빙 둘러서 심었다. 버드나무 1만 7900그루를 유근교에서 팔달문(八達門)까지 빙 둘러서 심었다. 1798.4.28: 이달 10일에 원소에서 벌레 잡는 일을 시작하였다. -중략- 성황산 동북쪽 기슭의 형제정(兄弟井)부터 수일점 뒤쪽 기슭, 대황교와 황교동(皇橋洞)까지는 용인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황산 서쪽 기슭 안팎부터 배양현의 북쪽 기슭과 화산의 북쪽 기슭까지는 시흥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 중략- 실제 투입된 사람에게 사실대로 값을 지불하는 것이 가장 나을 것이니 -중략- 한번이라도 어기는 일이 있어 앞으로 어사의 행차에 드러나면 영을 어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고전번역원 DB〉

② 현륭원 주변 백성들에 대한 위민정책

- **정조는 화산 및 성황산 일대에 살던 주민들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고 위민정책을 펼침.**
  - 1789년(정조 13년) 10월 11일 일성록 기록에는 원소부근 백성들과 신읍 이주민에게 10년간 부역을 면제하고 각종 세곡미를 탕감해줌.[7)]

6) 日省錄 正祖 22年 戊午(1798) 4月 28日(壬戌)

7) 日省錄 正祖 13年 己酉(1789)10月 11日(癸亥)

- 1790년(정조 14년) 2월15일 일성록 기록에는 현륭원 주변 백성은 집안사람이나 부자간과 마찬가지여서 이곳 백성들이 즐겁게 지내야 함을 강조함.[8)]
- 1790년(정조 14년) 12월 4일 일성록 기록에는 현륭원 화소(火巢)구역 안에 백성들의 땅이 포함되었을 경우 넉넉하게 값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남아있음.[9)]

일성록(日省錄) 기록 사례

1789.10.11.: 수원부는 조상의 묘소가 있는 나의 고향이며 그대들은 이 고향의 백성인 것이다. 내가 그대들을 집안사람처럼 여기어 먹고사는 것을 여유 있게 해 주고 산업(産業)을 풍족하게 해 줌으로써, 그대들로 하여금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즐겁게 생업에 종사할 방도를 알게 해 주어야, 나의 책임을 다할 수 있고 나의 마음을 편안히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물며 이곳으로 이주(移住)한 초기부터 그대들에게 노고를 끼친 것이 크다고 하겠으니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이를 한 번 생각할 때마다 궐 안의 생활이 어찌 편안하겠는가. - 중략- 원소(園所) 부근 면리(面里)의 백성과 이주한 백성에게는 10년간 급복(給復)하고, 신환상(新還上)을 탕감(蕩減)하며, 수미(需米)와 보미(保米)도 분수(分數)하여 탕감하도록 허락하고, 나머지는 대전(代錢)을 받도록 하라.

1790.2.15.: 선침을 이곳에 모신 뒤로부터는 이 고을의 백성은 집안사람이나 부자간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백성들이 즐겁게 살면 나 역시 즐겁고, 백성들이 생업에 안주하면 나 역시 편하게 지낼 것이다.

1790.12.4.: 현륭원의 화소(火巢경계: 능침안쪽의 불을 피우지 못하는 구간)경계를 개정하였는데 혹 그 가운데 들어간 백성들의 땅에 대해서는 넉넉하게 값을 지급해야 하니 영남 남창의 1만냥을 수송하여 보태게 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 DB〉

③ 정조 능행차와 황계동의 지리적 검토

사도세자 능원 이장(1789~1794)

- **혜경궁 홍씨 회갑연 전에는 현륭원의 북측인 배양치를 통해 행차**
  - 1794년 1월13일 일성록 기록을 보면 능원행차 시 배양치를 넘어 능원에 이르렀던 것

8)日省錄 正祖 14年 庚戌(1790) 2月 15日(丙寅)

9)日省錄 正祖 14年 庚戌(1790) 12月 4日(庚戌)

에 대한 기사가 남아 있음.[10)]

- **제사를 모신 뒤에 정조는 능원 주변을 둘러보기 위하여 성황산 주봉에 올랐던 것으로 기록이 남아있음.**
  - 1791년 1월 17일, 1794년 1월13일 기록을 보면, 성황산 주봉에 올라 주변을 살핀 뒤, 화성행궁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용주사를 거쳐 황계동 쪽으로 내려왔을 것으로 추정됨.[11)]

을묘년 혜경궁 홍씨 회갑연(1795~1800) 이후

- **혜경궁 홍씨 회갑연(1795)을 위하여 가마가 지나갈 수 있는 능행차길을 새롭게 정비**
  - 습지였던 방축수를 만년제로 개칭하고 능행차길을 배양치에서 만년제 북쪽 제방으로 변경함.
  - 기존의 지명도 한단계 높인 지명으로 변경함.

    ►방축수→만년제(萬年堤): 안녕리 152

    ►소황교(小黃橋)→황교(皇橋)

    ►독봉(獨峰)→옹봉(甕峰): 수원비행장 내

    ►황교(黃橋)→대황교(大皇橋): 황계동 163-2번지

    ►작현(鵲峴, 까치고개)→ 유첨현(逌 瞻峴): 미소지으며 아버지가 잠든 능원을 우러러 보는 곳

    ►사성교(士成橋)→유근교(逌 覲橋): 아버지 묘소를 비로소 알현하기 위해 건너는 다리

- **혜경궁 홍씨 회갑연 이후 사람의 통행을 막고 임금의 수레가 지나가던 길을 의미하는 필로(蹕路)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음.[12)]**
  - 화성지의 기록에 따르면 필로는 다음과 같음.

    ►지지현, 지지대, 주필대, 괴목정교, 일용리, 여의교, 만석거, 기하동, 대유평, 영화역, 관길야, 장안문, 행궁, 팔달문, 매교, 만화현, 건장동, 하유천, 황교(소황교), 옹봉(독봉), 대황교(황교), 능원소화소, 유첨현(까치고개), 안녕리, 유근교, 만년제, 능원소동구

---

10)日省錄 正祖 18年 甲寅(1794) 1月 13日(辛丑)
장용영 향군 1개초가 먼저 배양치를 넘으라고 명하고 각신, 승지, 사관외에는 모두 말에서 내려 걸어서 뒤를 따르라고 명하였다.

11) 日省錄 正祖 15年 辛亥(1791) 1月 17日(壬辰)
日省錄 正祖 18年 甲寅(1794) 1月 13日(辛丑)

12) 華城志(1831), 蹕路條

- 필로 중 대황교(황계동 163-2), 능원소화소, 유첨현(까치고개) 초입이 황계동 지역내로 추정
- 대황교는 옹봉으로부터 100여보이며 길 서편에 '大皇橋'라는 표석을 세웠고 단정(短亭)이 있었다고 기록함.
- 능원소화소는 대황교 아래 길 동편에 '화소(火巢)'라고 새긴 표석이 있었다고 기록함.
- 유첨현(까치고개)은 화소로부터 1리쯤 이며 길 서편에 '逌瞻峴'이라는 표석을 세웠으며, 이곳에 이르기 전 100여보쯤에 장승을 세웠음. 옹봉으로부터 통합해서 5리였다고 기록함.

[그림 2-9] 황계동 지역내로 추정되는 필로구간

- **혜경궁 홍씨 회갑연 이후에도 제사를 모시고 돌아가는 길에 정조대왕은 성황산에 올라 능원 주변을 살피고 황계동 일대에서 잠시 식사를 하면서 쉬어가던 것으로 추정됨.**
  - 1796, 1797, 1799, 1800년의 기록을 보면 제사를 모시고 북쪽문으로 나와 성황산에 올라 능원 내외를 두루 살핀 뒤 용주사 앞길을 거쳐 내려가면서 임시막사를 치고 잠시 신하들과 식사를 하던 일화가 여러번 남아있음.
  - 1800년 6월 정조 붕어 전인 1월 17일에도 능행차를 한 뒤 재실을 나와 성황산에 이르러 임시막사를 치고 같이 간 신하들에게 밥을 하사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음.
- **정조대왕이 배봉산에서 화산으로 능침을 옮긴 뒤 1789년~1800년까지 제사를 모시고 돌아갈**

때에는 북문으로 나가 능원일대를 둘러보기 위하여 말을 타고 용주사 앞길을 거쳐 성황산에 올랐다가 임시막사에서 신하들과 식사를 한 뒤 대황교를 거쳐 행궁으로 돌아가는 노정을 행하였고 그 가운데 황계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그림 2-10] 일성록 기록에 따른 황계동 일대 정조년간 능행차길

일성록(日省錄) 기록 사례(정조)

1791.1.17.: 현륭원에 행차하여 제사를 지낸 뒤 가마를 타고 재실 북쪽 문을 나가 동쪽 산기슭을 거쳐 구불구불 주봉에 올라가서 식목이 잘 되어 있는 지 직접 살펴보았다. 이어서 지나는 길에 용주사에 들렀다가 말을 타고 출발하였다.

1794.1.13.: 제사를 모신 뒤 청룡쪽 산기슭을 거쳐 강무당 뒤쪽의 기슭에 올라 형국을 살펴보았다, 이서 산등성 마루를 따라가다가 성황산의 주봉에 올라서 용주사 뒤쪽 작은 암자가 있는 곳을 살피고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천천히 내려왔다.

1796.1.21.: 산길이 험하여 걸어서 뒤를 따르기는 어려울 듯하니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을 따라오되 따라오지 못할 사람은 성황산 앞길에 가서 대령하라. 어정옆을 통하여 구암을 거쳐 옛 향교재를 지나 옛 서문에 이르러 백성들에게 부채, 책력, 모자를 나누어 주라 명하였다.

1796.1.21.: 이날 능원내외를 두루 살펴 계산하면 개략 60여 리가 되고 날도 저물었지만 나는 아침밥도 들지 않았다. 용주사 앞길을 거쳐 성황산에 있는 작은 암자 뒤 산기슭에 나아가 자리를 깔고 앉아 비로소 저녁밥을 먹고 신하들에게 밥을 하사하였다.

1797. 1.30: 말을 타고 만년제 아래에서 용주사 뒷길을 거쳐 성황산에 올랐다. 말에서 내려 임시 막사에 나아가 신하들에게 밥을 하사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작년에 거의 모두 돌아봤으니 오늘은 여기에서 행궁으로 돌아가려고 한다”하니 병조판서 이득신이 아뢰기를” 오늘 지나온 길이 높고 경사졌는데 성상께서 이처럼 수고로이 거둥하셨으니 삼가 염려됩니다.” 내가 이르기를 “산을 순행하는 일은 그만둘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곤한 줄도 모르겠다 " 이어 말을 타고 까치고개 길을 따라 안녕리 뒷길을 나와 상류천에 이르렀다.

1799.8.20.: 친제를 행하고 원상에 나아가 살폈다. 수목과 수호군들에게 외정리소로 하여금 규례대로 시상하게 하고 경수복은 해당 조로 하여금 규례를 살펴서 시상하라고 명하였다. 다시 임시막사에 나아가 군복으로 갈아입고 편여를 타고 능원국내를 살폈다. 성황산에 이르러 여러 신하들에게 음식을 베풀었다.

1800.1.17.: 군복을 입고 말을 타고 재실을 나왔다. 강무당의 옛터에 이르러 두루 살폈다. 이어 성황산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막차(임시로 친 장막)로 들어갔다. 각신, 승지, 사관에게 밥을 하사하였다. 말을 타고 다시 출발하여 팔달문과 중양문으로 들어와 말에서 내려 행궁으로 들어갔다.

〈한국고전번역원 DB〉

정조이후 능행차

- **정조 붕어 후, 조선시대 왕들은 1일 이상 걸리는 건릉(정조)과 현륭원(사도세자)까지 능행차의 빈도수가 점차 줄어들음.**
  - 순조는 정조의 2남으로 장자인 문효세자가 일찍 죽어 1800년(정조 24) 왕세자에 책봉되고 같은 해 6월에 11세의 나이로 즉위
  - 왕위에 오른지 5년이 지나도록 행역(行役)과 대궐 밖에서 묵는 일에 익숙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선왕의 능원인 건릉(정조)에 행차하지 못하다가[13] 순조4년(1804) 8월29일 능행차를 시행함.
  - 순조4년(1804) 8월 능행차 경로: 배다리→용양봉저정→시흥행궁(숙박)→사근평 응란헌→화성행궁(숙박)→건릉과 현륭원 친제→화성행궁(숙박)→시흥행궁→창덕궁[14]
  - 순조는 재위기간 35년간 총 7회 건릉과 현륭원에 능행차를 시행함.

일성록(日省錄) 기록 사례(순조)
1804.02.01.: 선침(仙寢)을 공경히 받들 때 나 소자가 스스로 정리(情理)와 예의를 다하지 못하여 비통하고 우울하였는데, 어느덧 5년이 지났다. 올봄에는 건릉(健陵)에 공경히 전알하여 그리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펴려고 하였지만, 행역(行役)에 익숙하지 못하고 가는 길이 조금 멀어 여러 날 경숙(經宿)하는 것이 몹시 우려스럽다는 이유로 전(殿)·궁(宮)께서 누누이 애써 만류하셨다. 그래서 감히 정리를 억누르고 우러러 받들어 가을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당일 다녀올 수 있는 곳은 역시 굳이 행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번에 명릉과 홍릉을 전알하겠으니, 날짜를 이달 20일 전후로 가려서 들이라.
1804.08.29.: 슬픔을 삼키고 아픔을 머금은 지 이제 5년이 되었다. 지금에야 와서 상설(象設)을 우러르니, 신령이 성대히 오르내리며 가까이 위에 계셔서 위엄 있는 용안을 뵐 듯하고 옥음을 들을 듯하건만 끝내 받들지 못하니 비통한 마음을 어찌 스스로 펼 수 있겠는가. 능사(陵司)인 본릉 영 유한석(兪漢石)은 수령의 빈자리가 나거든 조용하고, 참봉 이희현은 6품으로 올려 임시로 영(令)으로 삼고, 본릉의 사무를 숙지하고 있는 수복은 첩가(帖加)를 만들어 주고, 수복 이하는 규례를 상고하여 시상하라.
〈한국고전번역원 DB〉

13) 日省錄 純祖 4年 甲子(1804) 4月2日(辛酉)

14) 日省錄 純祖 4年 甲子(1804) 8月1日(丁巳)

[표 2-2] 정조 이후 건릉 및 현륭원 능행차

구분	재위기간	기록상 능행차 회수	기록
순조	1800~1834	7	1804년 8월29일, 1806년 2월20일, 1807년 8월28일, 1810년 8월29일, 1817년 2월27일, 1821년 2월20일, 1828년 2월23일
헌종	1834~1849	2	1843년 3월16일, 1846년 2월21일
철종	1849~1863	2	1852년 2월26일, 1855년 2월28일
고종	1863~1907	3	1866년 2월18일, 1868년 3월14일, 1870년 3월13일
순종	1907~1910	1	1908년 10월2일

자료: 국조보감,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승정원일기

- **정조 이후 왕들의 능행차시 선왕의 예를 본받아 유생과 무사들의 시험, 고을 노인들에 대한 봉양 등을 시행하기도 함.**
  - 순조10년(1810) 8월 능행차시에는 장남헌에서 군병들의 무예를 보고 저녁에는 서장대에서 밤 군사훈련을 실시함.[15]
  - 순조28년(1828) 2월 능행차시에는 화성의 유생과 무사들의 시험을 시행하고, 70세 이상인 자와 39세 및 40세인 자에게 각각 쌀과 고기를 하사함.[16]
  - 철종6년(1855) 2월 능행차시에는 80세 이상인 자들에게 쌀과 고기를 내림.[17]

④ 정조의 국장

- **1800년 6월 정조 붕어 이후 11월 발인하여 건릉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대황교를 거쳐 황계동을 지나가야 했음.**
  - 1800년 6월28일 창경궁 영춘헌에서 정조 승하 후 빈전도감, 국장도감, 산릉도감이라는 임시기관을 설치하고 장례를 준비
  - 조선시대 국장은 통산 5개월이 지난 뒤 발인을 하게 됨.
  - 산릉도감에서 미리 조성해 놓은 왕릉자리에 도착하면 관을 정자각에 모시고 관을 하관
  - 왕릉조성이 끝나면 가신주를 모시고 궁궐로 돌아와 3년상을 지낸 뒤 가신주를 종묘터에 묻고 새신주를 만들어 종묘에 모심.

15) 朝鮮王朝實錄 純祖 10年 庚午(1810) 8月29日(辛亥)

16) 國朝寶鑑 第81卷 純宗 28年 戊子(1828) 2月(당초 순조의 묘호가 순종이었음)

17) 國朝寶鑑 第88卷 哲宗 6年 乙卯(1855) 2月

- 빈전도감: 왕의 옥체를 모신 빈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을 총괄
- 국장도감: 장례에 필요한 재료, 설비, 제도를 운영하고 진행함.
- 산릉도감: 왕릉을 조성하는 일을 맡음.

● **정조의 국장에 관한 기록은 그의 신하들이 작성한 정조국장도감의궤에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음.**

- 1800년 11월3일 축시에 발인이 시작되어 창경궁을 출발→시흥(9,630명이 국장행렬에 참가)
- 1800년 11월4일: 시흥 출발→사근평→화성행궁
- 1800년 11월5일: 화성행궁→건릉도착

[그림 2-11] 정조국장도감의궤

나. 황계동 선조들과 관련된 콘텐츠(능지기, 수호군)

- 원래 화소구역 안에는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조의 명으로 현륭원 화소구역내의 백성들은 필로를 제외하고는 철거하지 말라는 명을 내림.[18]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기록 사례(정조)
1789.08.02.: 그리고 각 능침의 화소 안에 비록 인가가 들어있는 예가 없기는 하나, 지금은 한 가호도 이사시키기 어려운 때이니 동구(洞口)의 경계를 정한 후에 능행(陵幸)할 때 수레가 머무르게 될 곳을 헤아려 제외하고, 그 밖에 빈 땅은 화소 안이라는 데에 구애받지 말아서 현재 남아있는 인가에 대해서는 철거하지 말도록 하라. 설령 이사를 떠나는 백성이 있더라도, 원래의 집은 수호군과 매매하도록 해도 안 될 것이 없을 것이니, 이에 따라 편의대로 조처하라. 도감 및 고을의 관아에서 사용하기 위해 사유지의 재목을 베어내 가져오는 것은 모두 값을 지급해 주도록 하라
〈한국고전번역원 DB〉

- 현륭원이 조성되면서 능직과 관련된 많은 수의 원속(園屬)들이 필요하였음.
  - 현륭원의 원관으로 종5품 령을 2명 배치하고, 원속으로 식목감관(1인), 본서원(1인), 경서원(1인), 수복(4인), 고직(1인), 수호군(50인), 안산직(70인), 외금양산직(7인)이 소속되어 있어 총 인원이 137명에 달함.
  - 수복과 산직, 외수호군 중 2명씩은 매일 밤 능원전각 주변을 순찰함.[19]
  - 수호군 2명과 안산직 2명은 매일 능원주변 산을 순찰하였음.[20]
  - 수호군과 안산직은 매월 음력 초하루와 보름에 제초작업과 청소를 하고 눈이 올 시에는 모두 명령을 기다림.[21]

18) 朝鮮王朝實錄 正祖13年 己酉(1789) 8月2日(乙卯)

19) 園所定例(1789～1793) 顯隆園編
守僕山直外守護軍中二名式輪回 回每夜巡更於 於園上殿 內近處

20) 園所定例(1789～1793) 顯隆園編
守護軍二名案山直二名合四名式每日輪回 回巡山

21) 園所定例(1789～1793) 顯隆園編
守護軍及案山直每月朔望合番除草修掃若値雪時一齊待令

[표 2-3] 원소정례(園所定例)(1789~1793)에 나타난 현륭원 관련 직제

구분	직명	명수	담당
원관 (園官)	령(令)	2	종5품
원속 (園屬)	식목감관(植木監官)	1	식목관련
	본서원(本書員)	1	상고(詳考)할 문서와 장부관리
	경서원(京書員)	1	한양 내 거행되는 행사 관리
	수복(守僕)	4	향불 피우기, 청소, 제초, 능원살피기 등
	고직(庫直)	1	제기관리
	수호군(守護軍)	50	내산직(內山直) 4명, 수청(隨廳) 2명, 행수(行首)1명 포함
	안산직(安山直)	70	도산직(都山直) 1명, 산직(山直) 2명 포함
	외금양산직(外禁養山直)	7	초봉(草峯), 배양치(培養峙), 홍범산(洪範山), 대봉(台峯), 석관(石串), 남산(南山), 양산(陽山)
총인원		137	

자료: 園所定例(1789~1793) 顯隆園編, 藏書閣소장

- **특히 화소구역 내 전답의 경작권을 능원을 관리하기 위한 원속(園屬)들에게 나누어줌으로써 황계동 일대에도 원속들과 그의 가족들로 구성된 마을이 유지됨.**
  - 황계동 일원도 화소구역내로 그 지역에 살던 일반백성들은 수호군, 산지기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으며,[22] 화소내 전답을 원속들에게 나누어 주었음.[23]
  - 현륭원 화소구역 내 각동리는 능원과 관련된 원속들이 사는 곳(圓屬之盤居)이고 동민들 대부분은 이들의 친인척이었다는 기록도 남아있음.[24]

22) 園所定例(1789~1793) 顯隆園編
園官 令二員員[주:從從五品]
園屬 植木監官 一人[주:專管植木事], 本書員員 一人[주:只管文簿事], 京書員員 一人[주:只管京中擧擧行事], 守僕四人 [주:熟習祭儀焚香奉審修掃殿內除草園上看檢], 庫直一名 [주:次知祭器], 守護軍五十名 [주:其中有所任二名內山直四名隨廳二名行首一名], 案山直七十名 [주:其中有都山直一名所任山直二名], 外禁養山直七名 [주:一草峯二培養峙三洪範山四台峯五石串六南山七陽山不入■額不參■]

23) 園所定例(1789~1793) 顯隆園編
火巢內田沓員 員役等 等分給秩
員 員役七人京來 來守護軍一名田各四十五斗落沓各十斗落/ 隨廳二人山直四名所任軍二名田各四十斗落沓各七斗落/ 守護軍四十一名田各三十斗落沓各七斗落/案山都山直兩所任合三名田各二十斗落/長番二名田各十五斗落/ 植木監官一人田四十五斗落畓十斗落/ 以上田一百二石五斗畓二十一石十三斗 員員役七人守護軍五十名各給復一結五十負米六十斗
保軍每人二名每名二兩合四兩式

24) 本府大皇橋作挈罪人等行查文案, 高宗28年(1891年), 奎章閣所藏 筆寫本
火巢內各洞 卽是 園屬之盤居也 各洞中居民亦多園屬之族戚

[그림 2-12] 園所定例(1789~1793) 顯隆園編

[표 2-4] 원소정례(園所定例)(1789~1793)에 나타난 화소구역 내 전답 배분현황

구분	직명		명수	화소구역내 전답 배분	비고
원관(園官)	령(令)		2	종5품	
원속(園屬)	식목감관(植木監官)		1	밭 45마지기, 논10마지기	
	본서원(本書員)		1	밭 45마지기, 논10마지기	조세 면제 (一結[25]五十負米六十斗)
	경서원(京書員)		1	밭 45마지기, 논10마지기	
	수복(守僕)		4	밭 45마지기, 논10마지기	
	고직(庫直)		1	밭 45마지기, 논10마지기	
	수호군(守護軍)	경래(京來)수호군	1	밭 45마지기, 논10마지기	
		내산직(內山直)	4	밭 40마지기, 논 7마지기	
		수청(隨廳)	2	밭 40마지기, 논 7마지기	
		소임군(所任軍)	2	밭 40마지기, 논 7마지기	
		일반 수호군	41	밭 30마지기, 논 7마지기	
	안산직(安山直)	도산직(都山直)	1	밭 20마지기	
		산직(山直)	2	밭 20마지기	
		일반 안산직	67	-	
	외금양산직(外禁養山直)		7	-	화소구역 밖 담당
총인원			17		

자료: 園所定例(1789~1793) 顯隆園編

[그림 2-13] 본부대황교작나죄인등행사문안(本府大皇橋作挈罪人等行査文案), 고종28년(1891년), 규장각소장 필사본

25) 논밭의 면적 단위. 모든 토지는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었는데, 이 때 토지 측량의 기준이 되는 전척(田尺)의 길이도 토지 등급에 따라 달랐음. 이러한 양전척(量田尺)에 따라 1평방척(平方尺)을 1파(把), 10파를 1속(束), 10속을 1부(負), 1백부를 1결(結)이라 함.

本府大皇橋作挈罪人等行査文案, 高宗28年(1891年), 奎章閣所藏 筆寫本
火巢內各洞 卽是 園屬之盤居也　各洞中居民 亦 多園屬之族戚

- **현륭원 일대에 새로운 지역세력으로 능참봉이 등장함.**
  - 참봉은 종9품의 직제로 경국대전(1471년)에 능원에 각 참봉 2명씩을 배치하였다가 숙종 32년(1706년)에 1인으로 축소함.
  - 영조1년(1725년)에 참봉을 종7품 직장(直長)으로 다시 영조 12년(1736년)에 다시 종5품 령(령)으로 승급시킴.[26]
  - 현륭원에서 편찬한 원소정례(園所定例)(1789~1793)에 따르면 현륭원 조성당시에는 령이 2명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음.
  - 능참봉의 역할은 9품의 하위직이지만 직무상 임금의 능을 모시는 관직으로 그 상징성이 부여되고 실제로 규정보다 훨씬 많은 권한과 임무를 수행하였음.
  - 또한 왕릉의 관리와 제례를 담당하고 있어 유학적 지식과 기술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했음.
  - 능관은 매 5일(5일, 15일, 25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관복을 갖추고 정자각에 나아가 안팎과 위아래, 상타, 욕석을 상세히 살핀 뒤, 능상주위를 돌면서 사초와 석물, 곡장 등에 이상이 있는 지를 살피고, 그 뒤에는 비각, 수라간, 우물 등을 살피고 청소함.
- **당시 능참봉은 맡은 바 소임 외에 비공식적 권한과 영향력이 있었음.**[27]
  - 수복과 수호군 등을 관리 감독하고 산림부산물 처리에서 암묵적 권한과 관리책임이 부여되었음.
  - 능에 딸린 사찰과 지방관과의 관계 또한 지위체계의 고하를 막론하고 비공식적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하였음.
- **19세기 후반 현륭원 원군을 중심으로 능참봉에 대한 규탄과 민란이 일어나기도 함.**
  - 고종 28년(1891.3) 현륭원 참봉 민병성의 수탈과 악행에 대해 지역동민들 중 원군(園軍)을 중심으로 그의 교자와 의관을 훼손하고 관원을 결박하여 대황교로 끌고간 사건이 발생함.[28]

---

26) 신현실, 이원호(2011.6), "조선시대 능참봉직의 조경사적 의의," 한국전통조경학회지 권29 2호, p.147.

27) 상게논문, p.142.

28) 本府大皇橋作挈罪人等行査文案, 高宗28年(1891年), 奎章閣所藏 筆寫本
문안에 따르면, 백성 몇백명이 교자를 부수고 의관을 찢어 나신을 결박하여 핍박하며 대황교로 끌고간 것으로 나타남.

- 민참봉이 능원구역 내 소나무를 베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금전적 수탈 등을 견디지 못하고 사건을 일으킴.[29]

본부대황교작나죄인등행사문안(本府大皇橋作拏罪人等行査文案)
고종28년(1891년), 규장각소장 필사본

고종28년(1891년) 3월 12일

수원부 대황교 부근에서 발생한 현륭원(사도세자를 모신 능으로 정조가 죽은 후 정조의 능인 건릉과 함께 융건릉으로 칭함) 참봉 민병성에 대한 원군동민(園軍洞民)들의 민란에 대한 용인현령의 보고서이다. 원군 중 발고자인 수복 최신통·박윤석·백송학에 대한 사건 경과 심문과 응답, 범인으로 체포된 이원용, 이기철, 이인종, 박진상에 대한 1차 심문, 최신통 이원용·이기철·이인종·박진상에 대한 2차 심문, 최신통 박진상에 대한 3차 심문, 수원부 이교(吏校)들이 작변한 군중을 말리면서 그들의 억울한 사정을 기록한 본부리교지래건기(本府吏校持來件記)와 민참봉이 직접 자신의 죄목을 기록하고 서명한 10건 사죄목, 마지막으로 용인현령의 처분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참봉 민병성은 부임한 이래 수많은 음행과 토색질을 하여 원군 김준기와 박진상이 주동하여 인근 동민 수백 명과 함께 민참봉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가마를 습격, 의관을 찢고 구타한 후 끌고 다니는 작변을 일으킨 것이다.

민참봉이 스스로 인정한 죄목을 보더라도 ①재실에 입직하지 않고 밖에서 유희한 죄, ②외재실에서 주야로 여자와 음행한 죄, ③소나무 20여 그루를 베어 송판으로 만들어 자기 집에 170편을 보낸 죄, ④수호군이 바치는 정규 지공(支供, 관에서 사용하는 물품) 외 매번 수백 냥씩 징봉한 죄, ⑤친가에 가서 일가를 만나는 여성을 겁간한 죄, ⑥외촌 백성을 음해죄로 몰아 주뢰형을 가하고 12,000냥을 억지로 받아낸 죄, ⑦부모를 위해 판재를 싣고 가던 사람을 잡아 가두고 소 두 필과 1,500냥을 억지로 받아내려 한 죄, ⑧각처 점인에게 옹기 백여 개를 늑탈하여 자기 집으로 보낸 죄, ⑨각 군정에게 안경값으로 4백 냥 징출한 죄, ⑩각 군정에게 모기장과 강보 값으로 천 냥을 징출한 등의 죄 등이다.

용인현령도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여 현륭원 부근 각동은 원속들이 사는 곳이고 각 동민은 대부분 원속의 족척인데, 이들의 원한은 監官·守僕·守護軍· 山直으로부터 각동민에 이르기까지 수년간 누적되어 왔음을 보고하면서 민참봉의 소행에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왕릉 관할 관리를 습격하는 행태를 엄단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주모자 김준기와 박진상을 엄형에 처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능원을 관리하는 원군들이 변란을 일으킨 것이라 조선후기 민란으로서는 다소 예외적인 형태이지만, 수탈과 불법부정한 행태에서는 동일한 측면을 보이는 사건이다.

29) 本府大皇橋作拏罪人等行査文案, 高宗28年(1891年), 奎章閣所藏 筆寫本

승정원일기(고종)

고종 28년(1891년) 8월27일

윤기진이 의정부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수원 유수(水原留守) 윤영신(尹榮信)의 계본을 보니, 원군(園軍)이 소란을 일으킨 정황에 대해서 사관(査官)을 정해 각각의 사람을 엄하게 조사해서 공술(供述)을 받아내어 등문(登聞)하는 내용이었는데,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판부하여 명을 내리셨습니다.

법과 기강이 점차 무너져서 세속의 풍습이 패려궂고 완악해졌다고는 하지만, 이번 원관(園官)의 일에 이르러서는 극에 달한 것입니다. 설사 억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을 아뢰고 호소함에 있어 방도가 없을 것을 어찌 근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소중한 자리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무뢰배들을 위협하고 충동질해서 교자(轎子)를 부수고 옷을 찢으며 관원을 결박하였으니, 이는 곧 옛날에 없었던 변고입니다.

김준기(金俊基)는 직임에서 태거(汰去)된 것에 유감을 품고 체직(替直)하는 기회를 몰래 엿보아 집을 헐겠다고 협박하고 무리를 모으는 소리를 선창(先唱)하였으니, 때를 틈타 지휘한 자도 그자이고 그 자리에서 능멸하고 핍박한 자도 그자입니다. 그러니 맨 먼저 주창한 자를 지목함에 있어 그자를 빼면 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조사를 행하기 전에 낌새를 알아채고는 법망을 피해 달아났으니, 더욱 분하고 원통합니다. 염탐하여 체포해서 속히 효수(梟首)하여 사람들을 경책한 뒤에 계문하도록 특별히 신칙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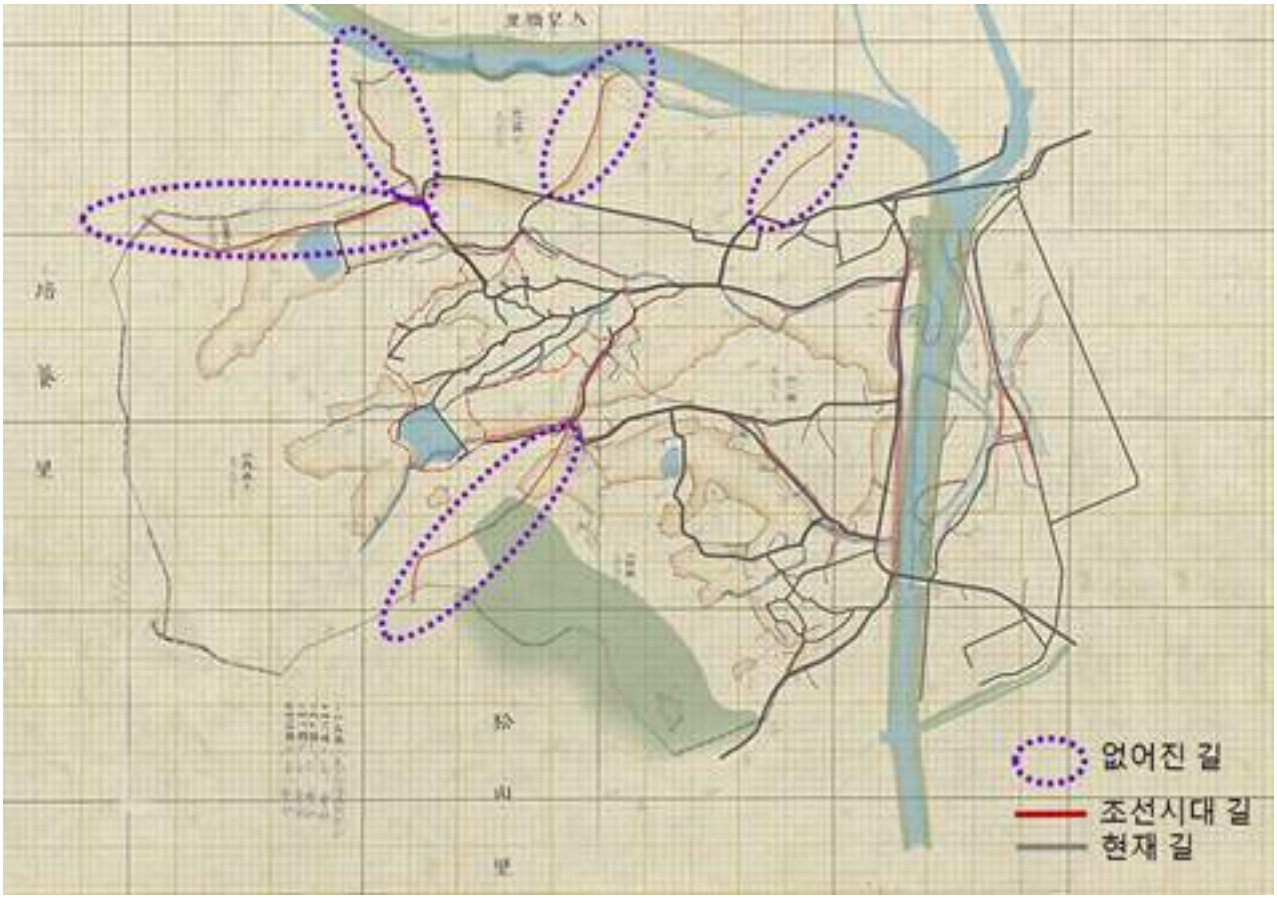
박진상(朴振尙)은 처음에는 출직(出直)하는 것을 탐색하여 알리는 데에 참여해서 계획을 짠 혐의를 감추기가 어렵고, 나중에는 소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모인 데에 와서 자연 관련되게 되었으니, 엄히 형신한 뒤에 죽을 때까지 원악도 정배(遠惡島定配)하고, 그 나머지 죄수들은 등급을 나누어 징계하고서 풀어 주도록 아울러 수신(守臣)에게 분부하소서.

해당 참봉 민병성(閔丙星)은 격렬한 변고가 실상 그에게서 연유하였고, 스스로 몰래 나무를 베었으니, 크게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해부(該府)로 하여금 나문(拿問)하여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 DB〉

- **1918년 조선총독부에서 제작한 지도를 보면 마을안길에 거의 변화가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조선시대 능지기 마을의 형태를 그대로 가진 마을로 판단됨.**
  - 신규 주택이 만들어질 때 조금씩 길이 더 만들어졌으며, 수원공군비행장 쪽으로 갈 수 있었던 길과 배양치로 가던 옛길, 성황산으로 가던 옛길 등만 없어진 상황



[그림 2-14] 조선총독부 수원군 안녕면 황계리 지도(1918)에 나타난 길과 현재 도로 비교

다. 성황산과 관련된 콘텐츠

① 사도세자 능원을 옮기기 전 수원도호부의 옛읍치

- **성황산과 황계동 일원은 조선시대 화성지역의 2개 문화중심 중의 하나**

  - 옛 수원도호부의 읍치(황계동을 포함한 화산동 일대), 남양도호부(남양읍)를 합쳐서 화성시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현륭원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화성지역의 2개의 문화중심 중의 하나였음.

[그림 2-15] 조선시대 화성시 해당지역의 읍치

② 고을 수호신을 위한 성황제사를 지내던 성황산

- **조선초기 유교적 질서를 확립하고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읍치에 3단1묘의 제사시설을 설치**

  - 조선시대 읍치에는 사직단(社稷壇), 문묘(文廟), 여단(禜壇), 성황단(城隍壇)이 만들어졌음(3壇1廟).

  ► 사직단: 토지신과 곡식신에게 제사지내는 장소로 대부분 읍치의 서쪽에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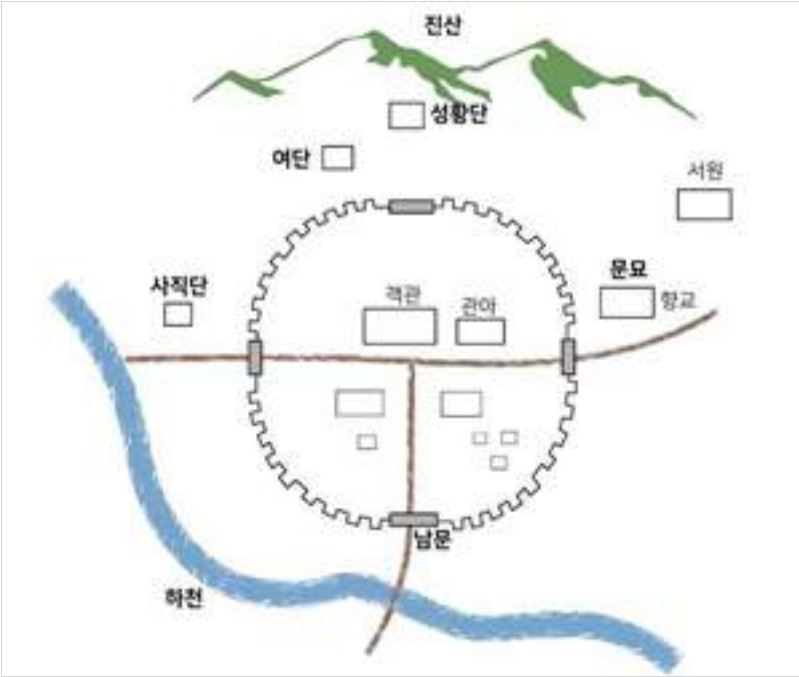
  ► 문묘: 공자를 비롯한 중국과 한반도의 유명한 성현을 모시고 제사지내는 장소로 향교 내 대성전에 위치

  ► 여단: 억울하게 죽어간 백성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대부분 읍치의 북쪽에 위치

  ► 성황단: 고을을 지켜주는 신에게 제사지내는 장소로 읍치의 진산[30]에 위치한 경우가

많으나,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31)]

- 1481년(성종12년)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에는 이미 모든 지방 읍치에 향교(문묘)와 단유 제사시설인 사직단, 여단, 성황단(혹은 성황사)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음.
- 사직단과 문묘는 왕을 대신하여 지방을 통치하는 지방관의 정치적 위엄을 보이는 제사였으며, 여단과 성황단은 그동안 민간에서 행해지던 것을 관에서 흡수하여 행하였음.



자료: 전영옥(1991), 조선시대 관영원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32

[그림 2-16] 조선시대 읍치의 공간구성 모식도

- **고려시대부터 국가제사였던 성황제사를 조선시대에도 이어받음.[32)]**
  - '성(城)'은 성벽을, '황(隍)'은 성곽을 둘러싼 해자를 뜻하여 성곽 또는 읍치, 도시를 의미하므로 성황신앙이란 성곽의 수호신을 의미함.
  - 고려시대 성황(城隍)신앙은 사묘나 신당이 있는 것으로 국가제사로 지냈으며, 조선시대에는 고을수령들이 관장하는 지방제사로 지냈던 것으로, 돌무더기 형태로 주로 여행의 안전을 기원하던 서낭과는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30)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는 모든 고을의 산천조에 반드시 그 읍치 진산(鎭山)을 명기하고 있음. 진산이란 풍수사상의 용어라기보다 일반적 의미로 그 마을을 진호·표상하는 상징성을 내포한 것으로서 멀리서도 그 읍치를 대표할 수 있는 장엄한 산으로 이루어짐.
전영옥(1991), "조선시대 관영원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8.

31) 최종석(2008), " 조선시기 성황사 입지를 둘러싼 양상과 그 배경," 한국사 연구 통권 143호, pp.146~147.

32) 김철웅(2001), "고려시대 「雜祀」 연구-초제(醮祭), 산천·성황제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56~183

- 성황신앙은 중국에서 6세기 무렵 시작되어 송대에 이르러 국가 차원에서 제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우리나라는 고려시대에 들어왔던 것으로 추정됨.
- 고려초기 이후 널리 퍼져있던 성황신은 군현의 수호신으로 국가적 제사를 지냈으나, 여말선초에 산악신앙과 결합하였다가[33], 조선중기 이후 읍치 성황제로 국가적 제사는 아니었으나, 지방관리들이 지내는 제사로 다시 독립된 지위를 확보해 나감.
- 조선후기 지방관리들이 유교제례로 수행하던 읍치 성황제는 거의 사라지고 마을 성황제로 남게 되었음.

● **정조시대 이전 수원도호부의 성황사(城隍祠)[34]가 성황산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35]**

- 사도세자 능원을 옮기기 전에 작성된 지리지에는 성황사(城隍祠)가 부 동쪽 5리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 구읍치의 동쪽에 위치한 성황산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
- 사도세자의 능원을 옮기고 새 읍치를 조성한 해인 1789년에 사직단과 문묘는 이전하고 성황사와 여단은 터만 정하였다가 1791년에 옮긴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36]
- 수원도호부에는 성황단(城隍壇)이 아니라 성황사(城隍祠)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제사건축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표 2-5] 수원도호부의 3단1묘

구분	사직단	문묘	성황사*	여단
신증동국여지승람(15세기)	부 서쪽	부 동쪽 3리	부 동쪽 5리	부 북쪽
수원부읍지(1788년경)	부 서쪽 5리	부 남쪽 2리	부 동쪽 5리	부 북쪽 5리
수원군읍지(1899년) *수원화성축조이후 기록	1789년 팔달산 서쪽기슭으로 이전	1789년 팔달산 남쪽으로 옮김	1791년 부의 북쪽 3리 지점으로 옮김 규모 3칸	1791년 옮김

* 수원군 관련 읍지에서는 성황사로 기록되어 있음

33) 김철웅(2001)의 전게논문에 따르면 공민왕때 명으로부터 전해진 홍무예제(洪武禮制)를 수용하면서 산천신과 성황신을 같이 배향하게 됨에 따라 우리 고유의 산악신앙과 성황신앙이 혼합된 것으로 보고있음

34) 수원군 관련 읍지에서는 성황단이 아니라 성황사로 기록되어 있음.

35) 화성시사편찬위원회(2005.12), 화성시사 Ⅰ, 충・효・예의 고장(乾), p194, p.276.

36) 水原郡邑誌(1899), 李範善 編, 藏書閣所藏 木版本, 壇廟條, 祠院條

[그림 2-17] 영조년간 제작된 광여도(廣輿圖)

[그림 2-18] 현재 성황산에 위치한 당산목

4) 종합

- **황계동 역사문화자원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역사적 사실들을 범주화시킴으로써 높은 가치의 문화콘텐츠로 활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정조 이전, 정조년간, 정조이후~대한제국, 일제 강점기, 현대로 나누어 역사적 사료들을 조사 및 범주화시킨 결과 대표 문화콘텐츠를 발굴함.
- **발굴된 황계동의 역사문화콘텐츠**

① 황계동은 대황교를 건너 시작되는 능원의 일부였다.

- 대황교를 건너오는 능행차길에서 능원의 초입에 해당하는 곳으로 소나무, 오얏나무, 밤나무, 잡목 등을 식목함.

② 황계동은 정조의 가족과도 같은 백성들이 살던 곳으로 위민정책의 표본이었다.

- 원래 화소구역안에 백성들이 살 수 없었지만 현륭원일대에는 특별이 능지기(원속)들이 살 수 있도록 한 위민정책의 산실

③ 황계동은 정조대왕의 능행차 후 돌아갈 때 말을 타고 성황산에 올라 주변을 둘러보고 내려오다 임시막사에서 신하들과 식사를 하던 곳이었다.

- 정조대왕의 능행차시 돌아갈 때에는 어김없이 말을 타고 성황산에 올라 간심(看審)하였으며, 내려오다 임시막사를 치고 신하들과 식사를 한 뒤 대황교를 거쳐 화성행궁으로 돌아감.

④ 황계동은 정조대왕의 국장행렬이 지나가던 곳이었다.

- 1800년 1월 정조대왕의 마지막 능행차인 13차 능행 이후 갑작스러운 붕어소식과 함께 같은 해 11월 황계동 백성들은 정조대왕의 국장행렬을 맞이하게 됨.

⑤ 황계동은 화소구역내 전답의 경작권을 받아 능원을 지키던 원속(수호군 등) 들의 가족들이 의지하며 살던 마을이다.

- 화소구역내 전답의 경작권을 능원을 관리하기 위한 원속들에게 나누어줌으로써 황계동 일대에도 원속들과 그의 가족들로 구성된 마을이 유지됨.
- 조선시대 당시 능지기 마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마을임.

⑥ 황계동은 성황산에 있던 성황사가 위치한 곳으로 1789년 이전에는 수원도호부의 문화중심지로서 읍치제사인 성황제가 열리던 곳이었다.

- 사도세자의 능원 이전전까지 수원도호부의 읍치로서 성황산에 위치한 성황사에서 읍치제사를 지내던 문화중심지

[표 2-6] 역사적 사실의 범주화

구분		범주화의 주요내용
정조	화소구간 (능원)	• 사도세자 능원의 산불을 막기 위하여 정한 화소(火巢)구간에 황계동 이 포함되며, 황계동은 대황교를 지나오는 능행차길에서 능원의 시작점의 역할을 함. • 능원에는 소나무를 많이 심었으며, 대황교 주변에 오얏나무, 밤나무, 잡목 등을 식목함.
	위민정책	• 정조는 화산 및 성황산 일대에 살던 주민들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고 위민정책을 펼침.
	능행차	• 정조대왕이 배봉산에서 화산으로 능침을 옮긴 뒤 1789년~1800년까지 제사를 모시고 돌아갈 때에는 북문으로 나가 능원일대를 둘러보기 위하여 말을 타고 용주사 앞길을 거쳐 성황산에 올랐다가 임시막사에서 신하들과 식사를 한 뒤 대황교를 거쳐 행궁으로 돌아가는 노정을 행하였고 그 가운데 황계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국장	• 1800년 6월 정조 붕어 이후 11월 발인하여 건릉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대황교를 거쳐 황계동을 지나가야 했음. • 정조의 국장에 관한 기록은 그의 신하들이 작성한 정조국장도감의궤에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음.
능지기(수호군)		• 원래 화소구역 안에는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조의 명으로 현륭원 화소구역내의 백성들은 필로를 제외하고는 철거하지 말라는 명을 내림. • 현륭원이 조성되면서 능직과 관련된 많은 수의 원속(園屬)들이 필요하였음. • 특히 화소구역 내 전답의 경작권을 능원을 관리하기 위한 원속(園屬)들에게 나누어줌으로써 황계동 일대에도 원속들과 그의 가족들로 구성된 마을이 유지됨.
성황산(성황사)		• 성황산과 황계동 일원은 현륭원 이전의 수원도호부의 읍치로서 조선시대 화성지역의 2개 문화중심 중의 하나 • 황계동은 고을 수호신을 위한 성황제사를 지내던 성황산이 있는 마을

- **발굴된 대표 문화콘텐츠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2-7] 발굴된 문화콘텐츠의 활용가능성

구분		전시	교육 및 체험	축제 및 행사	예술창작	주민 문화활동	문화적 공간조성
정조	화소구간(능원)	○	○				○
	위민정책	○	○				
	능행차	○	○	○			○
	국장	○	○	○			
능지기(수호군)		○	○	○	○	○	
성황산(성황사)		○	○	○			○

① 전시

- **황계동 마을박물관에 발굴된 대표 문화콘텐츠들을 전시하여 지역주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교육자료로 활용 하는 것이 가능함.**
  - 6가지 대표 콘텐츠는 확실한 사료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박물관 등에 전시와 교육이 가능함.
  - 발굴된 내용을 시각화 하여 전시에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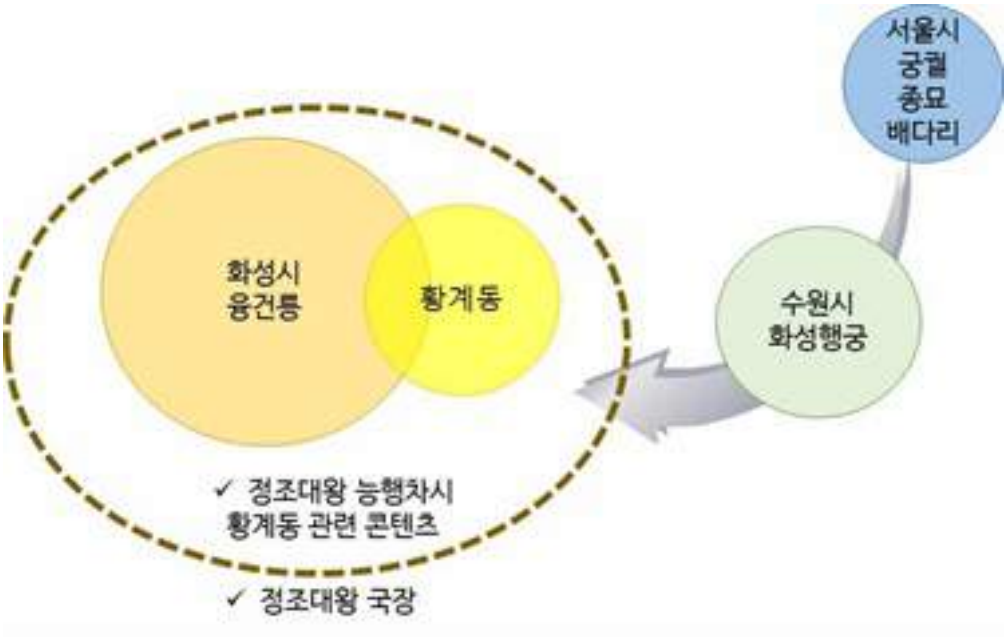
② 교육 및 체험

- **황계동의 대표 문화콘텐츠는 모두 마을주민 및 화성시 지역 내 일반인은 물론 학생들을 대상으로한 교육자료나 체험프로그램으로 훌륭히 활용될 수 있음.**
  - 황계동 주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자료로 활용가능함.
  -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조선왕릉과 국장절차 등에 대한 교육은 물론 효와 위민정책으로 대표할 수 있는 정조대왕의 가르침을 콘텐츠로 활용가능함.
  -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학생들과 가족단위 방문객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음.

③ 축제 및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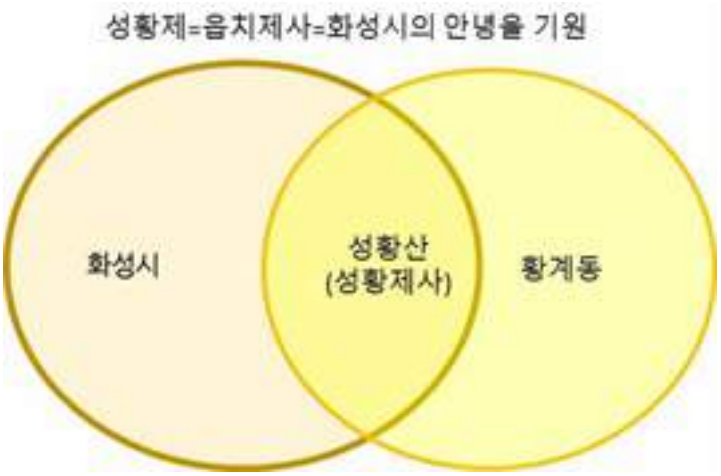
- **황계동에서 새롭게 할 수 있는 행사로 능행차시 황계동을 들렸던 정조대왕과 국장이 있음.**
  - 정조대왕의 능행차 재현행사의 경우, 화성시의 재현구간도 짧고 서울의 배다리, 수원의 화성행궁만큼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어려움.
  - 따라서 정조대왕 능행차 후 돌아가는 길에 성황산을 들려 황계동에서 식사를 하던 인간다운 면모를 부각시킨 행사가 중요함.
  - 또한 융건릉이 위치한 화성시와 황계동으로서는 정조대왕의 국장행사가 큰 의미를 가

지고 있으며, 1795년 원행을묘정리의궤만큼 정조국장도감의궤의 자료도 풍부함.



[그림 2-19] 황계동에서의 정조와 관련된 축제 및 행사의 의미

- **황계동의 선조들이 해왔던 능지기(수호군)들의 이야기를 축제로 승화시키는 것도 가능함.**
  - 능지기들의 이야기를 연극화하여 지역연극인들이 공연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2019년(1회)에 진행하였던 정조대왕 성황제를 확대하여 화성시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함.**
  - 읍치제사였던 성황제사와 공간을 재현하여 매년 성황제(2020년 2회부터는 성황대제로 명칭 변경)를 황계동에서 개최함.



[그림 2-20] 성황제사의 의미

④ 예술창작

- **스토리텔링을 통해 황계동에 살던 선조들의 이야기를 창작하는 것이 가능함.**
  -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았으나, 남아있는 사료들을 바탕으로 황계동의 능지기(수호군 등)들의 이야기를 창작하는 것이 가능함.
  - 정조대왕이 사도세자의 묘를 현륭원을 이장한 뒤, 능지기(수호군 등)들을 화소구역 내 살게 하면서 펼쳤던 위민정책과 이들이 매일 한결 같이 능원을 순찰하며 능을 지키던 일 등은 지금도 귀감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임.
  - 1789년 능원이전부터 시작하여 1800년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정조대왕의 13번의 능행차가 있었으며, 능지기들이 정조의 마지막 능행차를 맞이한 1800년 1월 이후, 6월의 정조대왕의 붕어소식, 11월에 대황교를 건너 황계동에 도착한 정조대왕의 국장행렬은 극적인 요소가 충분함.
  - 순조 즉위 후 5년이 지난 후 순조가 아버지의 산소에 도달하였을 때 모습, 조선말 능참봉과의 갈등 등도 포함 가능

[그림 2-21] 능지기(수호군) 관점에서 본 스토리텔링의 활용가능성

⑤ 주민문화활동

- **황계동 주민들을 위한 마을 이야기, 새로운 입주민들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을역사 소개 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가능

-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등에서 마을주민들이 마을의 역사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수 있음.

- **능지기 관점에서 본 스토리텔링을 통해 만들어진 연극적 요소를 주민들이 공유하는 프로그램도 가능함.**

- 스토리텔링을 통해 만들어진 이야기를 바탕으로 플레이백 시어터(playback theatre)기법 등을 통해 문화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수 있음.
- 플레이백 시어터(playback theatre): 대본 중심, 배우 중심의 연극에서 탈피해, 정해진 대본 없이 관객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관객과 배우가 즉흥적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연극을 의미함.

⑥ 문화적 공간조성

-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인 황계동에 공간을 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것도 가능함.**

- 발굴된 문화콘텐츠를 활용하게 될 실내공간 뿐 아니라 오픈스페이스 등을 가꾸어 나감.
- 황계동 일대에 많이 심었다는 소나무, 오얏나무, 밤나무 등을 식재
- 능행차시 정조대왕이 들렸던 곳들이나 성황사를 복원하는 것도 가능함.

2. 신규도입자원 개발

1) 기본방향

- **황계동의 역사문화자원 활용방안에서 부족한 부분인 예술창작이나 주민문화활동에 대한 신규 콘텐츠 발굴**
  - 전시, 교육 및 체험, 축제 및 행사를 위해 활용가능한 역사문화콘텐츠는 풍부하나 예술창작이나 주민 문화활동을 위한 콘텐츠는 부족하여 이에 대한 신규발굴이 필요함.
- **활용방법별로 국내외 운영사례를 검토하여 황계동 주민들에게 적합한 신규 도입 문화자원을 개발함.**
  - 전시, 교육 및 체험, 축제 및 행사, 예술창작, 주민문화활동으로 구분하여 국내외 운영사례를 검토
  - 전시, 교육 및 체험, 축제 및 행사, 문화적 공간조성 활용분야는 황계동의 역사문화적 가치에 맞춰 보완 가능하도록 함.
  - 예술창작 및 주민문화활동 분야는 새롭게 도입가능한 문화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발굴

[표 2-8] 콘텐츠 운영사례 검토

구분	콘텐츠 운영사례
전시	미추홀구 마을박물관
교육 및 체험	다자와코 예술촌, 벤자민 프랭클린과 함께 하는 아침식사
축제 및 행사	프로뱅 중세 페스티벌
예술창작	민들레 연극마을, 대구문화재단 가창창작스튜디오, Happy Wall, 포르투 플렉서블 디자인
주민문화활동	송정그림책마을 찻집, 런던 페캄 도서관

2) 운영사례

가. 전시

미추홀구 마을박물관

① 정보

- 위치: 인천 광역시 미추홀구

② 요약

- 미추홀구 마을박물관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토지금고, 쑥골, 독정이 마을박물관 3곳으로 구성되어 있음. 마을 큐레이터가 상주하면서 해당 마을의 역사와 생활상을 소개하는 소규모 전시공간으로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고 있음.

출처 :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750

[그림 2-22] 미추홀구에 위치한 토지금고 마을박물관 입구

③ 주체

- 기획은 인천광역시립 박물관과 미추홀구(당시 남구)가 공동 진행하였고, 건립 이후 운영은 지역주민이 맡고 있음.

미추홀구 마을박물관 건립이 추진된 배경
– 미추홀구 마을박물관은 인천광역시립 박물관과 미추홀구(당시 남구)가 함께 진행한 2015년 '인문도시 지원 사업'으로 시작됨. – 이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의 대학이 역사, 인물, 유적 등 지역의 인문자산을 공동으로 발굴해 이를 강좌와 체험, 축제 등을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 이러한 취지에 따라 미추홀구의 마을 박물관은 미추홀구에서 부지(45㎡ 이상)를 제공하고, 인천광역시립 박물관이 박물관 설치 운영 시스템, 큐레이터 교육을 지원해 재탄생하게 됨.

④ 내용

- **미추홀구 마을박물관은 총 3곳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15년 제1호 토지금고 마을 박물관을 시작으로, 2016년 제2호 쑥골 마을 박물관, 2017년 제3호 독정이 마을 박물관이 차례로 개관함.

토지금고 마을박물관 전시

쑥골 마을박물관 전시

독정이 마을박물관 전시

출처 :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750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02212432191178
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5673

[그림 2-23] 미추홀구 마을박물관의 전시내용

- **토지금고 마을박물관**
  - 2019년 용현2동 LH미추홀3단지로 이전한 토지금고 마을박물관은 건립 당시 용현동 용정 근린공원에 자리했음.
  - 토지금고는 용현2·5동 지역을 일컫는 말로, 원래 갯벌이었던 마을은 1970년 후반부터 매립을 통해 대규모 택지로 개발된 역사를 지님.
  - 박물관에서는 토지금고라는 지명 유래, 개발과정에서의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자료 및 영상 매체를 전시함.
- **쑥골 마을박물관**
  - 미추홀구 도화동에 위치한 쑥골 마을박물관은 2016년 개관한 박물관으로, 쑥골은 도화 2·3동의 옛 이름을 뜻함.
  - 구도심에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상설 전시실과 기획 전시실뿐만 아니라, 교육 및 휴식 공간을 조성해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음.
  - 개관 기념 특별전 '쑥골 이야기' 이후, 주민들의 사진앨범을 통해 도화동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도화동의 과거와 현재' 등을 전시해 마을의 역사와 생활상을 보여줌.
- **독정이 마을박물관**

- 용현1·4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자리한 독정이 마을박물관은 상설 전시실과 특별 전시실로 구성돼 있음.
- 상설 전시관에서는 '독정이'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인근 초등학교, 시장, 경인 고속도로, 인하대 등 용현 1·4동에 얽힌 자료가 전시되어 있음.
- 개관 기념 특별전에는 인근 주민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박물관 교육의 결과물을 선보였고, 이후 '독정이 마을 사람들'을 주제로 주민이 직접 특별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함.
- 마을 박물관은 주민이 자원 활동가로 나서서 박물관 운영을 주도하는 사업임. 활동가는 마을 큐레이터로서 마을의 지명 유래 및 역사, 생활상을 보여줄 수 있는 전시 기획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미추홀구는 자원활동가를 모집해 인문학, 전시디자인, 관리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 마을 큐레이터를 양성함. 개관 후 1년은 마을 큐레이터와 인천광역시립 박물관이 공동으로 운영하지만, 전시 방법 등 큐레이팅을 전수한 이후에는 박물관 운영을 전적으로 주민에게 맡기도록 함.

⑤ 시사점

- **마을박물관을 조성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마을큐레이터 양성**
  - 마을박물관은 미추홀구 관내 마을의 역사와 생활상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 의식을 높여줄 수 있는 계기로 인식됨.
  - 때문에 광주시 남구, 제주도 서부권 등 타 시도에서도 미추홀구의 마을박물관을 벤치마킹하고자 함.
  - 자원 활동가로서의 의지를 지닌 마을 주민을 모집해 박물관 큐레이터로 양성함.
  -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마을에 애착과 자긍심을 가지게 되면서,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주체성을 길러줌.

나. 교육 및 체험

다자와코 예술촌(田澤湖芸術村)

① 정보

- 위치 : 일본 아키타현의 센보쿠시에 위치

② 요약

- 다자와코 예술촌은 전통예술을 춤과 노래로 표현하는 와라비 극단을 중심(거점)으로 민족예술 연구소, 온천호텔 유포포, 다자와코 맥주 브루어리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단지임.
- 지역의 전통예술과 자원을 토대로 콘텐츠와 공간을 늘려나가면서, 지역과의 공생을 추구함.

출처 : https://www.warabi.or.jp

[그림2-24] 다자와코 예술촌 세부도

③ 주체

- 초기 기획의 주체는 와라비 극단이지만, 현재 기획과 운영은 지역주민에 의해 이뤄지고 있음.
  - 이주 초기에는 예술가가 기획의 주체였으나 현재 예술촌의 직원은 약 400명(정규직 250명)으로 모두 지역 주민으로 채용되기 때문에,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에

의해 이뤄진다고 볼 수 있음.

- **예술촌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와라비 전용극장과 민속예술연구소**
  - 와라비 전용극장은 극장과 전국 순회공연으로 1년에 1,000회가 넘는 공연을 하면서 일본 내 관객동원 수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 있음.
  - 지역색이 뚜렷한 공연덕분인데, 민족예술연구소의 역할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임.
  - 민족예술연구소는 아키타 지역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에 내려오는 민요와 무용을 수집, 연구, 보관하는 연구소로서 약 60년 전부터 체계를 갖추며 와리비 극단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음.

와라비 극단(わらび座)
- 와라비 극단은 일본의 전통 예술을 공연하는 민족 가무극단으로 순수한 창작극으로 지역의 민요와 이야기로 스토리를 만들고, 전통무용과 음악으로 무대를 채우는 공연을 선보임. - 이는 고사리 즉 농민을 뜻하는 '와라비'라는 극단의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음. - 1951년 도쿄에서 출범해, 1953년 일본 민요와 무용의 보물창고라는 센보쿠시의 다자와코 호수 인근으로 이주함. - 이후 교외 농가의 버려진 창고를 극장으로 개관하고, 농민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그 지방 고유의 민요와 춤을 배워 이를 토대로 작품을 만들어 공연하기 시작함.

④ 주요 내용

- **아키타현으로 이주해온 와라비 극단의 활동으로, 다자와코 예술촌 형성**
  - 예술촌은 와라비 극장 2개(700석, 100석), 민족예술연구소, 대규모 숙박시설(350명), 온천호텔 유포포, 다자와코 맥주 브루어리, 모리바야시 공예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와라비 극단 수학여행 프로그램**
  - 1976년부터 시작된 '와라비 극단 수학여행 프로그램'은 연극과 농촌 체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규모 단위로 유치하고 있음.
  - 인근 농가 300여 곳의 협조를 얻어 농사 체험도 하고 연극도 보고, '소란부시'라는 일본의 민요 또는 민속춤을 배우면서 협동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게 함.
  - 이와 함께 짚신짜기, 도깨비가면 만들기 등 전통체험과 배우가 진행하는 무용, 연극 등 전통예술 워크숍이 진행됨.

와라비 극단 수학여행 프로그램

전통 체험 프로그램

출처 : http://www.arko.or.kr/home2005/bodo/sub/forest.jsp?idx=199&pidx=193
https://www.warabi.or.jp

[그림 2-25] 지역 전통문화와 연계된 체험 프로그램

- **지역주민들을 위한 대중탕으로 지역호텔로 탈바꿈**

  - 약 30년의 역사를 지닌 온천호텔 유포포는 원래 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중탕이었음.
  - 목욕을 하러 온 주민들이 온천 옆의 극장 공연을 관람하면서 객실이 갖춰지게 되고, 이 때부터 온천 호텔로 알려지기 시작함.

전통예술 기반을 기반으로 하는 창작극

출처 : https://www.warabi.jp/haruranran/photogalleries.html
http://pub.chosun.com/client/news/print.asp?cate=C03&mcate=m1005&nNewsNumb=20141115973

[그림 2-26] 와라비 전용 극장에서 진행되는 공연

- **다자와코 수제 맥주**

  - 지역의 깨끗하고 풍부한 수자원을 이용하는 로컬 맥주임.
  - 8년 연속 국제 금상을 수상하며, 비행기의 기내석 맥주로 납품이 정도로 인기가 높음.

⑤ 시사점

- **자생적으로 오랜시간에 걸쳐 발전해온 마을사업**
  - 1950년대 창고 극단에서, 점진적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늘려나가 1996년에 이르러서야 다자와코 예술촌으로 자리 잡게 됨.
  - 예술촌 내부의 연극, 온천, 맥주와 지역 향토 음식, 전통예술 체험 등의 콘텐츠가 서로 연결성을 지니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보여줌.
  - 민간 분야에서 자생적 발생했으며,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예술촌의 중심 공간인 와라비 전용극장(700석)의 경우 일본 전역에서 극단의 지지하는 개인과 단체의 기부로 지어졌는데, 극장 좌석의 뒤편에는 기부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 콘텐츠가 매력적이라는 전제 아래, 외부의 펀딩이나 기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판매소구점(selling point)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 직원을 주민으로 채용하는 등 지역 사회와의 공생을 추구하고 예술, 술 등 지역자원을 활용해 콘텐츠화하려는 모범 사례임.

벤자민 프랭클린과 함께하는 아침식사(Breakfast with Ben)

① 정보

- **위 치**
  - 미국 필라델피아의 인디펜던스 방문안내센터 (Independence Visit Center, Philadelphia)
- **현재는 진행하고 있지 않은 프로그램**

② 요약

- **벤자민 프랭클린과의 아침식사(Breakfast with Ben)는 역사 속 인물 벤자민 프랭클린을 직접 만나 대화하면서 아침을 먹고, 그의 묘지까지 방문해보는 체험 프로그램임.**
- **아동은 물론 성인까지 전 연령대가 인물의 삶과 시대적 배경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체험의 진정성도 느낄 수 있음.**

출처 : https://www.uwishunu.com/2007/11/breakfast-with-ben/

[그림 2-27] 참여객과 대화를 나누는 벤자민 프랭클린

③ 주체

- 기획과 운영의 주체는 필라델피아의 인디펜던스 방문안내센터 법인(Independence Visit Center corporation)임.

벤자민 프랭클린(1706~1790)과 필라델피아
- 벤자민 프랭크린은 미국의 정치가, 계몽사상가, 과학자로 미국 건국의 아버지(Founding Father) 중 한 명임. - 필라델피아에서 인쇄공으로 일하며 큰 부을 이뤄냈고, <가난한 리처드의 달력>이라는 처세술에 관한 책을 출간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으며, 피뢰침, 다초점 렌즈등을 발명하기도 함. - 미국독립선언문과 미국독립헌법의 기초를 만든 사람 중 한 명으로, 10달러짜리 지폐 속 초상화 인물로도 유명함. - 필라델피아는 미국의 역사문화도시로 유명하며, 영국으로부터 미국독립선언문이 발표된 장소임. - 벤자민 프랭클린이 인생의 많은 시간을 필라델피아에서 보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에는 그와 관련된 박물관, 생가, 광장, 다리, 무덤 등 많은 역사문화유산이 남아 있음.

④ 주요 내용

- 필라델피아의 인디펜던스 방문안내센터(Independence Visit Center)에서는 매주 토요일에 벤자민 프랭클린과 아침식사를 할 수 있는 'Breakfast with Ben' 프로그램을 운영함.

- 약 1시간 반 동안 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서, 그의 삶과 일, 사상에 대해 질문하고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됨.
- 식사가 끝나면 벤의 안내를 따라 인근의 그리스도 교회 묘지(Christ Church Burial Ground)까지 도보로 이동해 벤자민 프랭클린의 실제 묘를 방문함.
- 유료로 운영되며, 성인과 아동 요금(각 $25, $15, 2007년 기준)을 구분해서 적용함.

벤자민 프랭클린의 실제 묘

벤자민 프랭클린 캐릭터

출처 : http://speakingofhistory.blogspot.com/2007/07/breakfast-with-ben-and-christ-church.html

[그림 2-28] 구성 프로그램

⑤ 시사점

● 지역맥락을 가진 인물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우수함.

- 벤자민 프랭클린과의 아침식사(Breakfast with Ben)는 과거 어느 특정 시간대 벤의 아침 식사에 초대된 듯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인물과 그의 삶 그리고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구성됨.
- 지역에 숨겨진 캐릭터 및 그 특징을 발굴하고, 이를 방문객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에 좋은 참고 사례임.
- 식사가 끝나면 현장 캐릭터 벤과 함께 묘지로 이동해 실제 벤의 묘를 방문해봄으로써, 체험의 진정성을 높임.

다. 축제 및 행사

프로뱅 중세 페스티벌(Provins Medieval Festival)

① 정보

- 위치 : 프랑스 프로뱅(Provins) 마을

② 요약

- 프로뱅 중세 축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마을을 무대로, 중세 시대의 연례 무역시장 '샴페인 페어'를 재현하는 축제임.
- 자발적으로 중세 분장을 한 마을 주민과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어울림으로써, 축제를 활력 있게 만듦.

출처 : https://provins-medieval.com

[그림 2-29] '샴페인 페어'를 재현한 프로뱅 축제

③ 주체

- 기획과 운영의 주체는 프로뱅 마을 주민임.

프로뱅 마을
- 파리에서 동남쪽으로 80km 떨어진 프로뱅 마을(자동차로 1시간 거리)은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이 지역에서 강력한 권력을 누리던 샹파뉴(Champagne) 백작의 옛 영토에 속해 있던 무역 도시였음. 북유럽과 지중해를 연결하는 연례 무역 시장이 열리던 거점도시 중 하나로, 언덕 위에 위치하고 요새 벽으로 강화된 도시 구조를 지님. - 당시 프로뱅에는 요새, 성당, 창고, 주택 등 중세 시대 건축물이 다수 지어졌으며, 지금까지도 잘 보존되어 있어 2001년 마을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됨.

④ 내용

- **역사를 재현한 축제**

  -12세기~13세기 요새 도시인 프로뱅에서 열리던 연례 무역시장 '샴페인 페어(Champagne Fairs)'를 역사적으로 재현한 축제임.

  - 매년 6월 중순 경에 2일 동안 진행되며, 중세 시대의 성벽, 주택, 광장, 성당 등 마을 실내외 곳곳을 축제의 무대로 활용함.

  - 마을 주민들이 1984년부터 매년 자발적으로 중세 시대 노예와 상인, 귀족 분장을 하고 행사에 참여하고 있음.

  - 주민뿐만 아니라 방문객도 중세 시대 분장을 하고 축제에 참여 가능하며, 분장을 하지 않고도 참여할 수 있음.

  - 마을 현장에서도 의상을 구매해 착용할 수도 있음.

  - 코스튬은 참가자의 의도대로 어떤 복장으로도 참여 가능함.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공주와 왕자, 기사단, 로빈후드, 야만인 가족 등 다양한 인물이 축제에 등장할 수 있음.

- **축제 프로그램**

  - 중세 콘서트, 무도회, 연회, 코스튬 퍼레이드 등으로 구성된 이벤트에는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복장 유무에 상관없이 참여하고 교류하면서 축제를 모두의 것으로 만듦.

  - 특히 참가가 500여명이 모여 마을 한 바퀴를 행진하는 코스튬 퍼레이드는 이벤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음.

  - 거리 엔터테인먼트는 중세 프로뱅 마을의 일상을 경험할 수 있는 오락 요소로 이뤄짐.

  - 원반치기, 목검놀이 등의 중세 시대 게임은 어린이는 물론 어른도 즐기기에 적합함.

  - 마을 장터에서는 가죽, 직물, 모피, 향신료, 예술품 등의 무역품이 교역되며, 중세 시대의 간식, 샌드위치 등 먹거리도 판매함.

  - 또한 전국의 음악가, 광대, 곡예사가 모여 들어 거리 곳곳에서 자유롭게 공연을 펼침.

  - 입장료는 1일 이용권과 2일 이용권(각12€, 16€, 2019년 기준)으로 구분함. 중세 코스튬으로 입장할 경우 약 50% 할인된 금액(1일 이용권 6€, 2일 이용권 7€)으로 이용 가능한데, 이 혜택은 온라인으로 예약할 경우만 적용됨. 또한 12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음.

  - 축제 기간 동안 기차역과 마을 간 셔틀 버스를 운영해, 방문객이 중세 복장을 하고도 쉽고 편리하게 마을로 이동할 수 있게 함.

코스튬 퍼레이드

거리 엔터테인먼트

중세 음식

출처 : https://provins-medieval.com

[그림 2-30] 프로뱅 축제 프로그램 소개

⑤ 시사점

- **프랑스에서 중세로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는 축제**

  - 프로뱅 중세 축제는 프랑스에서 중세로의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는 최고의 축제로, 추억을 만들려는 친구, 가족 단위 체험객에게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임.
  - 오늘날 연간 1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유럽 최대 축제 중 하나로 성장함.
  - 마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중세 분장을 하고 축제에 참여함으로써 마을의 역사와 전통, 그 안의 숨은 이야기를 스스로 지켜나가고 있음.
  - 중세 의상을 입은 마을 주민과 방문객이 모두 행사에 참여하고 즐기면서 축제를 모두의 축제로 만들어 나가는 좋은 사례임.
  - 역사적 재현을 하면서도, 의상에 관해서는 재현의 고증에 집착하지 않고 참여자의 상상력과 의도를 존중함.
  - 이는 다양한 중세 인물을 현장에 등장시킬 수 있는 장치로, 마을 주민의 분장 참여로만 이뤄졌을 때보다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음.
  - 작은 마을 단위에서 역사적 재현을 바탕으로 한 축제를 기획할 때, SNS 게시물에 열광하는 젊은층을 끌어당기는 요소로 코스튬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라. 예술창작

민들레 연극마을

① 정보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이화뱅곳길 22

② 요약

- 주축인 극단 만들레가 농촌 지역의 맥락(context)을 활용해 공연과 체험, 축제를 만들어 마을 주민의 소통과 화합을 이루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모델을 창출함.
- 2007년 농림부 선정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어촌 휴양마을

출처 :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4105

[그림 2-31] 공연 및 체험 중심으로 구성된 민들레 연극 마을

③ 주체

- 기획의 주체는 극단 민들레이며, 운영은 극단 민들레와 마을 주민이 함께 하고 있음.

극단 민들레
- 극단 민들레는 1996년 창단 이래, 어린이극을 중심으로 전통연희극을 새롭게 실험하면서 예술 교육을 실행하고 공연 문화운동을 홍보하는 향토 극단임. - 극단과 연구소를 함께 운영하던 극단 민들레는 아이들이 자연과 호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화성에 민들레 연극마을을 조성함.

④ 내용

- **녹색농촌체험마을**

  - 민들레 연극마을은 극단 민들레, 민들레놀이연구소, 이화리 마을이 연계해 출범했으며, 2007년 우리나라 최초로 연극을 주제로 하는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됨.
  - 전용극장과 야외극장, 숙식이 가능한 숙박시설 등을 보유함. 전용극장은 사랑채 극장(100석)과 별극장(200석)으로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마을 곳곳에 야외극장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마을 전체가 연극의 무대라 할 수 있음.
  - 농촌문화를 체험하고, 이를 토대로 연극놀이를 해볼 수 있는 색다른 체험 및 교육 공간으로서 어린이,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인기가 높음.

농촌 문화를 토대로 한 연극

체험 프로그램

야외극장

출처 : http://www.mdl.or.kr

[그림 2-32] 민들레 마을에서 진행되는 공연과 체험 내용

- **체험은 일반적인 농촌체험 프로그램과 특별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분됨**

  - 일반 프로그램에는 모내기, 품앗이 등 사계절에 맞는 농사 체험과 천연 염색, 박 공예 등 공예 체험 그리고 풍물놀이 등 전통 놀이문화 체험이 해당됨.
  - 특별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신화, 설화 스토리텔링을 통해 떡을 만들어 보는 '신화놀이'가 대표적임. 이밖에 굴렁쇠를 굴리며 마을 곳곳의 이야기를 직접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을 지도를 그려보는 '이야기 산책로' 체험 등이 있음.

- **숙박프로그램 운영**

  - 가족단위 캠프, 수학여행 캠프 프로그램(1박2일/2박3일)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용은 연극마을 내 체험프로그램 중에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함.

- **농촌체험과 공연예술을 접목해 계절 축제를 개최함.**

  - 봄의 심기 축제는 씨앗을 심으며, 수확을 기원하는 노동제공형 축제임. 일하는 중간에 예술가들이 즉흥 연주나 즉흥 춤을 곁들여 예술가들은 새로운 예술을 실험하고, 일반인과 주민은 노동 속에서 문화를 경험할 수 있음.
  - 여름 품앗이 축제는 농촌에서 열리는 순수공연예술축제로서, 다른 시기의 계절 축제보

다 공연예술을 중심으로 구성됨.

- 마을 곳곳의 자연 환경을 그대로 이용한 장소 특징적 무대를 연출, 아침부터 밤까지 퀄리티 높은 국내외 공연예술을 펼침.
- 가을걷이 축제에서는 수확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고, 농산물을 판매함.
- 함께 수확한 곡물로 밥 짓기, 박을 타는 흥부 이야기 등 전래동화를 토대로 만든 거리 공연,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든 '주민 연극'을 선보임.

봄 심기 축제

여름 품앗이 공연예술축제

가을 걷이 축제

출처 : http://www.mdl.or.kr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4105

[그림 2-33] 민들레 마을의 계절별 축제

⑤ 시사점

- **농촌지역의 맥락에 맞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연극을 만들고 주민과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냄.**
  - 민들레 연극마을은 화성지역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대도시 방문객을 끌어들임. 화성은 서울, 수원, 안산 등 주변 대도시에서 1시간 내로 도달할 수 있는 지역으로 어린이, 가족 단위 체험객들의 방문 또는 재방문을 유도하기 유리한 거리 내 위치함.
  - 전용극장 외에도 마을의 자연환경을 야외무대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전통 이야기를 소재로 연극을 만듦으로써 지역의 자연적, 사회·문화적 맥락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축제를 통해 지역 주민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냄. 지역주민이 만드는 축제로서 관주도의 큰 규모가 아닌, 작은 단위로 조직함. 때문에 축제를 준비하면서 주민들이 서로 교류하고, 부담 없이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고, 축제 기간 동안에도 지역주민 역시 방문객과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게 됨.
  - 농촌 체험과 공연을 통해 방문객은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예술적 상상력을 높일 수 있으며, 지역주민 역시 문화 향유의 기회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수입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음.

대구문화재단 가창창작스튜디오

① 정보

- 위　치 : 대구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57길 46

② 요약

- 2007년에 개관한 가창창작 스튜디오는 '예술가와 시민 누구나 좋아하는 창작공간'이라는 모토로 운영 중

출처:https://www.theartro.kr

[그림 2-34] 가창창작스튜디오 전경

③ 주체

- 대구문화재단

④ 내　용

- 예술가 지원프로그램 운영
  - 창작지원금을 수여하고 문화예술투어를 진행
- 1박2일 가창창작캠프 운영
  - 다른 레지던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프로그램으로 타지역 레지던스 입주작가들을 초대해 1박2일간 캠프형태로 진행되는 교류프로그램 운영 중
  - 영·호남권 6개 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한 작가 50여명을 초대하여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고 강연함.
-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운영
  - 가창아트맵 프로젝트, 삼산리 문화나눔의 날, 가창 미술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있음.

출처:http://www.gcartstudio.or.kr/

[그림 2-35] 가창아트맵 프로젝트(2019)

가창아트맵 프로젝트(2019)

- 활동기간: 2019년 4월 ~ 6월
- 참여작가: 김수호, 김정현, 서인혜, 최지이
- 활동장소: 가창창작스튜디오 및 가창 지역 일대
- 전시일정: 2019년 6월 4일(화) ~ 6월 14일(금) / 스페이스 가창
- 전시내용: 아트맵프로젝트 작품, 작가별 제작 아카이브
- 개막행사: 아트맵프로젝트 메이킹영상 상영회, ‘삼산리문화나눔의날’ 오픈행사
- 기획의도: 아트맵프로젝트는 가창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들이 가창의 자연환경과 역사를 연구하고, 지역주민과 교감하며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정보와 감성을 활용해 작품 활동을 하는 미술프로젝트임. 그와 동시에, 작품 활동에 영감을 준 장소와 작품이 설치된 장소를 지도에 표시해서 아트맵을 만드는 것이 프로젝트의 최종목표임. 가창창작스튜디오는 아트맵프로젝트를 통해 지역문화의 매개공간으로 자리 잡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⑤ 시사점

- **지역밀착형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임.**
  - 아트맵 프로젝트, 삼산리 문화나눔의 날 등 지역의 역사문화 맥락을 이해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작품활동을 하고 있음.

출처:http://www.gcartstudio.or.kr/

[그림 2-36] 가창아트맵 프로젝트(2018)

출처:대구문화재단 블로그

[그림 2-37] 가창아트맵 프로젝트 실외 전시(2018)

출처:대구문화재단 블로그

[그림 2-38] 가창아트맵 프로젝트 실내 전시(2018)

해피 월(Happy wall)

① 정보

- 위치 : 덴마크 코펜하겐

② 요약

- 해피 월은 참여객이 손으로 나무 타일을 넘기면서 원하는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인터렉티브형 공공예술로, 예술이라기보다 즐거운 놀이로 인식됨. 방문객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이끌어내며, 지역주민 간 또는 지역 주민과 방문객 간의 소통의 장치의 역할을 함.

코펜하겐 덴마크

출처 : https://thomasdambo.com/

[그림 2-39] 참여객이 완성하는 해피 월

③ 주체

- 덴마크 예술가 토마스 담보(Thomas Dambo)가 기획함.

해피 월(Happy Wall)의 작가
- 토마스 담보(Thomas Dambo)는 덴마크 코펜하겐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로, 쓰레기통에서 발견되는 재활용 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예술 프로젝트를 시도함.
- 이를 통해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창조적 영감을 주며 쓰레기를 자원으로 생각하게 만듦.

④ 내용

- 참여객과 함께하는 예술프로젝트

  - 해피월은 2014년 코펜하겐의 Kgs Nytorv 지하철 공사 현장 벽에 설치된 관객참여형 예술로, 나무 타일을 조작하면서 단어와 그림을 만들 수 있는 인터렉티브형 픽셀 구조물임.
  - 구조물은 약 100피트(30미터) 길이에 1,728개의 폴더형 나무 타일로 구성되어 있어, 방문객은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어떤 것이라도 만들어 볼 수 있음. 이를 위해 가장 높은 타일에 닿을 수 있도록 이동형 사다리도 마련함.
  - 코펜하겐에서 시작된 이래 미국, 캐나다, 칠레 등의 도심 광장, 쇼핑몰 등에 설치되면서 큰 인기를 얻음.
  - 덕분에 지역 페스티벌은 물론 디자인 위크, 올림픽 등과 같은 메가 이벤트에도 초청되면서 혁신적인 덴마크 예술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인식됨.
  - 자연스럽게 방문객의 시선을 끌기 때문에, 강력한 홍보나 프로모션을 추진하는 기업과의 콜라보레이션이 이어짐.
  - 2015년에는 쉑쉑(Shake Shack) 버거와 함께 미국 웨스트 할리우드(west Hollywood)에, 2017년에는 칠레 산티아고 몰 플라자 (Mall Plaza) 내에 설치되어 방문객의 큰 호응을 얻음.
  - 장소의 상황에 따라 사이즈를 줄여 축소판을 제작할 수 있음.
  - 2014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Life Is Beautiful 페스티벌, 2015년 덴마크의 로스킬데(Roskilde) 축제에서는 원래의 벽보다 작게 만들어짐.

해피월을 이루는 폴더형 나무 타일

자유로운 조작을 위해 배치한 이동형 사다리

출처 : http://www.christinabruunolsson.dk/2014/happy-wall-af-thomas-dambo/
http://www.guerrilla-innovation.com/archives/2014/08/000857.php

[그림 2-40] 해피 월의 구성

⑤ 시사점

- **축제나 행사시 시도해 볼 수 있는 관객 참여형 예술 프로젝트**
  - 예술이라기보다는 간단하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놀이로 인식됨. 참여자가 누구든 두 손으로 타일을 넘기면서 자신이 원하는 이름, 문구, 심지어 모양까지 만들 수 있음.
  - 도심 광장부터 공사장 외벽, 해변에 이르기까지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설치가능하며, 사이즈 또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님.
  - SNS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방문객을 끌어들어기 위한 효과적인 홍보수단이 될 수 있음. 실제로 해피월 코펜하겐은 2014년에 약 100만 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내, 6,500명 이상이 인스타그램에 작품을 올리면서, 다양한 뉴스 채널에 소개되는 홍보효과를 얻음.

포르투 플랙서블 디자인(Porto Flexible Design)

① 정보

- **위 치 : 포르투칼 포르투 지역**

② 요약

- **건축, 예술, 자연환경 등 다양성 그 자체를 정체성으로 바라보고, 이를 표현한 22개의 아이콘 타일임. 단독 또는 조합해 사용할 수 있어 도시의 공공 시설물, 외벽, 교통수단, 슬로건 등에 널리 사용되면서 시민들의 주인의식(ownership)을 이끌어내고 있음.**

출처 : https://brand.seoul.go.kr/

[그림 2-41] 지역의 다양성을 표현한 포르투 디자인

③ 주체

- **기획은 포르투 시와 디자인 회사인 화이트 스튜디오(White Studio)임.**

포르투와 플랙서블 디자인
- 포르투는 포르투갈 제 2의 도시로, 북부의 도루(Douro) 강을 따라 반도 끝에 위치한 항구도시임. - 약 2,0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어서 도시를 대표하는 이미지가 자연환경부터, 건물, 지역 산업, 특산물에 이르기까지 매우 방대함. - 1995년 중심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되었고, 2001년 유럽의 문화수도로 지정되면서 유럽 내 인기 있는 관광지로 부상함. - 플렉서블 디자인은 하나의 아이덴티티로 다양한 상황에서 변화할 수 있는 개방적인 디자인을 의미하며 서울시의 I.SEOUL.U 역시 플렉서블 디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④ 내 용

- **전문가들에 의해 지역정체성에 맞는 비주얼 시스템을 개발**
  - 2014년 포르투 시가 화이트 스튜디오에게 의뢰해 탄생한 새로운 비주얼 시스템과 아이덴티티로서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킴.
  - 화이트 스튜디오는 하나로 정의되지 않는 다양성 그 자체를 포르투의 본질로 파악하고, 각각의 특색을 살리는 방향성을 취함. 즉 시민들이 저마다의 포르투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작업을 시행함.

- 시민들에게 '당신의 포르투는 무엇입니까'를 질문하고, 여기서 나온 답을 건축, 문화, 자연, 음식 등 22개의 상징(아이콘)으로 만들어 푸른 타일에 담아 선보임. 이후 아이콘은 시민들의 참여로 70개까지 늘어남.
- 푸른 타일은 포르투 거리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통 건축양식인 아줄레주(Azulejo)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탄생함. 이를 통해 설사 각 아이콘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더라도 그 자체가 포르투를 뜻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성 속에서도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됨.

● **지역민들이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변용성을 강조함**

- 아이콘의 최대 장점은 단독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연결시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임. 즉 아이콘들의 조합에 따라 그 모양과 범위가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음.
- 어떤 장소, 어떤 물건이든 쉽게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고 변형할 수 있기 때문에, 시내의 공공 시설물은 물론 건물 외벽, 트램 등의 교통수단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음.
- 파란색을 메인 컬러로 한 로고(슬로건)는 포르투의 특별함을 드러내는 마침표가 핵심임. 긴 역사만큼 다양한 층위를 지닌 포르투는 하나로 정의되지 않는 그저 포르투라는 것을 뜻함.

트램 등 교통수단에 활용

로고 디자인을 도시 슬로건으로 활용

출처 : https://brand.seoul.go.kr/

[그림 2-42] 포르투 디자인이 활용된 사례

⑤ 시사점

● **시민들의 의견을 디자인에 반영**

- 도시의 특성을 이해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디자인에 반영시킴으로써, 시민들이 도시 브랜드를 매우 친근하게 느끼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발적으로 사용하게 만듦.

● **직관적이고 변용가능한 상징물을 만들어냄.**

- 추상적인 부분을 없앤 직관적인 아이콘(상징)을 통해 모두가 저마다의 포르투 아이덴티티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주인의식(ownership)을 이끌어낼 수 있음.
- 유서 깊은 도시의 다양성을 표현한 70개의 아이콘은 단독으로도, 조합해서도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디자인이 무한대로 확장되고 있음. 때문에 도시 곳곳에 활용되고 있으며, 또한 그 활용처도 계속 늘어나고 있음.
- 포르투 로고는 도시 슬로건으로도 이용됨. 도시의 다양한 삶과 문화를 내포한 로고는 완성된 결과물이라기보다 모두가 참여하고 공유함으로써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해나감을 의미함. 때문에 로고는 도시의 지향성을 담은 슬로건으로, 도시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음.

마. 주민문화활동

송정그림책마을찻집

① 정　보

- 위 치 : 충청남도 부여군 양화면 양화북로222번길 13-1

② 요약

- 송정그림책마을찻집은 주민이 직접 쓰고 그린 이야기 '그림책'을 구심점으로, 커뮤니티와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전시 및 카페 공간이자, 커뮤니티 공간임.

출처 : https://m.blog.naver.com/buyeoblog/221254978228

[그림 2-43] 그림책이 전시된 송정그림책 마을 찻집

③ 주체

- 기획의 주체는 그림책미술관시민모임으로, 운영의 주체는 마을 주민임. 마을 사무장이 상주하면서 지속적으로 운영관리를 하고 있음.

송정그림책마을
- 송정 마을은 인조 때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한 마을로, 약 4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음.
- 한때 80여 가구의 수백여 명이 모여 살았으나, 현재는 약 30여 가구 5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노인 주거 비율이 매우 높은 마을임.
- 마을 재생을 위해 2015년 국비사업(창조지역 사업)으로 '그림책미술관시민모임'과 함께 마을 테마를 '그림책'으로 선정함.
- 총 23명의 마을 어르신이 작가로 참여해 마을 사람들의 삶, 추억을 그림으로 기록한 그림책을 출판하고,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재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함.

④ 내　용

- 2017년 마을 입구에 오픈한 찻집은 그림책 전시 및 판매 공간, 카페 공간 외에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는 다기능 공간
  - 마을 주민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음.
  - 총 23명의 마을 어르신이 직접 쓰고 그린 그림책들이 전시되고 판매되는 공간임. 전시 공간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차를 주문하지 않아도 방문객이 편하게 둘러보고 쉴 수 있는 쉼터 역할을 함.
  - 카페 공간으로 주민들이 직접 키운 자연재료로 만든 건강차를 판매함. 생강, 대추, 도라지 차 등 건강차 외에도 가래떡구이 등 간식과 커피도 판매하고 있으며, 자연 재료로 만들기 때문에 계절별 음료가 다르게 구성됨.
  - 문화 활동, 모임 등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임. 그림 그리기, 종이 접기 등의 커뮤니티 활동이 이뤄지며, 그 결과물 중 일부는 찻집 공간에 전시가 되기도 함.

- 할머니 도시락을 판매하는 공간으로도 활용됨.
  - 도시락 바구니에는 음식과 윷놀이 세트, 돗자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용 후 반납을 해야함. 음식은 마을 할머니들이 직접 키운 농산물로 만든 음식과 차, 후식으로 구성됨.
  - 도시락은 10인분 이상, 사전 예약제로만 주문 가능. 주문이 들어올 경우, 할머니들이 함께 모여 공동으로 음식을 준비함.

마을 주민이 직접 쓰고 그린 그림책

할머니 도시락

출처 : https://www.ktsketch.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14

[그림 2-44] 마을 찻집 콘텐츠 소개

⑤ 시사점

- 지역주민과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됨.

- 찻집은 커뮤니티 공간일 뿐만 아니라, 그림책 전시공간과 카페 공간으로도 이용되기 때문에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인에게도 개방되는 공간임.
-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마을의 맥락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테마로 그림책을 선정함. 책은 어르신들의 어린 시절, 마을 전설 등을 담고 있어 누구나 쉽게 마을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만듦.
- '그림책'을 구심점으로 마을 커뮤니티가 더 잘 소통되는 구조를 보여줌. 주민들은 그림책을 쓰고 그리는 활동을 함께하고, 전시공간인 마을 찻집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잘 연결되고 화합할 수 있게 됨.
- 그림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에 마을의 문화와 맥락을 적극 활용함. 찻집에서는 판매되는 건강차와 할머니 도시락은 마을의 신선한 자연 재료를 활용하고, 찻집 내부는 마을 주민이 참여한 문화 활동으로 꾸며짐.

영국 런던 페캄 도서관

① 정보

- 위치: 영국 런던 서더크(Southwark) 페캄(Peckham) 지역
- 운영 시간: 10:00 ~ 17:00

② 요약

- 기획 단계부터 커뮤니티의 필요와 욕구를 반영한 페캄 도서관은 도서관 이상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하면서, 21년 째 지역 커뮤니티 앵커 역할을 하고 있음.

출처 : http://www.smartcon.kr/html/commu06.php?tid=bbs06&bType=view&intId=113600

[그림 2-45] 페캄 도서관 전경 및 내부

③ 주체

- **기획 및 운영의 주체는 서더크 구이지만, 관리의 일부를 주민에게 맡기고 있음.**

서더크 구와 커뮤니티형 공공도서관 '페캄 도서관'
- 페캄은 아프리카계 흑인, 히스패닉으로 이뤄진 지역으로, 주택 노후화 및 지역 경제 침체 등의 문제를 겪음. - 이에 정부의 페캄지역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1999년 커뮤니티형 공공도서관 '페캄 도서관'이 건립됨. - 영국에서의 공공도서관은 1997~98년 '새로운 도서관 운동'으로 큰 전환점을 맞이해, 도시재생의 핵심 시설로 부상함. - 집안의 거실이나 카페와 같은 편안한 공간으로 꾸며지는 것을 특징으로 함.

④ 내용

- **지역주민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도서관의 기능을 설정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
  - 기획 단계부터 주민들과 끊임없는 의견 교환을 통해 도서관의 기능을 설정함. 지역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반영해,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사회적 역할에 초점을 맞춰 설계됨.
  - 단순히 책을 열람하고 대여하는 곳 이상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모임공간, 휴식공간, 놀이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음.
  - 5층 규모의 도서관은 1층에서 3층까지는 지역의 정보센터와 동아리 활동 및 미디어 교육시설로, 4층과 5층이 도서관으로 사용됨. 특이한 점은 1층에는 원스톱 숍(one stop shop)이 자리하고 있는데, 지역 정보나 상담 서비스 등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밖에 탁아시설, 교육시설, 모임 공간 등도 마련됨.
  - 보유한 장서 역시 지역 거주민의 특성을 반영함. 도서관 자체의 규모는 별로 크지 않으나 아프리카계 흑인과 히스패닉 주민이 많은 관계로, 아프리카 및 카리브 관련 자료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곳으로 유명함.
- **지역의 특성에 맞게 건강 및 구직자 프로그램도 개발**
  - 페캄 도서관이 지역 재생의 핵심 시설로 자리함에 따라, 서더크 구는 도서관을 구심점으로 건강한 먹거리, 건강한 신체, 예술과 교육 등 커뮤니티 그룹 활동의 범위를 다양하게 늘려나가고 있음.
  - 건강 및 구직자 프로그램을 개발함. 이는 책과 독서가 건강과 취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특히 건강 서비스의 경우, 보건당국과 협력해 예약 없이 특정

요일에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음.

⑤ 시사점

- **관주도형 문화재생사업에서는 주민들의 애착공간으로 발전해야 성공함.**
  - 기획 단계부터 주민의 필요와 욕구를 반영한 기능 덕분에, 물리적 재생과 더불어 문화적·사회적 재생을 이끌어 내고 있음.
  - 도서 대출이라는 기본 기능 이외에 커뮤니티의 그룹 활동을 장려해 모임 공간, 휴식 공간, 교육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덕분에 도서관을 중심을 지역 전체의 커뮤니티 그룹 활동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임.
  - 초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커뮤니티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왔고, 점차 도서관의 운영의 일부를 주민 자율에 맡김으로써, 주민이 공간에 애착을 갖고 지역의 문제를 직접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함.

3. 종합 검토

- **황계동의 역사문화적 자원의 가치를 검토한 결과 다양한 분야에 활용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예술창작 및 주민문화활동은 신규프로그램 발굴이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정조대왕 콘텐츠, 마을선조들과 관련된 능지기(수호군)콘텐츠, 성황산(성황사)콘텐츠는 황계동 주민들의 자긍심고취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시, 교육 및 체험, 축제 및 행사, 문화적 공간조성 등에 활용가능 함.
  - 운영사례 검토를 통해 예술창작을 위한 연극공연, 예술가 레지던스, 공공미술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
- **콘텐츠 운영프로그램 개발 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 자원 뿐만 아니라 신규도입 프로그램까지 고려하여 개발**

[표 2-9] 황계동 문화콘텐츠의 활용가능성 종합 검토

	구분		전시	교육 및 체험	축제 및 행사	예술창작	주민 문화활동	문화적 공간조성
역사 문화 자원	정조	화소구간(능원)	○	○				○
		위민정책	○	○				
		능행차	○	○	○			○
		국장	○	○	○			
	능지기(수호군)		○	○	○	○	○	
	성황산(성황사)		○	○	○			○
운영 사례 검토	마을박물관		○	○			○	○
	연극공연			○	○	○	○	
	재현행사 및 축제				○			
	커뮤니티 아트					○	○	
	공공미술 프로젝트				○	○		○
	주민문화활동						○	

Ⅲ 문화적 공간구상

1. 기존 자원 및 시설 검토
2. 마을 문화재생 공간계획 구상안
3. 인근지역과 연계방안 검토

Ⅲ. 문화적 공간 구상

1. 기존 자원 및 시설 검토

1) 기존 자원 및 시설

- 융건릉
  -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를 합장한 융릉과 정조대왕과 효의왕후 김씨의 합장릉인 건릉이 성황산 너머에 위치함.
  - 황계동 마을역사의 중요한 콘텐츠의 출발점임.
- 용주사
  -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를 위해 만든 사찰로 국보 120호인 용주사 범종을 비롯하여 여러 문화재가 있음.
  - 융건릉을 지키는 사찰로서 조성됨.
  - 정조대왕의 '효'를 일깨워 주는 중요한 사찰임.
- 황구지천
  - 수원시 대황교에서 국가하천으로 바뀌며 평택시 서탄동에서 진위천과 합류함.
  - 황구지천은 '큰 고지가 있는 강'이란 뜻임.
  - 도시를 가로지르는 전형적인 도심형 하천으로 강의 상류가 수원시가지에 위치하여 많은 양의 생활오수가 유입되면서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어려웠으나,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등 꾸준한 정화노력을 펼친 결과 자연형 하천으로 바뀌어나감.
- 성황산 보호수
  - 청운제 남측에 느티나무 보호수가 위치하고 있으며, 정조대왕 당산목으로 이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정조대왕 성황대제를 지내고 있음.
  - 원래 국방부 소유지내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주민들이 보호수를 마을로 돌려주기를 희망하여, 현재 군부대 경계철조망이 보호수 뒤편으로 설치되어 있는 상황임.

[표 3-1] 성황산 보호수 현황

지정번호	수종	위치	수령	지목	지정일	소유자	관리자
화성 82	느티나무	황계동 188-4	350년	전	2019.8.20	국유지 (국방부)	화산동장

자료: 화성시 보호수 관리대장

[그림 3-1] 성황산 보호수(정조대왕 당산목)

- **황계길(황계동 주 진입로)**
  - 태안로에서 황계길로 들어서는 3거리(황계동 199-9 일원)는 도시재생사업대상지로의 주진입로임.
  - 소하천변으로 편측보도와 가로수로 정비되어 있는 2차선 길로 소하천은 정비가 필요한 상황
  - 이 도로가 도시재생사업으로 확장하고 있는 정조대왕 능행차로와 연결됨.

황계1통 마을비석

마을 진입로

편측보도 현황

보도 옆 소하천 현황

[그림 3-2] 황계동 주진입로인 황계길

- **황계공원**
  - 마을입구에 팔각정, 휴게시설, 운동시설로 구성되어 있는 소공원 형태의 황계공원(황계동 151-28)이 조성되어 있어 마을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그림 3-3] 황계공원

- **(구)마을회관(황계동 183-3)**
  - 현재 쓰지 않는 마을회관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철거하고 소공원(쉼터)을 조성할 예정임.

- **(현)마을회관(도시재생뉴딜사업현장지원센터)**
  - 현재 마을회관은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로 활용되고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철거하고 어울림센터(생활SOC)를 신축할 예정임.

(구)마을회관

(현)마을회관

[그림 3-4] 마을회관 현황(도시재생사업 대상지)

2)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

- **어울림센터(생활SOC, 황계동 159-3)**
  - 현 마을회관위치에 지역주민들의 공동이용시설을 집적화하는 지역거점공간을 조성
  - 주민들의 접근이 편리한 현 마을회관 위치에 신축하여 문화여가생활공간을 제공
  -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로서 지역공동체 회복의 촉매제로 활용
  - 어울림센터 내 현장지원센터, 카페, 체험공방, 다목적실 등이 계획되어 있음.
- **복지관 신축(황계동 186-19 일원)**
  - 사회복지시설로 황계복지센터를 건립
  - 1층: 목욕탕, 사무실, 대화방 등
  - 2층: 다목적실, 프로그램실(공부방 등), 주민공동작업장 등
  - 외부: 게이트볼장, 주차장 등
  - 노인, 청소년 등 주민을 위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및 공간제공
  - 화성시 복지정책과에서 추진 중
- **수변공원(황계동 186-6 일원, 청운제 저수지)**
  - 농업용수로만 이용되고 있는 청운제 저수지를 활용하여 주민 휴식공간을 확충하고 주민 삶의 질을 개선
  - 다양한 수변식물을 군식하고 분수대 및 수변테크 설치
- **우물복원**

  -안전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우물 복원
- **정조대왕능행차로 정비**
  - 황계동 전체의 역사재생 중심축 및 재생효과의 파급효과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
  - 현재 도로가 좁아 차량의 교행통과가 어려워 황계복지센터 및 주변공원의 주진입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확폭
  - 先공사-後토지보상 방식의 주민참여형 도로개설사업으로 해당 주민들의 동의를 득하고 진행
  - 정조대왕 능행의 역사적 기록을 도로경관에 반영

[그림 3-5] 기존 자원 및 시설 검토

2. 마을 문화재생 공간계획 구상안

1) 정조대왕 이야기길 정비

가. 개요

- 활용부문: 문화적 공간조성
- 위치: 정조대왕 이야기길, 보호수 주변, 마을우물 등
- 황계동의 역사문화콘텐츠가 남아있는 곳을 중심으로 문화적 장소만들기를 시행하여, 향후 다양한 주민활동 및 행사를 시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함.

나. 주요내용

- ‘정조대왕 능행차로’→ ‘정조대왕 이야기길’로 콘텐츠를 확장하여 조성하고 황계동의 마을역사를 재조명
-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안내·표지판 설치
  - 정조대왕 이야기길은 크게 ① 출발 구역, ② 황계마을박물관 구역, ③ 성황산 구역으로 나누어 조성함

① 출발구역

화소구역 표석(단기적 검토사업)

- 화소구역 표석 설치
  - 대황교를 건너면 바로 있었던 능원소 ‘화소(火巢)’ 표석을 설치(2장 참조)
  - 능원소화소: ‘화성지’ 필로조에 따르면 대황교 아래 길 동편에 ‘화소(火巢)’라고 새긴 표석이 있었다고 기록함.

화소구역 표석의 형태
- 현재 남아있는 화소 표지석의 경우 기단 위에 비석을 세운 형태 - 정조대왕 필로에 남아있는 표지석의 경우에는 기단위에 비석으로 검은색 글씨로 새겨져 있음. - 능원소 ‘화소(火巢)’ 표석도 이를 참조하여 기단위에 비석으로 검은색 글씨를 새겨 넣어 재현함.

보은 속리산면 사내리 순조 태실지의 화소 표지석

홍성군 구항면 태봉리 순종 태실지의 화소 표지석

[그림 3-6] 현재 남아있는 태실지의 화소 표지석 사례

안내판(단기적 검토사업)

- **능행차길 지도안내판 설치**
  - 1795년 이전 대황교를 건너 배양치로 이동한 경로, 1795년 이후 대황교를 건너 작현(까치고개)으로 넘어가던 능행차로, 돌아오는 노정으로 성황산을 거쳐 황계동 마을길로 말을 타고 내려오던 정조대왕의 행차길을 표시한 지도안내판 설치(2장 참조)
- **이야기 안내판 설치**
  - 정조대왕 능행차이야기(신하들 대기장소, 신하들과 식사 등), 정조대왕 국장이야기, 대황교 인근의 고종년간 원군들의 민란이야기 등을 설명하는 안내판 설치(2장 참조)
  - 단기적으로 안내판이 설치가능한 곳에 이야기 안내판과 지도안내판을 설치하여 활용하다가 장기적으로 출발구역이 공원화되면 안내판을 이전 설치함.

점말 마을비석 주변 정비전

점말 마을비석 주변 정비 후

[그림 3-7]정조대왕 이야기길 출발구역 단기적 정비(1안)

황계공원 활용 전　　황계공원 활용 후

[그림 3-8]정조대왕 이야기길 출발구역 단기적 정비(2안)

[그림 3-9]약수동 이야기길 사인 사례

[그림 3-10]울산 중구 이야기길 안내판 사례

[그림 3-11]울산 중구 울산큰애기 이야기길 안내판 사례

[그림 3-12]수원 팔색길 이야기 안내판

소하천 정비(장기적 검토사업)

- **소하천 가꾸기**
  - 출발구역 보도 편측으로 흐르는 소하천(삼정천)을 정비하여 쾌적한 걷기환경을 조성함.
  - 소하천은 화성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임.
  - 동시에 편측보도에 꽃길 등을 조성해 나가는 등 황계동의 마을경관 향상

[그림 3-13] 황계동 일원의 소하천 위치도

[그림 3-14]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례

정조문화공원(장기적 검토사업)

- **정조문화공원 조성**

  - 이밖에 옹봉에는 표석과 장승이 있었고, 대황교에는 필로(임금이 다니는 길)로서 표석과 정자 등이 있었던 것[1]으로 전해지고 있으므로, 출발구역을 공원화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

1) 華城誌 卷2 蹕路條

- 도시공원(先도시계획시설 결정) 중 주제공원(역사공원 또는 문화공원)을 검토
  -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특히 1795년 있었던 을묘원행의 필로에 해당하는 구간을 고증을 통해 복원하고 정조문화공원을 행사장소로 적극 활용
- 현재 정조대왕 능행차시 전통공연, 퍼포먼스, 음식체험 등이 이루어지는 화성시 현충공원(17,391㎡)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도록 비슷한 크기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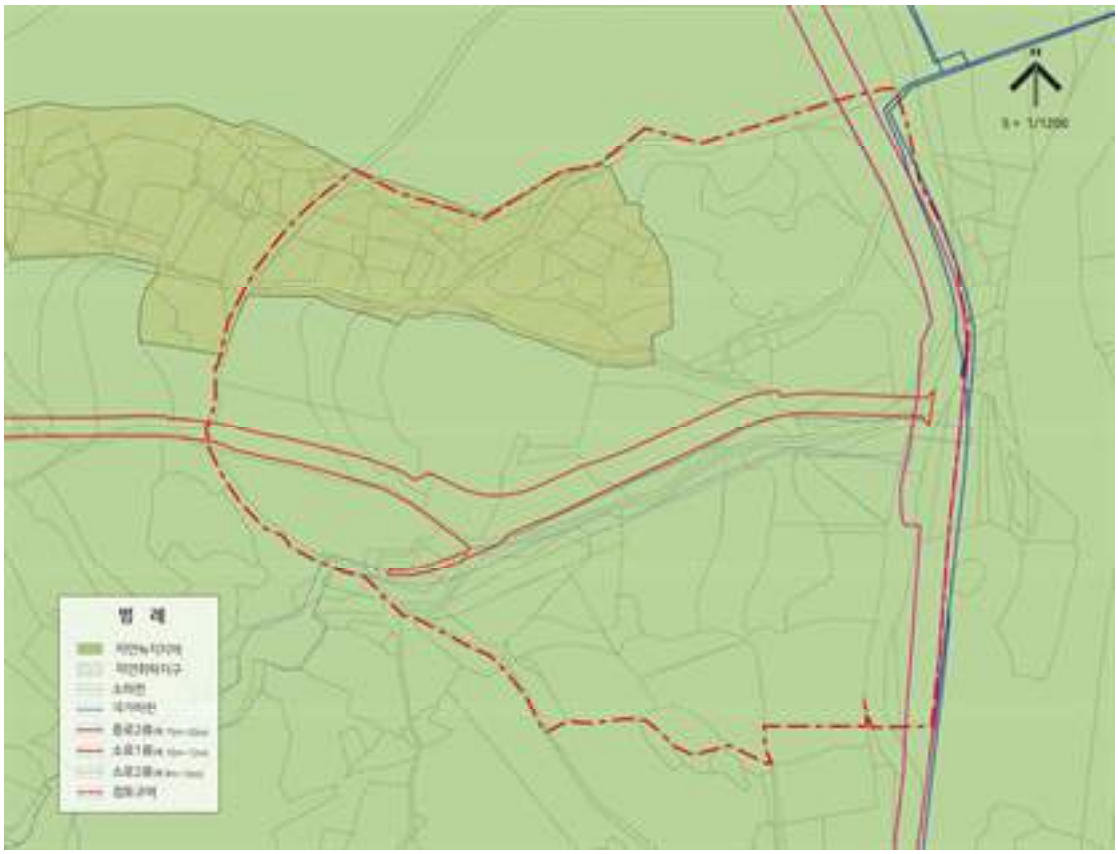
[표 3-2]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공원구분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
1. 생활권 공원			
가. 소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나. 어린이공원	제한 없음	250미터 이하	1천5백제곱미터 이상
다. 근린공원			
(1)근린생활권 근린공원	제한 없음	500미터 이하	1만제곱미터 이상
(2)도보권 근린공원	제한 없음	1천미터 이하	3만제곱미터 이상
(3)도시지역권 근린공원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 없음	10만제곱미터 이상
(4)광역권 근린공원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 없음	100만제곱미터 이상
2. 주제공원			
가. 역사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나. 문화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다. 수변공원	하천·호수 등의 수변과 접하고 있어 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곳에 설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라. 묘지공원	정숙한 장소로 장래 시가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	제한 없음	10만제곱미터 이상
마. 체육공원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 없음	1만제곱미터 이상
바. 도시농업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만제곱미터 이상
사. 법 제15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른 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자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9. 1. 4.>

● **정조 문화공원 후보지 검토**

- 실제 정조 능행차구간인 대황교를 지나 황계동 내로 지나가던 필로구간에 가장 근접하여 조성함.
- 정조이야기길 출발구역은 자연녹지지역과 자연취락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연취락지구는 지가가 높은 대지, 잡종지, 창고지 등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자연취락지구는 제외
- 현재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시 활용하고 있는 화성시 현충공원(약 17,500㎡)과 비슷한 면적으로 조성하여 향후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최종 정조문화공원후보지(약 17,000㎡)를 제안함.



[그림 3-15] 정조이야기길 출발구역 용도지역현황도

[그림 3-16] 정조이야기길 출발구역 지목현황도

[그림 3-17] 정조이야기길 출발구역 공시지가현황도

[그림 3-18] 정조문화공원 후보지(안)

● **정조문화공원 활용방안**

- 실제 1795년 을묘원행 당시 필로에 해당하는 대황교→능원소화소→유첨현(까치고개)→안녕리→유근교→만년제→능원소동구로 이어지는 화성시 구간을 되살리기 위한 구심점 역할
- 현재 현충탑공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를 대황교와 연계된 정조문화공원에서 개최
- 황계동의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장소로 활용

[그림 3-19] 향후 활용가능한 능행차길

[그림 3-20] 향후 정조문화공원 활용 예시

② 황계마을박물관 구역

- 안내판 설치(지도, 이야기)

  - 황계마을박물관 입구에 이야기 안내판 설치: 황계동지역이 왕실소유의 땅이었으며, 정조대왕의 위민정책으로 원속(수호군, 능지기 등)들이 경작을 할 수 있도록 땅을 받아 마을을 이루어 살던 이야기 등을 기록함.
  - 어울림센터의 외부공간에 해당되므로 외부조경 설계시 적극 반영
  - 자연스럽게 황계마을박물관으로 동선을 유도하는 지도 안내판 설치

③ 성황산 구역

성황사 재현

  - 보호수 인근에 성황사 등을 재현하여 마을의 핵심 역사문화적 공간으로 조성함.
  - 성황산에는 성황단(城隍壇)이 아니라 성황사(城隍祠)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제사건축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사(祠)': 신위를 모신 건축물 형태
  - 보호수 인근 황계동 111-1번지 국유지(기획재정부 소유, 면적 347㎡)가 있으므로 협의를 통해 성황사를 재현할 수 있도록 함.

- **성황사와 보호수가 별도로 위치할 경우 보호수 주변과 청운제수변공원의 다양한 활용에 도움이 되며, 성황사에서 신위를 모시고 보호수로 오는 과정을 잘 살려 성황제 행사도 다양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성황사의 형태

- 제사시설은 대부분 단(壇)과 유(壝)로 구성[2)]
- '단'은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을 의미하며, '유'는 이를 둘러싼 낮은 담장을 의미하며, 여기에 덧붙여 사우(祠宇)형식의 제사건축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도 있음.
- 세종실록 12년(1430년) 8월6일 기록에 따르면 성황사에서 성황단의 형태로 통일하도록 명함.
  ① 담을 두르고 남쪽에 문을 내어 닫아 두도록 함,
  ② 단유 북쪽에 신실을 지어 신위판을 봉안
  ③ 제기고를 지어 제기를 보관할 것
- 조선시대 들어와 신위로서 지방 성황의 칭호를 '모주모군성황지신(某州某郡城隍之神)'으로 통일하도록 함[3)].

[그림 3-21] 보호수 인근 국유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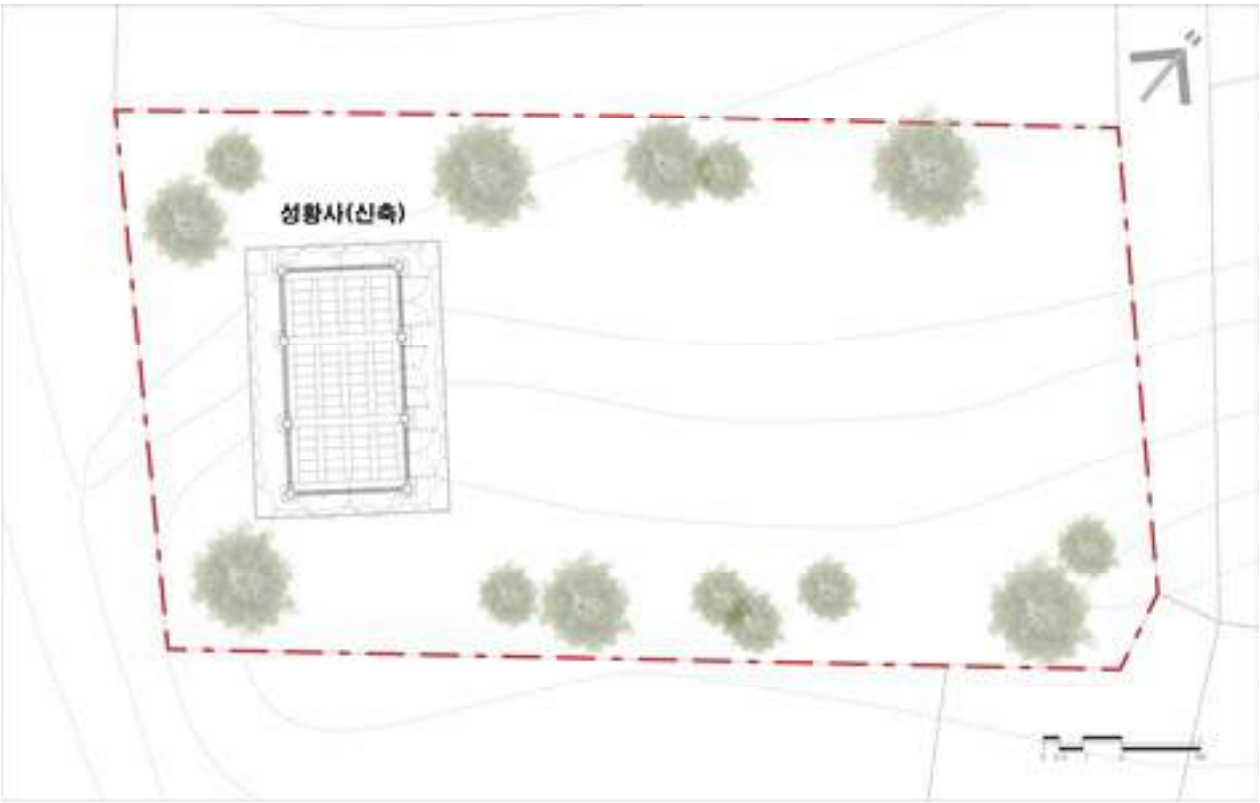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성황당

- 봉양리 성황당은 1900년에 만들어진 건물로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건물
- 2011년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35백만 원으로 보수사업을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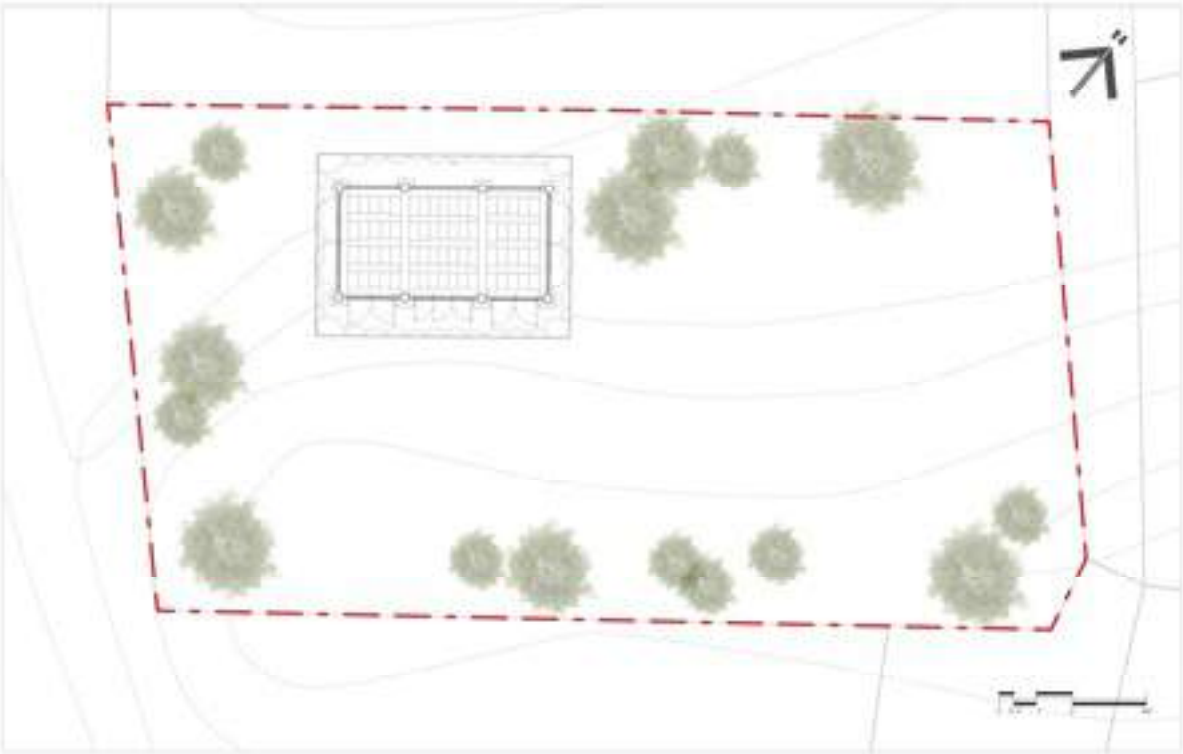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성황당 정비사업 준공식(2011.12)>

2) 사직단과 여단은 거의 예외 없이 각각 서쪽과 북쪽에 위치한 반면 성황단은 다양한 방위에 위치하고 있음. 신혜원(2017.12), “조선시대 지방 단유 건축 신실의 유형과 변화”, 건축역사연구 26권 6호, 통권 115호, pp.7～8.

3)신혜원(2017), “조선시대 성황제소의 혼란한 양상에 관한 연구”, 아시아문화연구 제 44집, pp.130～133



[그림 3-22] 국유지 내 성황사 재현 구상도(안) 1



[그림 3-23] 국유지 내 성황사 재현 구상도(안) 2-서북향

보호수 주변 정비

- 2019년 8월 지정된 황계동 보호수(황계동 188-4)는 성황사가 있었던 지역에 남아 있는 것으로 그 수령이 350여년 되어 정조대왕의 능행차와 마을의 역사를 지켜본 고목으로서 그 주변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군사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공간확장이 어려우므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되는 청운제 수변공원과 연계함.
- '정조대왕 성황제'를 위한 행사장소로서 '단(壇, 흙이나 돌로 쌓은 제단)' 등을 설치
- '단(壇)': 흙이나 돌로 쌓은 제단

대구 서구 평리 당산목 공원조성

- 대구 서구청은 2017년 지역의 유일한 보호수인 당산목 일원에 휴식공간 및 광장, 운동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구비한 공원을 조성
- 향토문화행사 개최장소 등으로 활용하고 있음(총사업비 23억 원).

<대구 서구 평리 당산목 공원 정월대보름날 당산제>

마을 내 우물 복원

- 마을 내에 있는 우물을 정비하여 정조대왕이 성황산에 올랐다 황계동쪽으로 내려오면서 임시 막사를 치고 신하들과 식사를 하던 유래 등을 설명하는 안내판 설치

경복궁 강녕전 서쪽 우물

동궐도상의 우물

[그림 3-24] 어정(御井)사례

• 안내판 설치(지도, 이야기)

- 이야기 안내판 설치: 정조대왕이 성황산에 올랐던 이야기, 성황제사 유래 등에 대한 설명을 담은 안내판 설치
- 능행차길 지도 안내판을 설치하고 현재 위치 표시

[그림 3-25] 성황산 구역 조성도(안)

[그림 3-26] 정조대왕 이야기길 정비 구상(안)

다. 운영주체

• '화기치상' 황계주민협의체

2) 황계마을박물관(가칭)

가. 개요

- 활용부문: 문화적 공간조성, 전시
- 위치: 어울림센터 내
-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황계동 마을역사와 정조대왕 이야기(2장 참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황계마을박물관을 어울림센터 내에 설치

나. 주요내용

- 황계마을박물관의 성격
  - 마을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이번 연구로 밝혀진 정조대왕과 관련된 유서 깊은 황계마을 역사를 널리 알리는 장소
  - 신규 입주하는 주민들에게 마을을 소개하고 마을주민의 일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장소
  - 주변 학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조대왕과 융건릉 관련 교육의 장소
  - 방문객들을 위한 안내 및 마을소개 장소
- 테마의 구성
  - 마을역사 개관(마을역사 연대표)
  - 지도로 보는 황계마을
  - 정조대왕과 황계동 마을역사
  - 정조대왕의 능행차
  - 정조대왕의 국장
  - 성황산과 성황제사
  -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
  -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
- 박물관 공간구성의 기본방향
  - 황계동 마을박물관은 ① 입구(마을역사 개관/마을역사연대표), ② 지도로 보는 황계마을, ③ 정조대왕과 황계동 마을역사(능지기/수호군마을), ④ 정조대왕의 능행차, ⑤ 정조대왕의 국장, ⑥ 성황산과 성황제사, ⑦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 ⑧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 8개 테마로 구성

① 입구(마을역사 개관)

- 방문객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황계마을박물관 전체의 내용을 암시하기 위한 공간으로 마을역사 연대표로 구성함.

② 지도로 보는 황계마을

- 고지도와 조선총독부 제작 지도의 전시를 통해 황계동의 역사와 변화를 알기 쉽게 풀이함.
- 고지도: 지승(정조 이전 제작), 광여도(영조년간 제작), 지방지도(1872년 제작), 건릉지능원침내금양전도(1879년 제작)
- 조선총독부 제작지도: 안룡면 황계리 지도(1912년 제작), 안룡면 황계리 지도(1918년 제작)

③ 정조대왕과 황계동 마을역사(능지기/수호군마을, 2장 참조)

- 정조년간의 현륭원이 조성되면서 황계동 일대는 능원의 시작점으로 화소구역으로 편입되어 왕실소유의 땅이 되었으나, 정조대왕의 위민정책으로 황계동일대 주민들은 이주하지 않고 능원을 지키는 원속(능지기, 수호군)들이 사는 마을로 형성되어 오늘에 이르렀음을 알기 쉽게 설명함.
- 능지기(수호군)들이 하던 일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설명하고 현륭원을 지키던 '충', '효'의 의미를 부각함.
- 19세기 후반 능참봉의 비리에 수호군들이 민란을 일으켰던 내용도 기록으로 남김.

④ 정조대왕의 능행차(2장 참조)

- 1795년 혜경궁홍씨 회갑연을 위한 행차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정조대왕 능행차로에 대한 설명과 대황교를 거쳐 다다르게 되는 황계동에 대해 설명함.
- 특히 정조대왕 능행차시 돌아가는 길에 어김없이 성황산에 올라 주변을 돌아보고 내려오면서 황계동일대에서 잠시 임시막사를 치고 신하들과 식사를 했던 장소였음을 부각함.

⑤ 정조대왕의 국장(2장 참조)

- 1800년 11월에 있었던 정조대왕의 국장행렬이 다시 대황교를 거쳐 황계동을 지나갔던 일을 기록함.
- 조선왕실의 국장절차에 대한 설명과 정조대왕 국장행렬에 대한 기록 중 발인반차도 전시

[표 3-3] 황계동 마을연대표

시기구분		역사적 내용
조선 이전	고구려	매홀현
	통일신라(757)	수성군
조선 건국	고려	수원 고읍성(경기도 기념물 제 93호)
	1413	수원도호부 설치
정조 년간	1789	사도세자 능원 이전. 1차 원행 황계동일대는 왕실소유의 능원(화소구역)으로 편입 정조대왕의 배려로 왕실소유 화소구역내 현륭원 원속(수호군 등 능지기)들의 마을 형성
	1790	2차 원행
	1791	3차 원행
	1792	4차 원행
	1793	5차 원행
	1794	6차 원행
	1795	7차 원행, 혜경궁 홍씨 회갑연을 겸한 원행, 새로 개설된 길 사용
	1796	8차 원행
	1797	9차 원행, 10차 원행
	1798	11차 원행
	1799	12차 원행
	1800	13차 원행, 세자 책봉, 정조 붕어
정조 이후~ 대한 제국	1804	순조 원행
	1806	순조 원행
	1807	순조 원행
	1810	순조 원행
	1817	순조 원행
	1821	순조 원행
	1828	순조 원행
	1843	헌종 원행
	1846	헌종 원행
	1852	철종 원행
	1855	철종 원행
	1866	고종 원행
	1868	고종 원행
	1870	고종 원행
	1891	대황교 부근에서 능참봉 민병성에 대한 원군동민(園軍洞民)들의 민란발생
	1895	수원도호부, 남양도호부→수원군과 남양군으로 변경
	1908	순종 원행
일제 시대	1914	통산리, 황계동, 점촌을 합쳐 황계동으로 변경하고 안녕면과 용복면을 합쳐 안룡면으로 개편(안룡면 황계동)
	1918 이후	왕실소유 화소구역내 산림의 소유권이 동양척식주식회사로 이전
	1937	수원공군비행장 조성
현대	1963	태장면과 안룡면을 병합하여 태안면으로 개칭(태안면 황계리)
	1985	태안면이 태안읍으로 승격(태안읍 황계리)
	2005	태안읍을 폐지하고 황계동 일대는 화산동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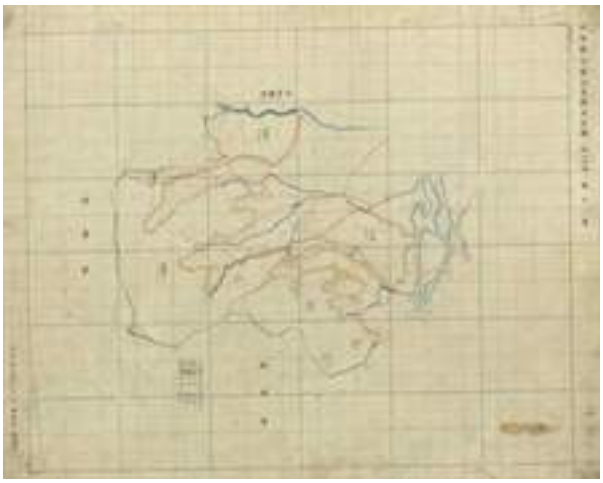
지승(정조년간 이전제작)

광여도(영조년간 제작)

지방지도(1872 제작)

건릉지 능원침내금양전도(1879)

조선총독부 안룡면 황계리 지도(1912)



조선총독부 안룡면 황계리 지도(1918)

[그림 3-27] 황계동 관련 고지도

⑥ 성황산과 성황제사(2장 참조)

- 사도세자의 능원을 옮기기 전 황계동 일대는 수원도호부의 옛읍치로서 화성지역의 2개 문화중심 중의 하나였음을 부각함.
- 기록에 의해 성황산에는 고을 수호신을 위해 제사를 지내던 성황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고려시대부터 이어져온 성황제사와 조선시대 '3단1묘' 등에 대해 설명
- 현재 지내고 있는 성황제사에 대한 사진기록 전시

⑦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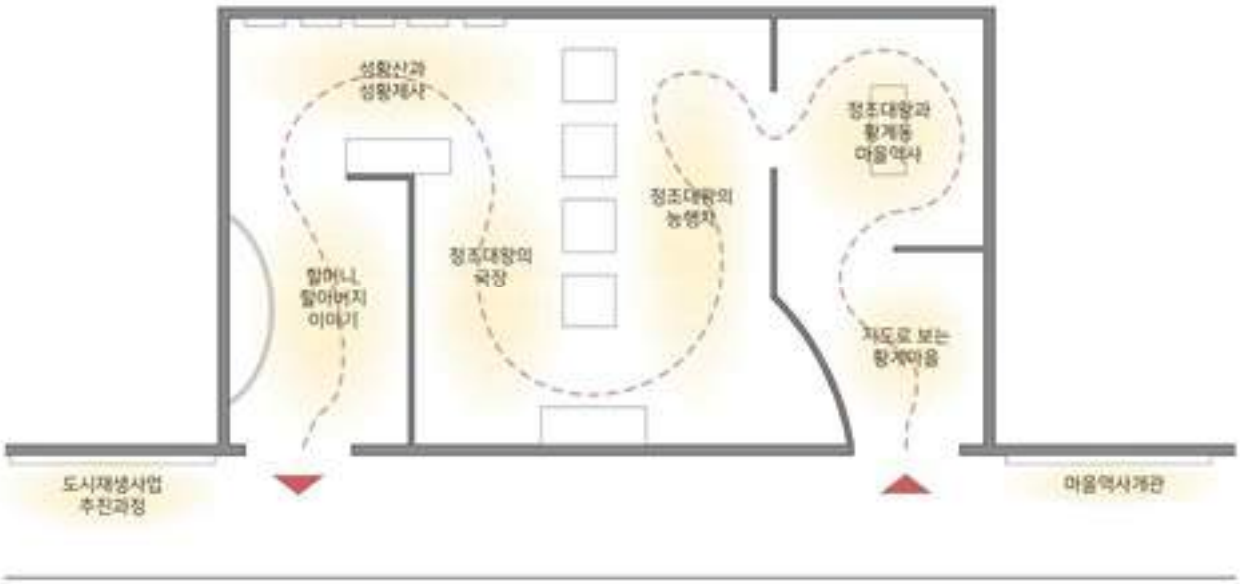
- 마을지 제작을 통해 채록된 마을어르신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다양한 형태로 전시함.
- 마을주민들이 수집한 마을 옛사진 등 전시
- 마을화보집에 수록된 마을사진 전시

⑧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

- 황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정 기록물 전시
- 도시재생사업 계획내용 판넬 전시

• **박물관 기본 구성 및 규모**

- 어울림센터 내의 1개실을 내부 가벽으로 구분하여 전시하고 부족할 경우, 출입문쪽 복도의 벽도 활용하는 것을 검토함.



[그림 3-28] 황계마을박물관 내부 설치 예시도

다. 운영주체

- **황계동 마을기업과 마을큐레이터**
  - 마을주민들 중 관심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화성시 문화재단과 함께 큐레이터 역량을 키워나감.
  - 향후 마을기업이 만들어지면 황계동 마을박물관의 운영은 마을기업이 맡게 되며 마을큐레이터도 마을기업소속으로 전환

3) 주민문화실 공간 확보

가. 개요

- 활용부문: 교육 및 체험, 예술창작, 주민문화활동
- 위치: 어울림센터 내
- 어울림센터 내 주민들의 문화프로그램 및 창작공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을 확보함.

나. 주요내용

- 주민 문화프로그램을 위한 공간
  - 주민 문화교실 운영장소, 황계 딴따라 연습 및 공연장소, 마을큐레이터 및 문화해설사 교육장소, 정조학당(정조대학) 운영 공간
  - 필요공간: 무대(음향, 조명시설 포함), 다목적 가변공간
- 황계동 창작극 공연 및 연습공간
  - 정조대왕과 능지기(수호군) 마을 황계동과 관련된 창작극(전문가) 공연, 일반주민 참여 연극 연습공간
  - 필요공간: 무대(음향, 조명시설 포함), 다목적 가변공간

[그림 3-29] 가평군 묵안리 도농교류센터 내 다목적 강당

다. 운영주체

- ‘화기치상’ 황계주민협의체

3. 인근지역과 연계방안 검토

- **용주사, 융건릉으로 이어지는 실제 정조 능행차로 옛길 찾아 표석을 설치**
  - 화성지의 기록[4]에 따르면 필로(임금의 수레가 지나가던 길) 중 황계동과 관련성이 높으며 화성시 관내에 위치한 곳으로 대황교(황계동 163-2), 능원소화소, 유첨현(까치고개), 안녕리, 유근교, 만년제, 능원소동구가 있음.
  - 화성성역의궤 기록에 따르면 대황교(大皇橋), 유첨현(逌瞻峴), 유근교(逌覲橋), 만년제(萬年堤), 안녕리(安寧里)에 필로표석이 있었음.
  - 화성지 기록에 따르면 황계동에는 능원소 '화소' 표지석이 있었음.
  - 화성시 관내 필로 중 표석이 남아있는 곳은 '만년제(경기도 기념물 161호)', '안녕리(화성시 향토문화재 20호)' 2개임.
  - 이후 황계동내에 위치하였던 '대황교', '능원소화소'와 함께 '유첨현'과 '유근교'의 위치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표석을 재현하고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와는 별개로 화성시 관내 정조대왕 능행차로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함.

[그림 3-30] 현재 남아있는 정조대왕 필로 표석 사례

4) 華城志(1831), 蹕路條

화성시 관내 정조대왕 필로 표석

- '화성성역의궤(1801) 부편(附編)2 내관(來關)'에 병진년(1796) 2월 초2일에 '정리의궤청에서 살펴볼 일' 이라는 기록을 보면 정조대왕이 현륭원에 행차할 때 가마길이 지나가는 땅의 경계가 되는 곳에 그 땅의 이름을 써서 길가에 표석으로 세우라고 명하였는데 지지대고개(遲遲峴), 지지대(遲遲臺), 괴목정(槐木亭), 진목정교(眞木亭橋), 만석거(萬石渠), 대유평(大有坪), 관길야(觀吉野), 영화정(迎華亭), 매교(梅橋), 상류천(上柳川), 하류천(下柳川), 황교(皇橋), 옹봉(甕峯), 대황교(大皇橋), 유첨고개(逌瞻峴), 유근교(逌覲橋), 만년제(萬年堤), 안녕리(安寧里)'까지 18개가 해당함.

- 이후 화성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음.

· 대황교: 옹봉으로부터 100여보이며 길 서편에 '大皇橋'라는 표석을 세웠고 단정(短亭)이 있었다고 기록함.

· 능원소화소: 대황교 아래 길 동편에 '화소(火巢)'라고 새긴 표석이 있었다고 기록함.

· 유첨현(까치고개): 화소로부터 1리쯤이며 길 서편에 '逌瞻峴'이라는 표석을 세웠으며, 이곳에 이르기 전 100여보쯤에 장승을 세웠음. 옹봉으로부터 통합해서 5리였다고 기록함.

· 안녕리: 유첨현으로부터 3리쯤이며, 길 북편에 표석이 있음. 장승을 세웠고 큰 마을이 있음.

· 유근교: 안녕리로부터 1리쯤이며, 길 북편에 표석을 세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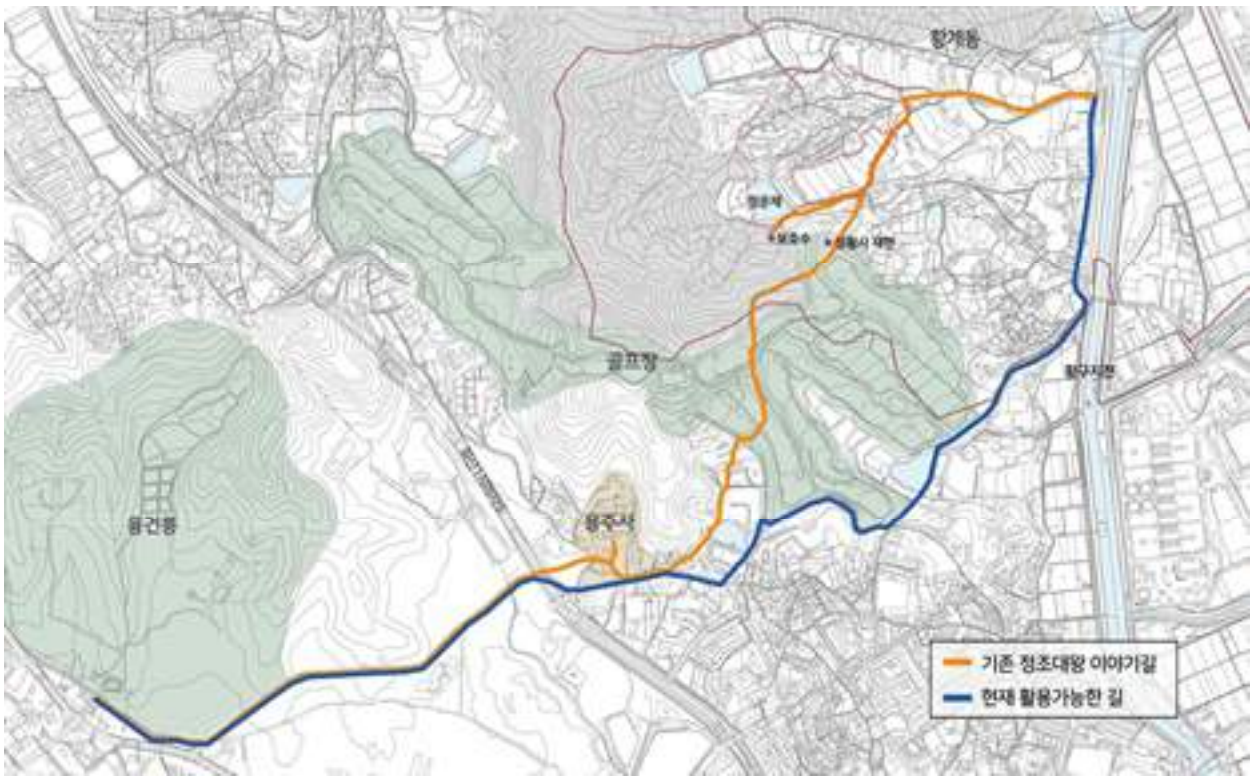
· 만년제: 유근교로부터 수리쯤 떨어졌으며, 길 남편에 표석이 있음.

· 능원소동구: 안녕리로부터 3리이며 장승을 세웠음.

- 괴목정교, 상류천, 하류천, 만년제, 안녕리 표석 등 5개만 남았고 장승은 모두 없어졌음.

- 필로에 있던 5개의 표석 중 수원시 효행길에 남아있던 괴목정교, 상류천, 하류천 표석 3개와 축만제, 남창교 표석은 수원시 향토유적 제16호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고 만년제(경기도 기념물 제161호)와 안녕리 표석(화성시 향토문화재 제20호)은 화성시에 남아있음.

- **황계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시민·학생 등 교육장소를 성황산을 따라 용주사, 융건릉으로 확대**
  - 어울림센터 내에서 이루어지게 될 정조학당(정조대학)의 교육 및 세미나는 물론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용주사와 융건릉으로까지 확대함.



[그림 3-31] 기존 정조대왕 이야기길과 현재 활용가능한 길

Ⅳ 콘텐츠·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과제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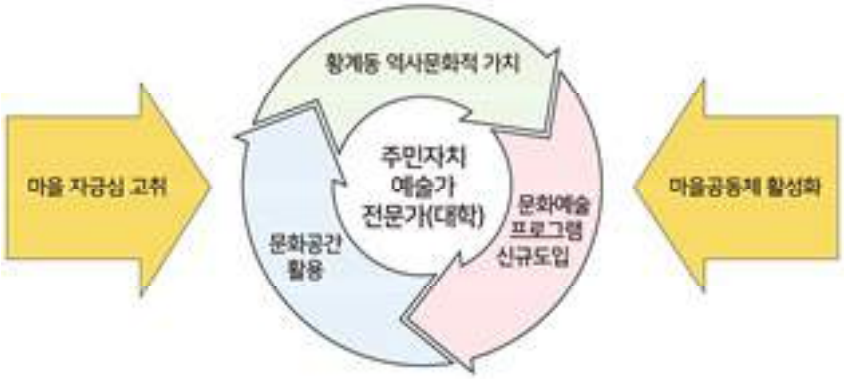
1. 기본방향

2. 사업과제 구상

Ⅳ. 콘텐츠 ·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과제 구상

1. 기본방향

- ‘정조’와 관련된 황계동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콘텐츠 운영프로그램 연계
  - 화성시 황계동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다양한 콘텐츠 운영프로그램 개발
  - 황계동이 정조 이야기 콘텐츠의 발신지로서 전시, 교육 및 체험, 예술창작, 주민문화활동, 축제 및 행사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 신규로 도입가능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접목
  -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여 황계동 주민들의 문화적 향유 기회를 높임.
- 3장에서 구상된 문화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 기존의 자원은 물론 도시재생사업과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기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으로 새롭게 조성될 공간들이 문화재생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함.
  - 정조 이야기길, 황계마을박물관, 어울림센터 등의 문화적 공간을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 황계동 주민들과 긴밀한 연계를 통해 마을기업, 주민협의체 등 마을주체가 중심이 되어 문화예술인, 전문가(대학)들이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상
  - 운영주체별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구상
  -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는 과정이 곧 ‘마을만들기’, ‘마을가꾸기’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함.



[그림 4-1] 황계동 콘텐츠 운영프로그램 개발의 기본방향

2. 사업과제 구상

1) 주민자치 운영 프로그램

가. 정조마을 문화체험프로그램

① 개요

- 활용부문: 교육 및 체험
- 위치: 어울림센터, 황계마을박물관, 정조대왕 이야기길, 마을내 농업지역
- 황계동 마을을 방문하는 방문객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조대왕과 관련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황계동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면서 동시에 수익창출

② 주요내용

- 체험이란 단순히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여 그 결과 다양한 효과를 거두는 것을 의미함.
  - 방문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조대왕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황계마을의 유산을 직접 체험을 통해 느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
  - 방문객들이 많은 추억을 만들어 재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감.
  - 개발된 체험프로그램은 마을축제시에도 적극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정조대왕 이야기길을 따라 함께 걸으면서 하는 마을유산 해설
  - 황계박물관의 마을큐레이터나 마을문화해설사가 정조대왕 이야기길을 걸으면서 이야기와 지도 안내판이 있는 곳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함.
  - 황계박물관에서는 박물관 내부를 돌아보면서 정조대왕시대의 많은 역사적 사실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짐.
  - 잘 정비된 산책길과 수변공원을 걸을 수 있도록 마을가꾸기를 함께 진행함.
  - 역사적 지식과 전문가 수준의 마을유산 해설이 가능한 주민들 발굴과 참여를 이끌어냄.
- 정조대왕과 함께 점심식사
  - 정조대왕 능행차시 돌아가는 길에 성황산에 올라 황계동일대를 돌아보고 내려오는 길

에 임시 막사를 치고 신하들과 식사를 하며 위민정신을 펼쳤던 일을 체험프로그램과 접목함.

- 정조대왕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민이나 연극인이 정조대왕으로 분장하고 임시 막사에서 방문객들과 마을에서 제공하는 점심식사를 하며 다양한 질문이나 대화를 이어나가는 프로그램
- 조선시대 예법과 정조의 위민정신이나 역사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함.

[그림 4-2] 정조대왕과 함께 점심식사 프로그램(예시)

- **소규모 정조대왕 능행차 역할극**
  - 방문객들과 학생들이 직접 조선시대 의상을 입고 정조대왕 능행차의 역할극을 진행해 봄.
  - 조선시대 왕실의상을 입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함.
- **정조대왕과 수호군마을 이야기 연극공연**
  - 황계동마을 역사문화콘텐츠를 바탕으로 개발된 창작극을 어울림센터내 다목적 강당에서 정기적으로 공연하여 체험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에 적합한 창작극을 공연
- **정조대왕 능행차시 혜경궁 홍씨에게 올렸던 음식체험**
  - 2018년 고증을 통해 '정조 효 문화제'에서 재현된 은이 연포탕, 타락죽, 소고기 장조림, 화성 삼합, 곶감 쌈과 오미자차 등 효행 밥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
  - 3색다식, 상화꽃떡 만들기 체험도 가능

[그림 4-3] 정조대왕이 혜경궁 홍씨에게 올렸던 효행밥상

[그림 4-4] 삼색다식과 상화꽃떡

- **농업기반 체험프로그램**
  - 황계동은 도시지역이면서 동시에 농경지와 농업인 비율이 높은 마을로서 다양한 농촌 체험프로그램이 가능함.
  - 농사체험(생육재배, 수확 체험 등)
  - 농작물을 활용한 먹거리 체험(두부, 떡, 김치, 잼, 장, 간식 등)
  - 자연친화적 만들기 체험

③ 운영주체

- **농업회사법인**

[표 4-1] ‘정조대왕 이야기길 마을유산해설’ 관련 체험프로그램 예시(문화체험)

구분	내 용
체험학습목표	- 정조대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설사를 통해 체험객들에게 재미있게 들려줌으로써 정조의 ‘효’, ‘위민’ 정신 등을 본받음.
프로그램 소개	- 정조대왕과 아버지이신 사도세자이야기 해설을 실제 정조대왕과 관련 깊은 황계동에서 진행함으로써 정조대왕시대의 많은 역사적 사실들을 전달하고 황계동의 중요성을 널리 알림.
사전학습자료	- Q. 사도세자의 능원이전과 황계동의 관계는? A. 사도세자 능원을 화산아래로 이전한 뒤, 능원의 경계는 화소구역으로 결정하였는데, 이때 대황교를 건너 화소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이 황계동이었음. 융건릉 능원구역의 첫 번째 마을이 황계동임. 또한 능원 화소구역 내에는 민가가 있을 수가 없었는데, 정조대왕의 위민정신에 따라 이 지역의 백성들을 이주시키지 않고 그대로 존치하게 하면서, 수호군(능을 지키는 원속)들이 이어살게 함으로써 능지기들의 마을이 형성됨. - Q. 정조대왕이 능행차는 총 몇 번이나 있었을까? A. 정조대왕의 사도세자의 능원을 이전한 1789년 이후 1800년 붕어하기 전 12년동안 총 13번의 능행차가 있었으며, 주로 추운 겨울이었던 음력 1월에 능행차가 이루어짐. 이후 기록에 의하면 순조가 7회, 헌종이 2회, 철종이 2회, 고종이 3회, 순종이 1회 융건릉에 능행차가 있었음. - Q. 정조대왕이 능행차 후 궁으로 돌아가기 위해 황계동을 들리게 된 이유는? A. 정조대왕은 능행차 후 돌아가는 길에 융건릉 주변이 잘 보존되고 있는지 돌아보기 위하여 이지역의 가장 높은 산이었던 성황산에 올라 둘러보고 말을 타고 대황교쪽으로 이동하면서 황계동쪽 산길을 이용함.
체험활동 tip	- 내가 그리는 정조마을이야기 ① 정조대왕 이야기길을 산책한 뒤, 장소마다 특색있는 마을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그림으로 표현함 ② 친구들과 서로 그린 그림을 비교해보기 ③ 각자 그린 그림에 대해 설명해 보기

[표 4-2] '정조대왕과 함께 점심식사' 관련 체험프로그램 예시(문화체험)

구분	내 용
체험학습목표	- 정조대왕의 백성과 나라를 위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실제 정조와 대화하는 형식을 빌어 흥미를 유발하고 생생하게 전달함.
프로그램 소개	- 정조대왕 능행차시 돌아가는 길에 성황산에 올라 황계동 일대를 돌아보고 내려오는 길에 임시막사를 치고 신하들과 식사를 하며 위민정신을 펼쳤던 일을 체험프로그램과 접목함 - 정조대왕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민이나 연극인이 정조대왕으로 분장하고 임시막사에서 방문객들과 마을에서 제공하는 점심식사를 하며 다양한 질문이나 대화를 이어나가는 즉흥 상황극 프로그램임
사전학습자료	- Q. 정조대왕은 조선시대 어떤 왕이셨을까? - A. 정조는 조선시대 22대왕(1776~1800)으로 조선 4대왕이었던 세종대왕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큰 역할을 함. 세종대왕은 조선전기 이상적 유교정치를 구현하고 민족문화의 창달과 조선왕조의 기틀을 마련했다면, 정조대왕은 조선후기 개혁과 대통합을 실현하고 문예부흥기를 이끌었음. 세종대왕이 집현전을 설치하여 왕립학술기관으로 이상적 유교정치를 구현했다면 정조대왕은 규장각을 설치하여 왕립도서관 겸 연구기관으로 문물을 정비하고 학문과 기록문화를 꽃피움. 세종대왕이 한글창제와 편찬사업, 음악과 과학기술의 발달을 도모했다면, 정조대왕은 당시의 모든 지식을 집결한 화성을 건설함. - Q. 정조대왕의 위민정신 사례는? A. 정조는 화산 및 성황산 일대에 살던 주민들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고 10년간 부역을 면제하고 각종 세곡미를 탕감해줌. 또한 현륭원 주변 백성들은 집안사람이나 부자간과 마찬가지여서 이곳 백성들이 즐겁고 생업에 안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시함. 화소구역에 해당하던 황계동일대는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조의 명으로 현륭원 화소구역내의 백성들은 필로를 제외하고는 철거하지 말라는 명을 내려 백성들이 그대로 살 수 있게 해줌. - Q. 정조대왕이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능행차를 했을 때 드셨던 음식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 A. 은이연포탕, 타락죽, 소고기 장조림, 화성삼합, 곶감쌈과 오미자차로 구성함.
체험활동 tip	- 정조대왕과 식사 후 융건릉 단체 관람 ① 정조대왕이 지나던 옛길을 따라 융건릉으로 단체관람을 함. (이동시 필요한 차량 준비) ② 융건릉을 돌아보고 귀가할 수 있도록 함

[표 4-3] '정조 효행음식-각색다식' 관련 체험프로그램 예시(문화체험)

구분	내 용
체험학습목표	- 정조대왕 을묘원행시 혜경궁 홍씨에게 올렸던 효행음식을 만들면서 효와 전통의 소중함을 알고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누어 먹으며 배려를 배움.
프로그램 소개	- 다식은 원행시 봉수당 진찬 등에 올려진 중요한 음식으로 흑임자가루, 파란콩가루, 노란콩가루와 꿀을 섞어 반죽한 것을 다식판의 원하는 모양에 넣어 찍어내는 방식으로 진행함.
사전학습자료	- Q. 정조대왕이 즐겨 먹던 음식은? A. 『 정조실록(正祖實錄)』의 「정조대왕행장(正祖大王行狀)」에 따르면, 정조(正祖, 1752~1800)는 몸소 절제와 검소를 실천하고 소박한 생활을 편안히 여기는 사람이었음. 그리하여 정조는 "여러 번 세탁한 옷도 입었으며 곤복(袞服)이 아니고는 비단을 입지 않았음. 어선(御膳)도 하루 두 끼에 불과했고 음식 역시 서너 가지에 불과했으며 침전(寢殿)은 장식도 안 한데다 낮고 좁아 비가 오면 새는 곳이 있었다."[1]고 함. 『원행을묘정리의궤』와 그 밖의 정조와 관련된 기록을 검토하면서, 게, 꿩, 전복이 당시 정조가 먹었던 음식의 식재료로 빈번히 이용되었으며 정조가 자신이 아끼는 신하에게 하사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음식은 정조의 애민(愛民) 정신과 효심(孝心), 군신동락(君臣同樂)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식재료임. - Q. 정조대왕의 을묘원행은 어떤 능행차였나? A. 정조대왕이 즉위 20년 해인 1795년 윤2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맞아 행한 것 - Q. 정조대왕 을묘년 능행차시 혜경궁 홍씨에게 어떤 음식을 올렸을까? A. 윤 2월 9일부터 2월 16일까지 8일간의 원행기간 중 정조대왕께서 지극한 효심으로 자궁(茲宮)인 혜경궁홍씨에게 다양한 음식을 올림 반과상: 면, 만두, 탕, 적, 전유화, 어채, 편육, 육병, 회, 조과류, 음료 등 수라상: 반, 갱, 조치, 구이, 좌반, 해, 만두, 전, 적, 편육, 증, 채, 침채, 담침채, 장, 탕, 각색적, 증, 편육 미음상: 미음, 고음, 정과
체험활동 tip	- 각양의 다식판 준비 ① 다식판은 다식(茶食)을 찍어 내기 위한 틀로서, 갖가지 문양을 아로새겨 다식의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높여 미각을 돋우는 기구였다는 것을 전달함. ② 다식판은 대개 아래 위의 두 층으로 된 판으로 짜여짐. 받침판 표면에는 각양의 문양이 새겨진 돌출부가 여러개 있고, 그 무늬로는 복된 뜻의 글자, 꽃무늬, 태극무늬, 기하학적 무늬가 많으나, 포도알, 물고기 모양 등도 있음.

1)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조선왕조실록-부록-정조대왕행장.

[표 4-4] ‘비빔밥’ 관련 체험프로그램 예시(문화체험)

구분	내 용
체험학습목표	- 우리 고유 음식을 만들면서 전통의 소중함을 알고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누어 먹으며 배려를 배움.
프로그램 소개	- 흰밥 위에 갖가지 나물과 고기볶음, 튀각 등을 올려 비벼 먹는 비빔밥은 우리나라 대표 음식 중 하나임.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농촌의 건강한 색과 맛, 계절과 지역, 자연과 인간이 한데 어울려 조화와 융합을 이루는 비빔밥의 특징을 이해함.
사전학습자료	- Q. 비빔밥의 유래는? A. 비빔밥의 유래에 관해서는 세 가지 이야기가 전해져 옴. 첫 번째는 우리의 독특한 제사 풍습에서 비빔밥이 시작되었다는 것으로 밥, 고기, 생선, 나물 등을 상에 올려놓고 정성껏 제사를 지낸 뒤 후손들이 음식을 골고루 나눠 먹었는데, 이때 밥을 비벼 먹었던 데서 비빔밥이 탄생했다는 이야기임. 두 번째는 한 해의 마지막 날 음식을 남긴 채 새해를 맞지 않기 위해 남은 밥에 반찬을 모두 넣고 비벼서 밤참으로 먹었던 풍습으로부터 비빔밥이 유래했다는 설이 있음. 세 번째는 들에서 밥을 먹던 풍습에서 비빔밥이 생겨났다는 이야기로 모내기나 추수를 할 때 이웃끼리 서로 일을 도와주는 품앗이라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때 시간과 노동력을 절약하기 위해 음식 재료를 들로 가지고 나가 한꺼번에 비벼서 나눠 먹었다는 것임. 이렇듯 다양한 유래를 가지고 있는 비빔밥은 지역마다 고유한 특징을 가지며 지금까지 이어져 왔음. - Q. 비빔밥이라는 이름은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 A. 비빔밥이 처음부터 ‘비빔밥’이라고 불렸던 것은 아님. 조선 23대 순조 임금 때 비빔밥은 ‘골동지반(骨董之飯)’이라고 동국세시기에 기록되어 있으며, 1800년대에는 시의전서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한데 섞는다는 뜻의 ‘부빔밥’(汨董汨飯) 이라고 했음. 1913년 초에 발행된 방신영의 조선요리제법에도 부빔밥으로 쓰였다가 현재에 이르러서 비빔밥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문헌상 비빔밥의 명칭은 많이 바뀌었지만 지어놓은 밥에 여러 가지 반찬을 한데 비빈다는 뜻에는 차이가 없음. - 나만의 비빔밥 만들기 양푼 비빔밥, 돌솥 비빔밥 같이 비빔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거나 과일 비빔밥, 초콜릿 비빔밥 같은 새로운 재료를 넣은 창의력 가득한 비빔밥 만들어 보기
체험활동 tip	- 비빔밥 재료 기억게임 ① 2-3명씩 조를 이루어 비빔밥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하나씩 추가해 가면서 이어부르는 게임하기 ② 예를 들어 첫 번째 친구가 “비빔밥에는~ 밥도 있고”라고 하면 두 번째 친구가 이어서 “비빔밥에는~ 밥도 있고, 콩나물도 있고”라고 하고, 세 번째 친구는 “비빔밥에는~ 밥도 있고, 콩나물도 있고, 당근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어가면서 노래를 부름. ③ 노래를 이어 부르지 못하면 게임이 종료되고, 제일 길게 이어서 부른 친구가 상품을 받음.

자료: 한국농어촌공사(2020), 초등학교 도농교류 농촌체험프로그램, 농림축산식품부

[표 4-5] ‘쌀’ 관련 체험프로그램 예시(농업체험)

구분	내 용
체험학습목표	- 벼의 변화 과정에 따라 해야 하는 농작업들을 배움으로써 우리 농산물의 귀함과 농부의 노고에 대해 배울 수 있음.
프로그램 소개	- 쌀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농산물로 우리나라의 많은 곳에서 쌀을 재배하고 있음. 본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농경지에 볍씨를 뿌려 벼를 기르고 수확·탈곡하여 쌀을 먹게 해 주는 벼농사의 과정을 체험하고, 벼가 자라서 우리 쌀이 되는 과정을 이해함.
사전학습자료	- Q. 쌀은 어디서 날까? A. 쌀은 벼를 재배했을 때 열리는 열매라고 할 수 있음. 논에서 새파랗게 자라다 가을이 되면 누렇게 익는데 그 벼에 매달려 있는 것이 바로 쌀임. 벼가 어디서 처음 생겨나서 자랐는지 알면 벼의 특징을 알 수 있음. 벼라는 식물은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온도가 높고 비가 많이 내리는 곳에서 처음 자라기 시작했음. 벼, 보리, 밀, 옥수수 등의 곡식 중에서 가장 으뜸은 벼라고 할 수 있음. 같은 면적의 땅에 여러 곡식을 심어 보면 벼가 가장 생산량이 많기 때문임. - Q. 우리나라에서 벼를 가장 많이 재배하는 곳은 어디일까? A. 벼는 온도가 높고 비가 많이 오며, 기름지고 평평한 땅이 나타나는 곳에서 잘 자람. 우리나라는 북쪽으로 갈수록 춥고, 남쪽으로 갈수록 따뜻하기 때문에 가장 따뜻한 곳은 남쪽 지역임. 남쪽에 해당하는 지역은 전라도, 경상도 일대임. 다음으로 따뜻해야 한다는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비가 많이 와야 한다는 조건을 동시에 갖춘 곳을 찾아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남해안 지역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함. 따뜻하고 비가 많이 오면서 평야가 많은 곳은 전라남도이고 실제로 전라남도가 우리나라에서 벼를 재배하는 면적이 제일 넓음. 전라남도 다음으로 벼를 많이 재배하는 곳은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지역임. 충청남도에는 금장, 삽교천 주변에 기름진 평야가 있고, 전라북도에는 만경강, 동진강 주변에 역시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음. 반면에 충청북도와 강원도는 평야보다는 산지가 더 넓은 곳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벼를 재배하는 곳이 넓지 않음.
체험활동 tip	- 노동요 만들기 ① 체험활동을 하면서 부를 곡을 정해보고 함께 불러보기 ② 벼 베기, 탈곡, 모내기 체험 시 힘이 될 수 있는 가사 지어보기 (팀을 나누어 한 구간씩 가사를 만들면 좋음) ③ 다 함께 부르며 체험활동 하기

자료: 한국농어촌공사(2020), 초등학교 도농교류 농촌체험프로그램, 농림축산식품부

[표 4-6] ‘감자’ 관련 체험프로그램 예시(농업체험)

구분	내 용
체험학습목표	- 감자를 직접 캐고, 감자를 이용한 요리를 만들면서 줄기식물인 감자의 특징을 알고 즐길 수 있음.
프로그램 소개	- 감자는 비교적 한랭한 기후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평지가 없는 산간 지방이나 추운 지방에서 쌀이나 밀을 대신해 재배하던 작물임. 학생들은 농촌에서 직접 감자를 수확하고, 수확한 감자를 먹어보는 등의 체험을 통해 감자가 자라는 환경, 수확 방법, 특징들을 배우게 됨.
사전학습자료	- 감자의 여러 가지 이름 감자는 서민들의 음식이라고 불릴 만큼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의 간식과 끼니를 담당했던 농산물임. 모두가 한 번쯤은 감자에 대한 추억이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친숙한 작물로 감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1800년대 초임. 중국에서 들어와 초기엔 ‘북방감저’라 부르다 감저, 북저, 토감저 등으로도 부르기 시작했음. 뿌리에 달린 열매가 말방울처럼 보인다 해서 ‘마령서’라고 부르기도 했음. 감자보다 100년 정도 늦은 1700년대 초, 일본에서 들여온 고구마도 ‘감저’라 불렸으며 이후 한참 동안 감저, 감자, 고구마는 확실한 구분 없이 쓰였음. 감자와 고구마를 구분한 것은 1960년대에 이르러서였다고 함. 현재에도 감자는 감저, 지슬 등 다양한 방언으로 불리고 있음. 지역마다 감자를 부르는 사투리가 다른 것도 재미있는 요소임. - Q. 감자와 고구마는 사촌? A. 감자와 고구마가 모두 땅속에서 자란다는 점에서 같은 종류의 식물로 여기지만 사실 이 둘은 전혀 다른 종류의 식물임. 감자는 줄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씨감자를 심어서 키우지만 고구마는 싹을 키워서 심어야 경작할 수 있음. 또 감자에는 전분이, 고구마에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 있음. 감자와 고구마는 비슷한 생김새 때문에 중세 유럽에서는 둘을 혼동하기도 했지만 감자에 비해 재배 조건이 까다로운 고구마로 만든 달콤한 디저트가 부의 척도를 나타내는 음식이기도 했음. - 감자로 만든 다양한 음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기 2명씩 짝을 지어 감자로 만든 요리 이름 말하기를 하면서 체험에 대한 흥미와 기대감 높이기
체험활동 tip	- 데구르르 감자 굴리기 놀이 ① 자신이 수확한 감자 중 가장 동글동글한 감자 하나 고르기 ② 평평한 땅에 어깨너비 정도의 길을 2m 가량 그리고 길 끝에 동심원 그리기 ③ 감자를 굴려 동심원 가장 안쪽 원에 멈춘 감자부터 높은 점수 부여 (※ 다른 친구가 굴린 감자에 의해 감자가 움직인 경우 움직인 위치를 최종 위치로 봄)

자료: 한국농어촌공사(2020), 초등학교 도농교류 농촌체험프로그램, 농림축산식품부

[표 4-7] ‘화분’ 관련 체험프로그램 예시(기타체험)

구분	내 용
체험학습목표	- 화초를 심을 화분을 꾸미고 만들면서 자연에 대한 애정을 키우고 생명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음
프로그램 소개	-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땅을 이롭게 하는 지렁이 채집 및 분변토를 이용한 화분을 미적 감각과 창의력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만들며 생명과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농촌의 깨끗한 자연환경을 체험함.
사전학습자료	- Q. 식물을 키우면 어떤 점이 좋을까? A. 식물을 키우면 미세먼지 제거, 공기 정화, 가습, 음이온 배출 등 여러 가지 실용적인 효과가 있음. 실제로 미국항공우주국(NASA)에서는 1990년대 50종의 식물을 대상으로 연구한 실험에서 식물이 휘발성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등을 제거하는 능력이 탁월함을 밝혀냈음. 야자류를 비롯해 관음죽, 고무나무, 보스턴 고사리, 스피티, 필름 등이 대표적인 공기 정화 식물임. 식물이 신체의 건강에만 이로운 것은 아님. 식물 자체의 아름다움과 편안함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도 함. - Q. 식물이 아플 때는 어떻게 신호를 보낼까? A. 식물은 잎이 아플 때는 잎 색깔이 변함. 사람도 음식을 먹으면 배설을 하듯 식물도 뿌리를 통해 물과 양분을 얻고 잎으로 물을 내뿜는 증산작용을 함. 하지만 물이 부족하면 물을 내뿜는 잎의 가장자리부터 누렇게 마르게 되는 것임. 이때는 화분에 물을 듬뿍 줘야 함. 반면 누렇게 변하긴 하지만 가장자리를 따라 마르는 것이 아니라 잎이 끝자락부터 누렇게 펴지기도 하는데 이때는 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양분이 부족해서이므로 이때는 질소가 포함된 깻묵비료를 구입해 토양에 넣어주면 됨. 뿌리가 아플 땐 잎이 오그라듦. 때에 따라 건조한 토양이 문제일 수 있지만 습한 토양이 원인인 경우가 더 많음. 물과 양분을 흡수하는 뿌리는 숨도 쉬기 때문에 뿌리가 물에 포화상태로 잠기면 뿌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병충해에 취약해지기 때문임.
체험활동 tip	- 화분은 나의 친구 ① 내가 만든 화분의 이름 지어보기 ② 화분을 어떻게 기를 것인지 나의 다짐을 적어보기 ③ 내가 만든 화분의 이름과 나의 다짐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 보기

자료: 한국농어촌공사(2020), 초등학교 도농교류 농촌체험프로그램,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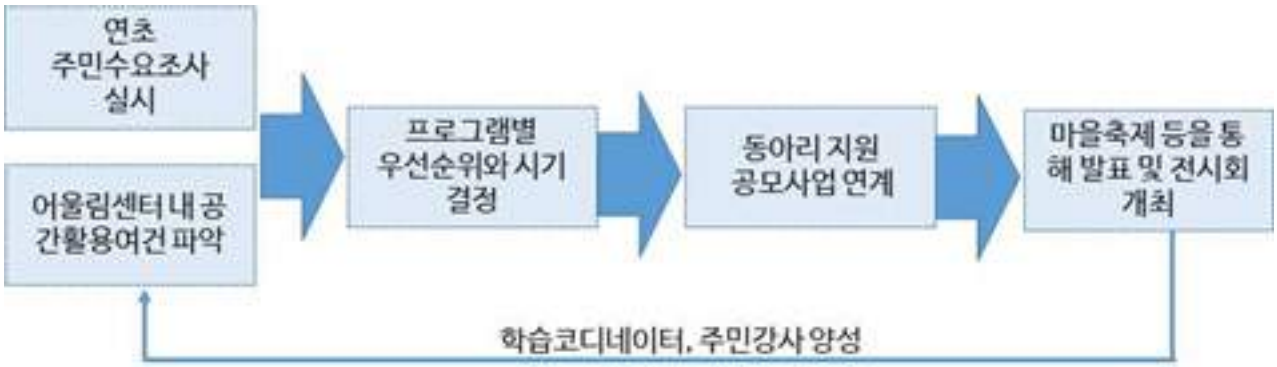
나. 주민 동아리 지원사업

① 개요

- 활용부문: 주민문화활동
- 위치: 어울림센터
- 마을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직접 향유하기 위한 주민들을 위한 동아리를 운영
- 주민들이 하고 싶은 놀이, 문화, 운동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어 문화학습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직접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운영함.

② 주요내용

- 1년 단위 주민동아리 지원사업 추진방법
  - 연초에 시행하는 마을대동회 등을 통해 주민들이 배우고 싶은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조사함.(간단한 설문조사 실시)
  - 수요조사를 통해 하고 싶은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어울림센터 등 학습공간의 여건에 맞춰 시행시기를 결정함.
  - 각종 동아리 지원사업 및 평생학습마을 지원사업 등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함.
  - 마을축제 등을 통해 발표 및 전시회 등을 가져 주민동아리활동에 참여한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함.
  - 주민동아리 운영이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마을학습코디네이터, 주민강사 등을 양성하여 마을내에서 학습-일-문화복지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함.



[그림 4-5] 1년 단위 주민동아리 지원사업 추진방법

- **합창단**
  - 황계마을 주민들 중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창단을 운영하여 연습과정에서 주민들의 문화적 생활을 돕고 마을행사 등에 공연을 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
- **정조대왕 마라톤**
  - 마을축제시 정조대왕 마라톤을 기획하여 마을주민들은 물론 인근지역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꾀함.
  - 황계마을주민들 중 마라톤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모여 마라톤 준비를 함으로써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감.
- **마을큐레이터, 마을유산 해설사 양성**
  - 문화교육을 통하여 황계마을박물관(가칭)안에서 전시물에 대한 설명과 마을사진 등 기획전을 구상할 수 있는 마을큐레이터를 양성
  - 마을주민들 중 마을역사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좌를 개설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조대왕 이야기길에서 마을유산이나 역사를 해설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 나감.
- **미술동아리**
  - 청년 예술가들과 연계하여 미술동호회를 운영하여 마을주민들의 문화적 성취를 이루어 나감.
  -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
- **봉제**
  - 마을주민들이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소품제작에서 시작하여 마을행사나 정조대왕 성황대제, 정조대왕능행차 등에 필요한 깃발, 소품 등을 제작하여 판매가 가능한 소득사업과 연계
  - 재봉틀과 같은 기자재 필요

[그림 4-6] 평생학습마을 공동체사업 사례

자료: 성가정 노인종합복지관, 당진시대

[그림 4-7]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미술동아리 활동

③ 운영주체

- **'화기치상' 황계주민협의체**

정선 레몬트리 협동조합

- 정선군 마을에 컨테이너를 짓고 지역의 엄마들과 공예를 시작
- 참여하는 인원이 늘어나자 정선터미널 2층에 레몬트리 협동조합(5명 조합원, 50명 회원)을 오픈하고 수공예활동과 프리마켓 등을 개최함.
- 현재 정선군 덕우리에 컨테이너를 활용한 '어울샘터'에서 활동
- 29세~46세의 다양한 연령대의 정선엄마들이 레몬트리 협동조합을 통해 제2의 삶을 시작함.
- 정선시 내 공방창업, 주민강사, 프리마켓 운영 등을 시작함.

다. 정조대왕 성황대제

① 개요

- 활용부문: 축제 및 행사
- 위치: 성황산(성황사), 황계동 일원
- 2019년에 시작한 정조대왕 성황대제를 이번에 발굴된 황계동 역사문화 콘텐츠를 덧붙여 프로그램을 더욱 풍성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함.

② 주요내용

- 조선시대 성황제사에 대한 기록 참조
  - 태조1년(1392년)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던 성황제사에 대하여 조정의 예제를 따르도록 했던 것[2]에 비추어 유교식 읍치 제사로 업그레이드 함.
  - 세종 25년에는 소재관이 아닌 일반사람이 지내는 것을 금함.
  - 행사 3일전에 신축된 성황사에서 신위인 '화성시 성황지신(城隍之神)'에 정조대왕 성황대제를 알리는 '발고제' 행사부터 시작함.
  - 정조대왕 성황대제의 절차 등은 마을협의체에서 의논하여 정함.

[그림 4-8] 제1회 정조대왕 성황제(2019)

2)신혜원(2017), "조선시대 성황제소의 혼란한 양상에 관한 연구", 아시아문화연구 제 44집, pp.130~133

● 강릉단오제의 국사성황제(國師城隍祭) 참조[3)]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2005년 등재)인 강릉단오제는 단오날을 전후하여 펼쳐지는 강릉지방의 향토제례의식임.
- 이 축제는 대관령국사성황모시기를 포함한 강릉 단오굿이 열리는 것으로 이중 국사성황제를 참조할 만함.
- 음력4월15일 대관령에 있는 성황사에서 유교식 제례를 지내며 대관령국사성황신은 강릉단오제의 주신인 연유로 초혼관은 강릉시민을 대표하는 강릉시장이 맡아 지내는 것이 전통임.

• 성황사: 건평 5평 정도의 기와로 되어 있으며, '성황사'라는 현판이 있고 당내 정면(북측)벽에는 제단이 있고 그 앞에 제상이 놓여 있음.

• 제례형식: 유교식

• 초혼관: 강릉시장

• 헌관, 제관 등 20여 명 필요

- 제물로는 떡, 청주, 우육, 우럭, 열기, 명태, 대구포, 문어, 계란과 과실로는 대추, 밤, 곶감, 사과 또는 배, 산자 또는 과자 그리고 소채류 약간을 쓰도록 함.
- 헌관은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각 1인이며 제집사는 집례·대축·찬인·봉향·봉로·헌폐·전폐·봉작·사준·동·서창 각 1명으로 정함.
- 헌관 급 제집사는 제전위원장의 망보로서 추천, 위촉하되 각 제례별로 구분함.
- 조전제[4)]의 초헌관

• 음력 5월 4일 강릉시장

• 음력 5월 5일 명주군수

• 음력 5월 6일 강릉경찰서장

• 음력 5월 7일 강릉소방서장 또는 기타 기관장

● 이밖에 시흥 군자봉 성황제(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9호) 등이 있으나, 이 성황제는 무속신앙과 연계되어 있어 읍치제사와는 거리가 있음.

---

3) (사)강릉단오제 위원회 홈페이지
(사)강릉단오제보존회(2009), 강릉단오제-제례전수교본

4) 음력 5월 4일부터 7일까지 단오제가 계속되는 동안, 아침마다 유교식 제사를 올리는 것을 말함.

자료: 강릉단오제 홈페이지

[그림 4-9] 강릉단오제 국사성황제 전경

강릉단오제 중 국사성황제 절차

자료: (사)강릉단오제 위원회

1) 시작

- 헌관(獻官)과 모든 집사(執事)는 문밖 제자리에 섬.
- 찬인(贊人)은 축관(祝官)과 모든 집사(執事)를 인도하여 자리에 나감.
- 모든 집사(執事)는 4번 절을 함.
- 세수하는 자리에 나아감→손을 씻고 닦음→모두 제자리에 섬.

2) 신을 뵈옵는 예

- 찬인(贊人)은 헌관(獻官)과 제관(祭官)을 인도하여 절하는 자리에 섬.
- 헌관과 모든 제관은 4번 절을 함.
- 국궁(鞠躬, 꿇어 앉음)→배(拜, 절을 함)→흥(興, 일어남)→배(拜, 절을 함)→흥(興, 일어남)→배(拜, 절을 함)→흥(興, 일어남)→배(拜, 절을 함)→흥(興, 일어남)→평신(平身, 몸을 바로 함)

–찬인은 헌관의 왼편에 나아가 행사를 봉행할 것을 알림.

3) 폐백을 드리는 예

- 찬인은 초헌관(初獻官)을 인도하여 세수하는 자리에 섬→홀을 띠에 꽂고 손을 씻고 닦음.
- 홀을 손에 들고 구사성황신위 앞에 나아가 북쪽을 향해 섬→꿇어 앉음→홀을 띠에 꽂음→ 봉향과 봉로가 신위 앞에 나아감→세 번 향을 올림→폐백을 헌관에게 전함→제관이 폐백을 받음→헌관이 신위 앞에 폐백을 드림→홀을 손에 들고 엎드림→일어남→몸을 바로함→제자리에 돌아가 섬.

4) 헌관이 드리는 예
- 찬인은 초헌관을 인도함.
- 국사성황신위 앞에 나아가 북쪽을 향해 섬→꿇어 앉음→홀을 띠에 꽂음→사전(司奠)이 보자기를 들어열고 술을 잔에 부음→봉작과 전작을 맡은 집사가 술을 붓는 곳에 나아감→술을 초헌관에게 드림→술잔을 헌관이 받음→초헌관이 술을 신위 앞에 올림→저를 신위 앞에 바로 놓음→덮개를 열음→엎드림→일어남→뒤로 조금 물러남→꿇어 앉음→모든 제관은 엎드림.
- 축관은 초헌관의 왼쪽에 나아가 동쪽을 향하여 꿇어 앉고 축문을 읽음.
- 홀을 손에 듦→엎드림→헌관과 모든 제관은 일어남→몸을 바로함→제자리로 돌아감→술잔을 물림.
- 아헌례와 종헌례는 초헌례와 동일하나 축문을 읽는 것만 없음.
- 헌관은 네 번 절을 함.

5) 음복하는 예
- 찬인은 초헌관을 인도하여 음복하는 자리에 나아감.
- 서쪽을 향하여 꿇어 앉음→홀을 띠에 꽂음→집사자는 복주를 부음→집사자는 헌관의 왼쪽에 나아가 북쪽을 향해서 꿇어 앉음→술잔을 헌관에게 드림→초헌관이 술잔을 받음→초헌관이 복주를 맛봄→집사자가 술잔을 받음→축관은 신위 앞에 나아가 제사지낸 고기를 덜어옴→축관은 제사지낸 고기를 헌관에게 드림→헌관이 제사지낸 고기를 받음→집사에게 제사지낸 고기를 돌려줌→집사자는 제사지낸 고기를 받음→축관이 술붓는 곳에 갖다 둠→홀을 손에 듦→엎드림→일어남→몸을 바로함→제자리에 돌아감.

6) 폐백과 축문을 소각하는 예
- 찬인은 초헌관을 인도하여 불태우는 자리에 나아감.
- 축관은 광주리에 축문과 폐백을 담아서 서쪽 계단으로 나아감→불태우는 자리에 감→축문과 폐백을 불태움→제자리에 돌아감.

7) 신위를 사뢰하는 예
- 수저와 저를 물림→뚜껑을 덮음→찬인은 헌관 왼쪽에 나아가 예가 끝난 것을 알림→헌관과 모든 제관은 네 번 절을 함→헌관과 모든 제관은 물러감→축관과 모든 집사는 네 번 절을 함→제수를 물리고 사우문을 닫고 물러나옴.

※참조(대관련국사성황제 축문)

모년 4월15일
대관령국사성황님께 아뢰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데 존령님은 저희들의 종요로운 자리에 계시옵니다. 고려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사를 빠뜨리지 않음이 없었사오니 존령님께 뵈올 때마다 감응하시어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여름을 맞았습니다. 모든 농사가 잘되도록 하여 주시고 재앙과 근심을 막아주시옵소서, 성황님께서는 저희와 가까이 계시면서 어느 때나 소상히 일러주시니 감히 공경히 아니함이 있겠습니까. 구례를 따르고 좇아 정성껏 제수를 마련하여 올리오니 성황님께서는 꼭 흠향하시옵소서.

③ 운영주체

- **'화기치상' 황계 주민협의체**

자료: 강릉시청

자료: (사)강릉단오제 위원회

[그림 4-10] 강릉단오제 국사성황제 복식

자료: 강릉시청

[그림 4-11] 강릉단오제 국사성황제 절차 재현

라. 정조능행차 마을축제

① 개요

- **활용부문: 축제 및 행사**
- **위치: 황계동 일원**
-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시기에 맞춰 부대행사로서 마을축제를 시행함.**
  -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시기에 맞춰 정조마을로서 황계동 일대의 마을축제를 개최함.
  - 초기에는 도시재생사업대상지를 중심으로 하되 점차 지역을 넓혀 황계동 전체로 확대해 나감.
  - 정조마을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축제에 응용하고, 주민문화교실에서 익힌 솜씨를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
  - 예술가 단체와 함께 운영하는 프로그램, 전문가와 함께 운영하는 정조대학 등을 통해 만들어진 콘텐츠를 마을축제시 시행함.

② 주요내용

- **정조마을 체험프로그램을 마을축제에 연계**
  - 정조대왕과 수호군마을 이야기 연극공연
  - 정조대왕과 함께 점심식사
  - 삼색다식, 상화꽃떡 만들기 체험
  - 조선시대 의상 입어보기 등
- **주민동아리 활동 공연 및 전시회 개최**
  - 합창단 등 주민동아리 활동을 통해 갈고 닦은 솜씨를 발휘하는 장을 마련함.
  - 주민동아리활동 중 제작활동을 한 주민들은 전시회를 개최함.
- **어울림센터 내 작업실을 사용하는 예술가와 함께하는 주민교류 프로그램 시연**
- **방문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예술 프로젝트 시행**
- **정조대학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정조 세미나 개최**

③ 운영주체

- **농업회사법인**

2) 예술가 단체와 함께 운영하는 프로그램

가. 황계동 창작극

① 개요

- 활용부문: 예술창작, 교육 및 체험
- 위치: 어울림센터 내 다목적 강당
- 정조대왕과 황계동마을의 역사적 관련성을 창작극으로 재탄생새켜 다양한 운영프로그램에 적극 활용함.

② 주요내용

- 화성시 관내 연극인들과 함께 정조대왕과 황계마을의 역사문화콘텐츠를 창작극으로 만들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함.
  - 화성시 관내 '극단 민들레'가 운영하고 있는 민들레 연극마을 등이 있으므로 이들과 함께 창작극을 만들어 마을내에서 정기적인 공연 및 각종 행사에 프로그램으로 활용
  - '민들레 연극마을(우정읍 이화뱅곳길 22)'은 주축인 극단 만들레가 농촌 지역의 맥락(context)을 활용해 공연과 체험, 축제를 만들어 마을 주민의 소통과 화합을 이루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모델을 창출한 사례
- 정조대왕의 관점이 아니라 황계마을의 능지기(수호군)들의 관점에서 새롭게 정조대왕의 위민정신 등을 녹아내는 창작극으로 재탄생시킴.
  - 사도세자의 능원이장과 정조대왕의 배려로 탄생한 능지기마을
  - 13번의 정조대왕 능행차를 지켜보며 묵묵히 넓은 능원을 순찰하고 직무에 충실했던 마을 사람들
  - 갑작스러운 정조대왕의 붕어로 국장행렬을 지켜보던 마을사람들
  - 그 아들인 순조대왕을 기다리던 마을사람들
  - 세월이 흘러 능참봉의 횡포에 맞서던 마을사람들

③ 운영주체

- 해당 극단

나. 공공예술프로젝트

① 개요

- 활용부문: 예술창작
- 위치: 황계동과 공군비행장 경계 벽(先 군부대 협의), 황계동 내 참여의사가 있는 사업장 등 황계동 일원
- 축제기간을 전후하여 참여객이 직접 만들어내는 인터렉티브형 공공예술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지역주민간 또는 지역주민과 방문객 간의 소통의 장치 역할을 함.

[그림 4-12] 인터렉티브형 공공예술프로젝트 설치위치

② 주요내용

- 공군비행장과 황계동의 경계를 나타내고 있는 벽을 대상으로 참여객들이 즉흥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인터렉티브형 공공예술프로젝트를 실시
  - 공공예술프로젝트 기획자 및 예술가들에 의해 다양한 설치물 가능
  - 참여자는 놀이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젊은 방문객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함.
  - 정조 콘텐츠 뿐 아니라 비행장, 소음, 전쟁과 평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예술로 풀어 기억을 남기는 장소로 활용
  - 일방적인 관람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 그림벽화는 지양함.

③ 운영주체

- 해당 단체

④ 사업비 확보방안

- 화성시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지역예술활동 지원사업

Akemi Maegawa and Jackie Hoysted,Free Space, U.S.A.	Studio TheGreenEyl, Appeel
MultiTaction iWall , Technische Universität Dresden	Interactive Pixel Wall, old Olympic Park in Stratford, England
Wishing Wall Exhibit, Canadian Cultural Mosaic Foundation	Before I die, Candy Chang, New Orleans

[그림 4-13] Interactive Art Wall 사례

다. 과정 중심의 커뮤니티 아트프로그램

① 개요

- **활용부문: 주민문화활동**
- **위치: 황계동 전역**
- **작가(artists), 교육자(educators), 매체제작자(media makers) 등 전문가들과 황계동 마을주민들이 함께 예술 등을 매개로 창작활동에 참여하여 공동체의 사회문제 등을 해결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함.**

② 주요내용

- **커뮤니티 아트프로그램의 개념**
  - 공동체적 의미를 바탕으로 지리적 특성, 주민정서, 지역공간형성 등의 지역의 역사적 배경을 통합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공동체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는 예술
  - 공동체의 구성원이 직접 예술창작에 참여하거나 예술가와 협업하여 적극적인 공동체 활동을 확대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문화적 활동을 하는 것임.

- **과정중심의 커뮤니티 아트프로그램 기획**

① 사전워크숍개최

- 주최: 문화재단
- 공모사업 참여대상자: 작가(artists), 교육자(educators), 매체제작자(media makers) 등으로 확대
- 기획대상: 예술, 교육, 제작 등 다양한 부문으로 확대
- 내용

✓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으로써 사전 설명회 및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황계동 답사로 구성

✓ 황계동 마을답사시 황계동의 역사문화적 자산 및 사업대상지 현황(비행장 소음) 등을 공유

✓ 황계동의 역사문화 요소 뿐 아니라 자연, 사회적 요소(전쟁과 평화, 비행기 소음 등) 다양한 주제를 포괄

✓ 황계동 마을주민들에게 커뮤니티 아트 프로그램 사업진행에 대한 홍보

② 공모사업 참여대상자들의 기획서접수

- 접수: 문화재단

③ 심사 및 발표

- 주관: 문화재단

- 심사자: 전문가, 도시재생사업 총괄코디, 황계동 주민협의체 대표

- 심사기준: 실현가능성, 장소성, 창의성, 기대효과 등

④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개최

- 주최: 문화재단

- 장소: 황계동 어울림센터, 마을박물관

- 내용

✓ 각 당선자들의 기획서에 대한 개별발표와 이에 대한 자유토론 및 보완점 도출

✓ 각 기획안에 따라 참여가능한 주민단체(동아리) 소개 및 연결

✓ 각 기획안별 주민들과의 대화시간 마련

⑤ 상금교부

- 지급: 문화재단

- 지급방법: 2회 분할 지급

⑥ 각 기획안별 개별 진행

- 기간: 3개월

- 진행방법

✓ 3회 이상 주민과 소통 및 공동참여과정 포함

✓ 전과정 사진촬영 및 회의록 작성(향후 아카이브 전시)

✓ 결과물 제작 혹은 제출

⑦ 사후 워크숍 개최(황계동 마을잔치)

- 주최: 문화재단, 황계동 주민협의체

- 내용

✓ 참여대상자들과 주민들이 모두 모여 프로그램 결과물에 대한 자긍심고취

✓ 마을잔치 형태로 진행

③ 운영주체

- 화성 문화재단

[그림 4-14] 과정중심 커뮤니티 아트프로젝트 시행방법

[표 4-8] 화(華)화(畵)화(和)프로젝트(화성시 문화재단, 2013년) 사례 1

프로젝트명	들꽃마을, 상기리	단체명	공터아트
운영지역	상기1리 마을회관		
운영기간	2013.09.11 ~2014.02.		
참여대상	주민, 어르신		
기획의도	화성시 봉담읍 상기리는 본연의 생태가 상처받지 않고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 상기리의 생태를 상징하는 야생화들을 중심으로 마을 회관 주변에 설치하며 상기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과 자연 생태와의 관계를 살펴본다.		
작업장르	생태 조각과 비디오 영상		
운영 흐름도	마을 주민과의 친밀감 형성 ▶ 마을 생태정보 수집 및 작업계획 수립 ▶ 주민 인터뷰 및 비디오 영상 작업 ▶ 야생화 설치 작업 ▶ 마무리 및 주민과의 작품공유		
추진 계획	– 대상모집 계획 : 마을 이장 및 노인회장의 도움을 받아 인터뷰 및 작업 참여 주민 섭외할 예정 – 프로젝트 내용 : 비디오 영상 및 야생화 설치 작업 · 제작 : 비디오 인터뷰를 통해 마을 주민들에 관한 영상 작품, 상기리의 토종 야생화 작품 설치 · 설치 : 토종 야생화들을 마을회관 주변으로 심고 다듬어 생태 작품 설치 · 종료행사 : 마을 주민들과 함께 작품 감상 및 토론 · 기록 : 비디오 및 스틸사진		

[그림 4-15] 들꽃마을 상기리 프로젝트(2013)

[표 4-9] 화(華)화(畵)화(和)프로젝트(화성시 문화재단, 2013년) 사례 2

프로젝트명	마을회관 현판만들기 “ 두 개의 현판 데코레이션 프로젝트”	**단체명**	장지아
운영지역	마을회관 1 (화성시 동탄면 금곡리 726-2)		
운영기간	제작기간 2013.09.11 ~ 2013.10.25 설치기간 2013.11.05		
참여대상	마을회관 이용자 (노인정 할머니들)		
기획의도	마을회관은 멀리서 보면 나무 현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나무로된 검정색글씨의 현판은 가장 일반적이기도 하지만 무미건조한 이곳의 성격을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는 부분이다. 기존의 마을회관 현판을 빌려가 여성들의 자신의 장신구에 붙이는 다양한 비즈와 크리스탈, 구슬, 조화 등으로 현판의 글씨를 매우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 볼 예정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공간의 성격을 다르게 드러낼 수 있는 현판의 기능을 이용하고 할머니들이 이 공간을 출입할 때 마다 보고 즐길만한 즐거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다른 노인정 마을 회관들과는 다른 할머니들만의 공간으로써 특별하게 바뀌어진 현판으로 변화를 주고 싶다.		
작업장르	설치		
운영 흐름도	운영지역 분석 ▶ 참여대상 의견수렴 ▶ 설치물 컨셉 및 디자인 ▶ 작품제작 ▶ 설치		
추진 계획	- 대상모집 계획 : 수시로 마을 회관 방문. 할머니들의 의견수렴 - 프로젝트 내용 : 원목나무, 크리스탈, 구슬, 조화 등 · 제작 : 2013.09.11 ~ 2013.10.25 · 설치 : 2013.11.05 · 종료행사 : 2013.12.20 · 기록 : 방문, 제작, 설치 사진촬영		

[그림 4-16] 두 개의 현판 데코레이션 프로젝트(2013)

[표 4-10] 화(華)화(畵)화(和)프로젝트(화성시 문화재단, 2013년) 사례 3

프로젝트명	장소와 장소상실	단체명	임지은
운영지역	장지리 마을회관		
운영기간	제작기간 2013.09.23 ~ 2013.12.14		
참여대상	장지리 마을 어르신		
기획의도	"시대와 장소에 대한 정직한 목격자" 언제고 개발이 시작되면 사라질 장소에 대한 기록. 공간(장소)에는 그곳에 거주해 온 사람과의 상호작용으로 장소와 혼과 장소감이 깃들어 있다. 삶의 터전을 개발의 대상으로서가 아닌, 개인의 삶의 일부로서 인식하고 그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장소와 개인의 관계를 회복하는 치유의 과정이 되고자 한다.		
작업장르	시각, 설치		
운영 흐름도	사진수업을 통한 주민 친화과정 ▶ 장소와 관련된 개인들의 스토리 수집, 사진 기록과정 ▶ 수집된 스토리를 기반으로 이미지 문패 제작 ▶ 장소와 개인의 포트레잇 제작 ▶ 장소에 대한 관찰, 시각적 기록, 장소와의 관계회복		
추진 계획	- 대상모집 계획 : 마을 회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접근 - 프로젝트 내용 : 이미지 문패(캔버스에 프린트) 포트레잇(인화지에 프린트) · 제작 : 2013.10.21 ~ 11.23 · 설치 : 2013.11.30(토) · 종료행사 : 2013.12.14(토) · 기록 : 사진, 글		

[표 4-11] 화(華)화(畵)화(和)프로젝트(화성시 문화재단, 2013년) 사례 4

프로젝트명	셰익스피어, 선감도에 오다	단체명	김태린
운영지역	대부도 선감동 마을일원		
운영기간	2014.12. ~ 2015.05.		
참여대상	작가와 지역 주민분들		
기획의도	마을 커뮤니티를 주제로 한 '아지타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선감도 주민과 함께 만드는 공연을 전제로 기획하였다.		
작업장르	커뮤니티 아트 : 주민참여 연극 프로젝트		
운영 흐름도	사업지 답사, 지역교감 ▶ 작품컨셉 관련 주민미팅 후 배우확정 ▶ 문기식옹 리어왕역 연극연습 ▶ 전문스텝과 주민이 함께 만드는 공연 ▶ 오픈 스튜디오 연계 결과발표전		
추진 계획	- 작품결과 : 연습과정이 담긴 다큐영상 관람. '셰익스피어, 선감도에 오다 - 리어왕' 공연 -특징 : 예술의 주체에 관한 새로운 아젠다의 세팅을 통한, 예술생산의 주체와 소비의 주체로 인식되는 예술가와 비예술가의 구분속에서 예술 생산경험이 섬노인으로 대변되는 문화소외계층에서 또 그 주변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혹은 미치지 않는가를 참여관찰 한 작업이다.		

[그림 4-17] 화화화 프로젝트 아카이빙전(2014)

라. 황계동 예술가 작업실(청년예술가 참여 프로그램)

① 개요

- 활용부문: 예술창작
- 위치: 어울림센터
- 어울림센터내 청년예술가 작업실을 확보하여 주변의 청년예술가들이 황계동 주민들과 어울려 예술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함

② 주요내용

- 어울림센터 내 예술가 작업실 확보(도시재생사업 연계)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입주작가 1인~2인에게는 최대 3개월씩 작품활동을 하도록 작업실, 소정의 창작지원금을 제공
  - 만 35세 이하의 예비 청년예술가들을 중점 발굴하여 새로운 실험과 도전이 가능하도록 함.
  - 예술대학 및 유사학과 졸업자 뿐 아니라 일반 청년들 중에서도 포트폴리오(20점 이상) 제출이 가능한 자로 확대함.
  - 회화, 조각, 사진, 공예 등 폭 넓은 분야의 예비예술인들이 거쳐갈 수 있도록 함.
- 오픈 스튜디오
  - 입주작가들은 입주기간내 작품성과물을 정리하여 1회 오픈 스튜디오를 개최함.

- 작업실을 공개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창구를 마련함.
- 청년작가 입장에서는 작품활동을 정리하여 영상으로 기록함으로써 향후 프로모션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

• **릴레이 전시회**

- 1년 동안 황계동 예술가 작업실 프로그램에 참여한 4명~8명의 청년작가들 릴레이 형식으로 황계동에서 전시회 개최
- 작가별로 메이킹 영상(작가 인터뷰형식의 작품소개)을 제작하여 전시장소에 설치함으로써 일반인들도 작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황계동 미술 아카데미 운영**

- 입주작가들은 어울림센터에서 재능기부형태로 희망하는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미술(사진 포함) 아카데미를 운영
- 입주기간이 끝난 작가들이라도 희망하는 작가들을 대상으로 주민동아리 활동 사업으로 일정 강사비를 지급하고 지속적인 미술아카데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황계동 문화 나눔의 날**

- 지역주민과 교감할 수 있도록 1년 단위로 황계마을미술관을 거쳐간 입주 예술가들이 모여 황계동 주민들과 소통하는 오픈 행사를 실시

③ 운영주체

• **해당 예술가**

• **화성시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지역예술활동 지원사업**

3) 전문가(대학)와 함께 운영하는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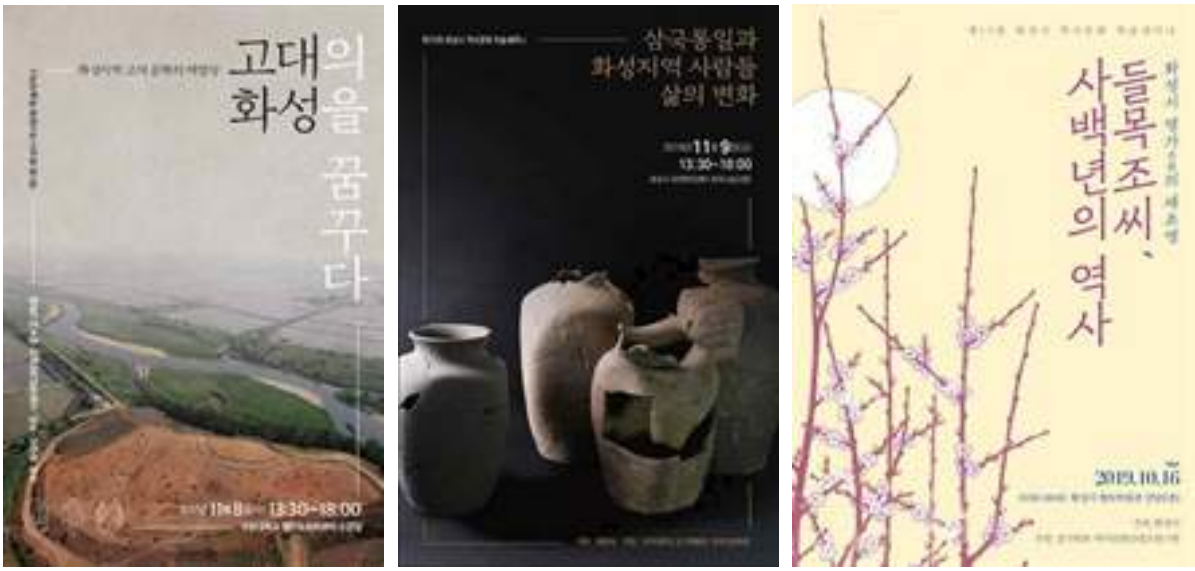
가. 정조학당

① 개요

- 활용부문: 주민문화활동
- 위치: 어울림센터
- 정조대왕 관련 콘텐츠의 중요 발신지로서 황계동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조학당을 운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함.

② 주요내용

- 정조대학운영
  - 정조에 관심이 있는 일반시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정조학 강좌 개설
  - 정조를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강의내용 발신
-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정조대왕 관련 세미나 개최
  - 정조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 담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세미나 개최
  - 1년 1회 전문가 초청세미나 개최



[그림 4-18] 화성시 역사문화학술세미나(화성시 문화유산과)

- **사회활동가 교육프로그램 운영**
  - 정조의 위민정신을 이어받은 사회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정조마을신문발행**
  - 정조학당 운영위원들을 주축으로 정조대학운영 결과, 정조백일장, 세미나, 기타 행사들에 관한 소식을 마을신문으로 발행

③ 운영주체

- **한국연구재단 인문도시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대학과 마을주민협의체가 합동으로 운영**
- **인문도시지원사업(한국연구재단)**
  - 대학·지역사회 간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인문자산을 발굴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인문자산에 대한 지역민의 접근성 제고
  - 지역 내 인문역사문화 자산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지역의 인문학적 브랜드를 살릴 수 있는 강좌, 체험, 축제 등의 프로그램 실시(인문주간, 성과교류회 참여 필수)
  - 지자체(교육청 등), 지역사회기관(도서관, 박물관 등), 지역 내 사단법인 등과의 협력 필수
  - 인문브랜드: 해당 지역의 대표적 유, 무형 인문학 자산을 브랜드로 개발하여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인문강좌: 초·중·고 학생, 소외계층 및 일반 시민 대상의 강좌로 지역의 특성과 연계
  - 인문체험: 지역의 인문역사문화의 유, 무형 자산을 이용하여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인문학적 사고와 방법 등을 고취시킬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 실시
  - 인문축제: 인문주간 및 지역의 인문학 관련 축제기간동안 지역주민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인문학적 사고와 방법 등을 고취시킬 수 있는 강좌/체험/전시/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
  - 사업비: 140백만 원 이내/년
  - 지원기간: 1년 또는 3년
  - 신청자: 사업단내 주관연구기관인 국내대학(단과대, 학과 및 부설기관)

Ⅴ 운영방안

1. 운영주체 도입방안
2. 운영활성화 방안
3. 사업추진체계 구축방안

Ⅴ. 운영방안

1. 운영주체 도입방안

1) 기본방향

- **본 장에서는 주민자치사업을 중심으로 한 운영주체도입방안을 검토함.**
  - 주민자치사업으로는 정조마을 문화체험프로그램, 주민동아리 지원사업, 정조대왕 성황대제, 정조 능행차 마을축제가 해당됨.
- **주민자치사업은 다시 수익사업, 문화교육, 행사 및 축제로 나누어 운영주체를 검토함.**
  - 수익사업: 정조마을 문화체험프로그램
  - 문화교육: 주민동아리 지원사업
  - 행사 및 축제: 정조대왕 성황대제, 정조능행차 마을축제
- **단기운영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차년도 도시재생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제안**

[표 5-1]프로그램별 운영주체

	사업세부내용		위치	운영주체
주민자치사업	수익사업	정조마을 문화체험프로그램	정조대왕 이야기길, 어울림센터, 황계동 전역	농업회사법인
	문화교육	주민동아리 지원사업	어울림센터	주민협의체
	행사 및 축제	정조대왕 성황대제	수변공원, 보호수	성황대제 추진위원회
		정조능행차 마을축제	황계동 전역 정조문화공원	정조능행차 마을축제 추진위원회
예술가 단체와 함께 하는 사업	황계동 창작극		어울림센터	해당극단
	공공예술프로젝트		황계동과 공군비행장 경계 벽	해당단체
	과정중심의 커뮤니티 아트프로그램		황계동 전역	문화재단
	황계동 예술가 작업실		어울림센터	해당 예술가
전문가와 함께 하는 사업	정조학당		어울림센터	대학+주민협의체

[표 5-2]주민자치사업 프로그램별 연차계획

사업세부내용		1 년차(2021)	2 년차(2022)	3 년차(2023)	운영주체 형성
수익사업	정조마을 문화체험프로그램 (도시재생사업으로 준비 중)	•농업회사법인 결성	•체험프로그램 기획 및 시범운영	•어울림센터 완공과 함께 문화체험프로그램 시범운영	농업회사법인
문화교육	주민동아리 지원사업	•합창단 학습동아리 지원 공모사업 추진	•합창단 학습동아리 지원 공모사업 추진	•어울림센터 완공과 함께 다양한 주민동아리 지원 공모사업 추진	주민협의체 →주민동아리
행사 및 축제	정조대왕 성황대제	•읍면동 자생특화축제 공모사업 추진	•읍면동 자생특화축제 공모사업 추진	•읍면동 자생특화축제 공모사업 추진	성황대제 추진위원회
	정조능행차 마을축제	-	-	•농업회사법인을 중심으로 마을축제 기획 •축제기획관련 역량 강화교육	정조능행차 마을축제추진위원회

2) 수익사업 운영주체

- **황계동의 경우, 단기적으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노하우를 축적한 뒤,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자'를 지정받아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감**
  - 마을협의회는 정조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주민들을 중심으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
  - 황계동의 경우, 비농업인도 출자할 수 있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이 적절함.
  - 농업회사법인은 마을시설을 활용할 경우, 기금적립 또는 임대료를 납부하는 규약을 체결하는 것을 권장

[표 5-3] 농업회사법인의 특성

구분	농업회사법인(주식,유한,합명,합자회사)
관련 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도적 기반)
설립목적	■기업적 농업경영(법인의 이익증대)
설립자격	■농업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설립요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립하되, 비농업인은 총출자액의 100분의 90까지 출자 가능(※단, 총출자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 원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함)
발기인수	■합자회사 : 유한·무한사원 각 1인 이상 ■합명회사 : 무한책임 사원2인 이상 ■유한회사 : 유한책임 사원2인 이상 ■주식회사 : 유한책임 발기인1인 이상
법인성립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 *지자체 설립허가 사항 아님
법인성격	■기업적 경영체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 준용
사업범위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농어촌민박사업 제외)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및 보관사업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 (동법 시행령 제19조)

- **중장기적으로 수익사업운영주체는 어울림센터 등을 중심으로 문화체험 및 농업기반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아 운영하는 것을 검토**
  - 황계동의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농촌지역에 해

당

- 마을공동시설인 어울림센터, 정조대왕 이야기길, 성황사 등을 이용하게 되므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받아 운영하는 것이 적합

[표 5-4] 농업인 및 농촌지역의 정의

구분	농업인	농촌지역
근거 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 2015. 12.23
정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① 농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15-171호) 1.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시군구)[1]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 황계동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농촌지역에 해당함.**

1)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의 정의**

  - 해당법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 5호
  - 마을협의회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말함.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을 위한 추진절차**

① 마을협의회 구성

- 구성원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것
- 운영조직 구성: 마을별 상황에 맞도록 구성, 조직구성도 필수사항

② 마을협의회 규약 만들기

- 사업목적, 협의회 대표자, 마을구성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및 제명 규정 필수

[표 5-5] 필수요소를 포함하는 장별 구성 예

장별 구분	내 용
총칙	목적, 마을의 정의, 규약의 적용, 규약의 준수의무
회원의 관리와 의무	회원의 요건, 가입 및 탈퇴, 권리, 제명, 자격상실, 회원이 지켜야 할 사항
마을협의회 운영	총회, 대표선출 및 임명과 임기, 임원선출 및 임무, 조직 구성, 마을협의회 운영
체험운영	체험비 산정 및 운영, 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영, 체험진행, 체험운영인력 사용 등
회계관리	회계범위, 회계관리 및 결산
시설물 유지 및 관리	시설물 범위, 시설별 관리, 안전관리, 위생관리

③ 협정서 만들기

- 개별가구 협정서: 주민등록상 '가구' 대표의 성명, 주소, 서명날인
- 마을협정서 총괄표: 협의회 참여와 별도로 전 가구의 총괄표에 의한 의사표시

⇒ 1/3 이상의 찬성이 필요

④ 사업계획서 작성

- 마을 여건에 맞도록 작성하되 필수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

[표 5-6] 사업계획서 세부항목 예

구성의 순서	세 부 항 목
사업목적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운영목적
일반현황	마을현황: 마을명칭, 가구(인구)수, 농지현황, 특산물, 가구별 연평균소득 등 관광자원: 마을의 역사, 자연경관, 전통문화·유적·유물 등
조직현황	조직근거, 참여인원, 조직의 현황 및 역할, 회원현황 등
시설별 내용과 운영계획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신청 서식에 따라 생활편의시설, 농촌체험기반시설, 마을공동 시설 중 숙박서비스시설, 음식제공 및 즉석식품 제조·판매·가공시설로 구분하여 도농교류촉진법 시행령 7조 영업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 (※ 설치완료된 시설만을 기재하고, 숙박시설은 면적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소방시설 설치내역 기재)
프로그램 운영계획	연중 프로그램, 계절별 프로그램, 교육과정 연계프로그램
운영자금 조달계획 및 수익배분계획	체험, 숙박, 음식제공 등을 통한 수익창출 계획과 수익에 대한 배분계획을 제시

③ 지정신청서 제출하기(서식) ⇒ 시 농정담당

- 마을현황: 가구, 인구수, 농지면적, 체험 참여가구수 기재
- 지원사업명: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사업(해당될 경우만 기재)
- 사업개요: 체험, 관광, 농산물 판매 등 기재
- 시설내용(뒷면): 사업계획서 상에 기재된 내용을 요약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의 지정

- 해당법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 5조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
- 필요서류

✓ 마을협의회: 사업목적, 대표자, 구성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규약 또는 정관

✓ 마을협의회와 마을전체 가구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은 협정서

✓ 마을협의회의 과반수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시설별 내용 및 운영계획, 운영자금 조달계획

과 관련된 서류

-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시 효과**

① 일정규모 이하로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적용배제(동법 제 8조)

-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하인 폐교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경우
- 연면적이 합쳐서 2천 제곱미터 이하인 마을회관, 체험관, 경로당, 건강관리실 등의 마을 공동시설을 각 시설별 연면적 500㎡ 이하의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다만, 총 숙박서비스시설의 연면적의 합이 1,500㎡ 이하여야 함.)

※지정받은 마을은 일정 수준의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함.

② 일정규모 이하의 승마장을 운영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배제(동법 제9조)

- 3,000㎡ 이하의 실외승마장
- 1,500㎡ 이하의 실내승마장

③ 체험 및 휴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음식을 제공하거나 지역 농림수산물로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 영업시설기준을 별도로 지정(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동법 제10조)

- 음식 및 즉석식품을 위생적으로 제조·판매·가공하고, 원·재료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출 것
- 음식 및 즉석식품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조리·세척하는 시설을 갖출 것
- 음식 및 즉석식품의 제조、판매、가공장소는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할 것
- 수돗물 또는「먹는 물 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출 것. 다만, 인근에 급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출 것.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는 경우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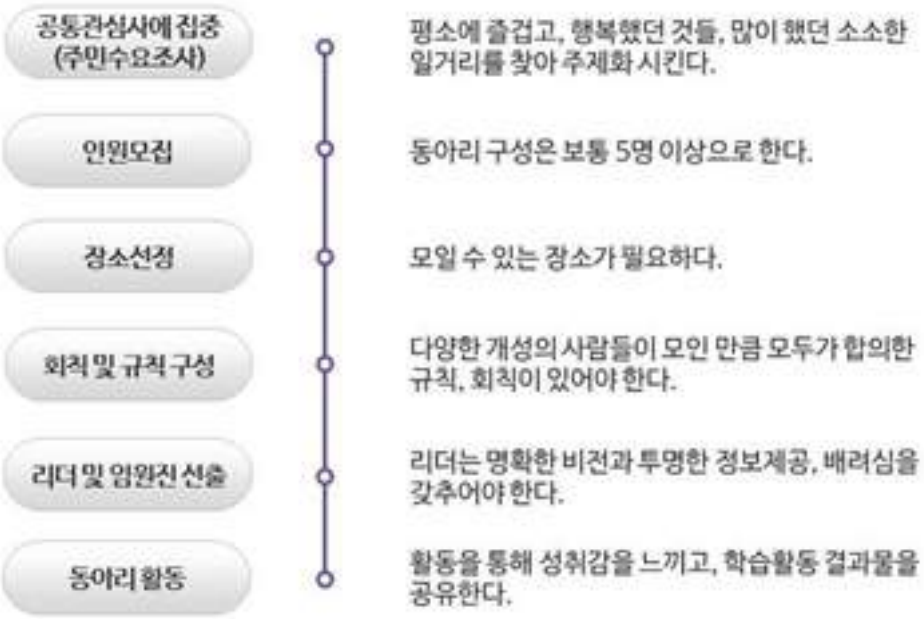
※ 영업신고는 득하고 운영하여야 함.

④ 각종 농촌체험프로그램의 수업인정 및 봉사활동의 인정가능

[그림 5-1] 정조대왕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방법

3)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주체

- **초기단계에는 '화기치상' 황계주민협의체가 주체가 되어 주민동아리 형태로 운영**
  - 연초 마을회의에서 주민 동아리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 뒤, 시간과 장소를 결정함.
  - 주민협의체에서는 주민동아리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운영비를 확보하고 강사를 섭외함.
  - 결성된 주민동아리별로 동아리 리더를 결정하여 동아리 회원 연락 및 관리를 함.



자료: 양주시 평생학습동아리 가이드북

[그림 5-2] 주민동아리 조직단계

- **점차 역량있는 주민들 중 '학습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생학습마을로 발전시킴.**
  - 주민동아리로 시작된 문화교육프로그램을 점차 '평생학습마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학습코디네이터'를 발굴 및 양성
  - '학습코디네이터'란 주민들의 학습을 계획하고, 조직하며, 관리하는 마을학습전문가를 의미하며, 특히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함.
  -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해 학습코디네이터(마을당 1인)의 인건비(월 179.5만원 이내[2], 2020년 기준) 확보가능
  - 학습코디네이터가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는 마을자원찾기, 네트워크 구성,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성인학습자 상담, 주민요구조사, 기획 및 운영이 해당됨.

2) 주 40시간, 보험료·세금 공제전 기준

- 프로그램 운영 1차 년도: 학습코디네이터 양성을 위하여 예비 학습코디네이터가 ①시군 학습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을 수료하고 ②주민동아리 활동을 담당
- 프로그램 운영 2차 년도: 전문적인 ③상근 학습코디네이터(인건비 지급)를 배치하기 위하여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에 공모하고 학습코디네이터는 ④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

(단기) (중장기)

[그림 5-3]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주체

평생교육사

- 과거 사회교육전문요원으로 칭해왔으며, 점차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0년 개정 시행된 평생교육법에 의해 평생교육사로 명칭이 변경된 자격
-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 자격으로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분석, 개발, 운영, 평가, 컨설팅과 학습자 상담 및 교수 등을 수행

등급	자격요건
1급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평생교육관련업무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2급	-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 30학점을 이수한 자 -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평생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3급	-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21학점 이수한 자

가평 청평면 대성1리 소돌마을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 2015년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에 선정
- 소돌마을의 학습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주민 회의체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사항을 취합한 후 다수결에 따라 결정함.
-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통해 '1주민, 1강사, 1자격증 취득'이라는 목표를 세움.
- 마을에서 커피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주민들은 인근에 주민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에 카페를 차린 사례도 있음.
- 매년 5개 이상 학습동아리가 활동하면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지역문화행사나 대회에 참가하여 공연을 하고 있음.
- 초청공연 및 가평군 문화행사(길거리공연, 가평군어울림마당, 푸른 연인예술제, 행복마을 콘서트 등) 참여, 동아리활동(야구, 손뜨개, 노인회 등)
- 주민참여는 대성1리 마을인구 419명 중 100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음.
- 학습코디네이터는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사업이 시작된 해부터 2명이 배치되었고 비상근으로 근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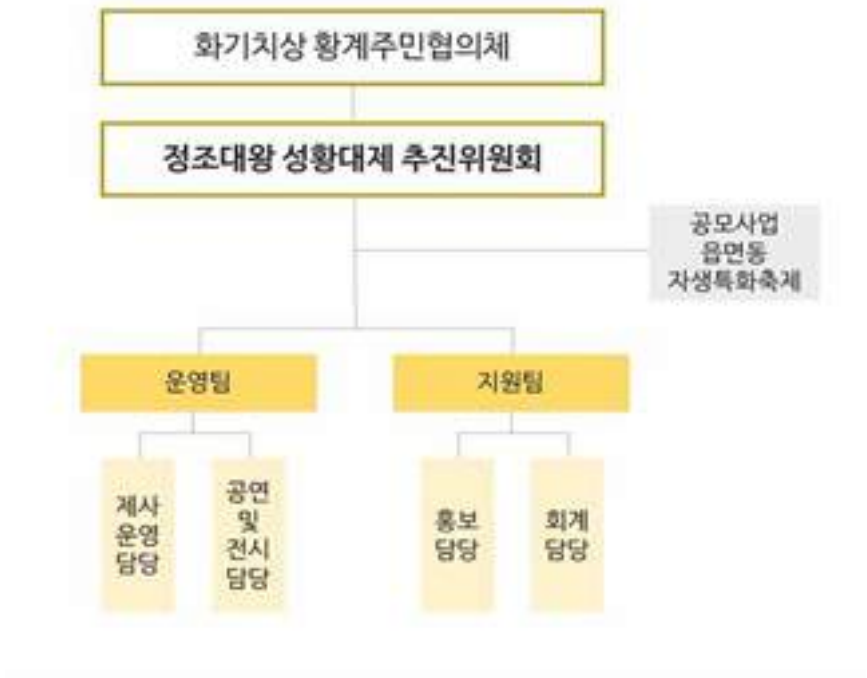
<대성1리 주민 자격증 취득 현황(2016 기준)>

자격증명	취득자수(명)	비고
바리스타 2급	85	국내 최초 마을회관 시험장
바리스타 감독관	1	
커피아트 감독관	1	
커피 핸드드립 감독관	1	
한자진흥회 6급	26	국내 최초 마을회관 시험장
인성지도자	16	한국평생교육진흥원
에너지관리사	9	국가시험
요양보호사 1급	4	국가시험

4) 행사 및 축제프로그램 운영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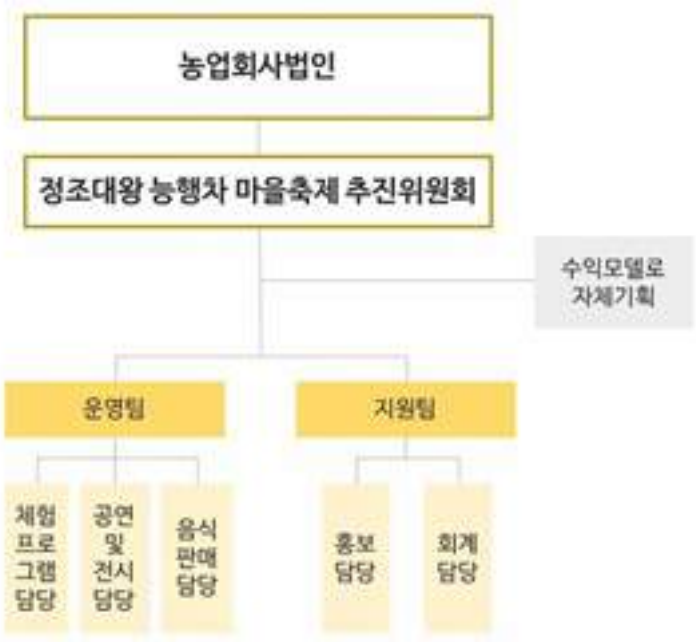
- **황계동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구상에 따르면 매년 가을에 2차례 마을행사(정조능행차 마을축제, 정조대왕 성황대제)를 개최하게 됨.**
  - 정조능행차 마을축제(매년 4월 혹은 10월):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시기에 맞춰 이루어지는 마을축제
  - 2020년 10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가 코로나사태로 2021년 4월로 연기됨에 따라 그 개최시기가 가을→봄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음.
  - 정조대왕 성황대제(음력 9월30일): 성황산 보호수 앞에서 읍치제사였던 성황제를 지내는 행사
  - 읍면동 자생특화축제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행사는 공모를 통해 운영비 확보.

- **'화계치상' 황계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매년 '정조대왕 성황대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준비**
  - 정조대왕 성황대제는 매년 해오던 행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읍치제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므로 '화기치상' 황계 주민협의체에서 연초에 정조대왕 성황대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함.
  - 읍면동 자생특화축제 공모사업이 해당년도 1월에 진행되므로 이에 맞춰 추진위원회를 구성
  - 추진위원회는 운영팀(제사운영담당, 공연 및 전시담당)과 지원팀(홍보담당, 회계담당)으로 구성
  - 제사운영담당: 성황대제 절차결정, 참여자 범위 결정 및 연락, 복식 및 제사음식 준비, 제단구성 등
  - 공연 및 전시담당: 부대행사로서 공연 및 기획전시를 담당
  - 홍보담당: 정조대왕 성황대제에 대한 홍보 및 마을주민 참여 유도
  - 회계담당: 공모사업비로 진행하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수요지출의 투명성을 확보



[그림 5-4] 정조대왕 성황대제 추진위원회 구성안(2021년)

- **중장기적으로 농업회사법인을 중심으로 매년 '정조대왕 능행차 마을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준비**
  - 새롭게 정조대왕 능행차 시기에 맞춰 마을축제를 진행하는 것으로 체험프로그램, 음식제공 등 정조대왕 문화체험프로그램과 연관성이 크므로 이를 중심으로 연초에 정조대왕 능행차 마을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
  - 수익사업모델로서 자생적 축제로 점차 확대
  - 추진위원회는 운영팀(체험프로그램담당, 공연 및 전시담당, 음식판매담당)과 지원팀(홍보담당, 회계담당)으로 구성
  - 체험프로그램담당: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체험객들을 안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함.
  - 공연 및 전시담당: 부대행사로서 주민동아리 공연 및 주민동아리 작품전시를 담당하며, 필요시 외부 공연자를 섭외할 수도 있음.
  - 홍보담당: 정조대왕 능행차 마을축제에 대한 홍보 및 마을주민 참여 유도
  - 회계담당: 공모사업비로 진행하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수요지출의 투명성을 확보



[그림 5-5] 정조대왕 능행차 마을축제 추진위원회 구성안(2025년)

- **축제를 위한 예산의 구성항목**
  - 축제진행 및 프로그램 운영비: 운영요원 등 인건비 및 잡비
  - 편의·휴게시설
  - 환경장식비
  - 홍보비: 현수막, 인터넷방송, 안내자료, 기타 홍보매체 사용 지출비
  - 잡기, 비품, 기자재
  - 출연료(필요시)
  - 장비 임대료(필요시)
  - 예비비(별도의 세금, 보험, 저작권료 등을 지불하기 위한 예산)

- **장기적 관점에서 정조대왕 성황대제와 마을축제의 규모가 커지면 축제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운용하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함**
  - 축제의 규모가 커질수록 필요한 인허가, 안전, 홍보 등에 관한 체크리스트 필요
  - 특히 안전, 주차, 교통통제, 편의시설 등에 주의할 필요성이 있음

[표 5-7] 축제를 위한 체크리스트

구분	체크리스트
필요한 모든 인허가 신청	■ 이벤트 허가/보건복지부의 인허가/시·군·구 소방당국의 인허가 ■ 주류취급 허가/상거래 허가/텐트·부지점유 인허가
이벤트 관련 책임 필요조건에 대한 정의	■ 축제관련 인허가부서로부터 발급된 안전성을 증명하는 보험
필요한 장비 결정하기	■ 의자/테이블/판매부스/무대 ■ 안전을 위한 통행차단물(바리게이트) ■ 텐트/야외행사용 의자
필요한 의사소통 수단 결정하기	■ 휴대용 전화/음향장비(스피커)
필요한 전기설비 결정하기	■ 냉장설비/조리설비/무대진행을 위한 설비/조명 ■ 장비 및 물품 운송
부지에 필요한 물품설비에 대한 점검 및 분류하기	■ 휴지통 ■ 이동식 화장실(운반 및 청소정비) ■ 질서유지 등 안전진행을 위한 계획(예:인파조절) ■ 임시주차장 정비(보행자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배려) ■ 행사와 주차를 위한 조명시설 설치 ■ 음식물의 운반과 서비스를 책임질 차량의 주차예약 ■ 초대손님과 장애인을 위한 주차예약 ■ 장식/배너 달기/안내판 설치
음료보급을 위한 설비 점검하기	■ 식음료 판매 ■ 축제관계자들이 마실 식음료 준비
특별 서비스 점검하기	■ 응급처치센터/안내부스/미아 안내부스 ■ 전체 부지 안내도(모든 행사시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함.) ■ 청소 스케줄 세우기(음료쓰레기와 유성쓰레기에 대한 처분계획 세우기) ■ 재활용계획 세우기 ■ 차량통행 금지거리 체크하기 ■ 교통, 상업, 주민에게 끼칠 피해 체크하기 ■ 축제행사지 주변의 거주민, 상인들에게 축제로 인한 차량통행 제한, 제한시간 알려주기 ■ 무대행사관련 출연계약 ■ 음향, 조명, 무대계약 ■ 자금조달/후원요청/스폰서 ■ 식음시설 관련 판매품목 결정 및 판매자 조율 ■ 상품 판매자조정 및 전체 매니지먼트
필요한 자원봉사자 점검하기	■ 자원봉사 업무표 작성하기 ■ 자원봉사활동 스케쥴 조정 ■ 자원봉사자들의 유니폼, 통행증(출입증) 만들기 ■ 자원봉사자 사전교육
미디어(홍보)계획 설계하기	■ 뉴릴리즈 작성하기 ■ 마케팅을 위한 로고 만들기(포스터, 티셔츠) ■ 미디어 네트워크리스트 작성하기 ■ 행사당일 PR점검하기 ■ 특별뉴스로 발송할 스토리 작성하기 ■ 브로셔, 포스터, 전단지 디자인하기 ■ 웹사이트에 행사내용 올리기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축제매뉴얼

[표 5-8] 편의시설 설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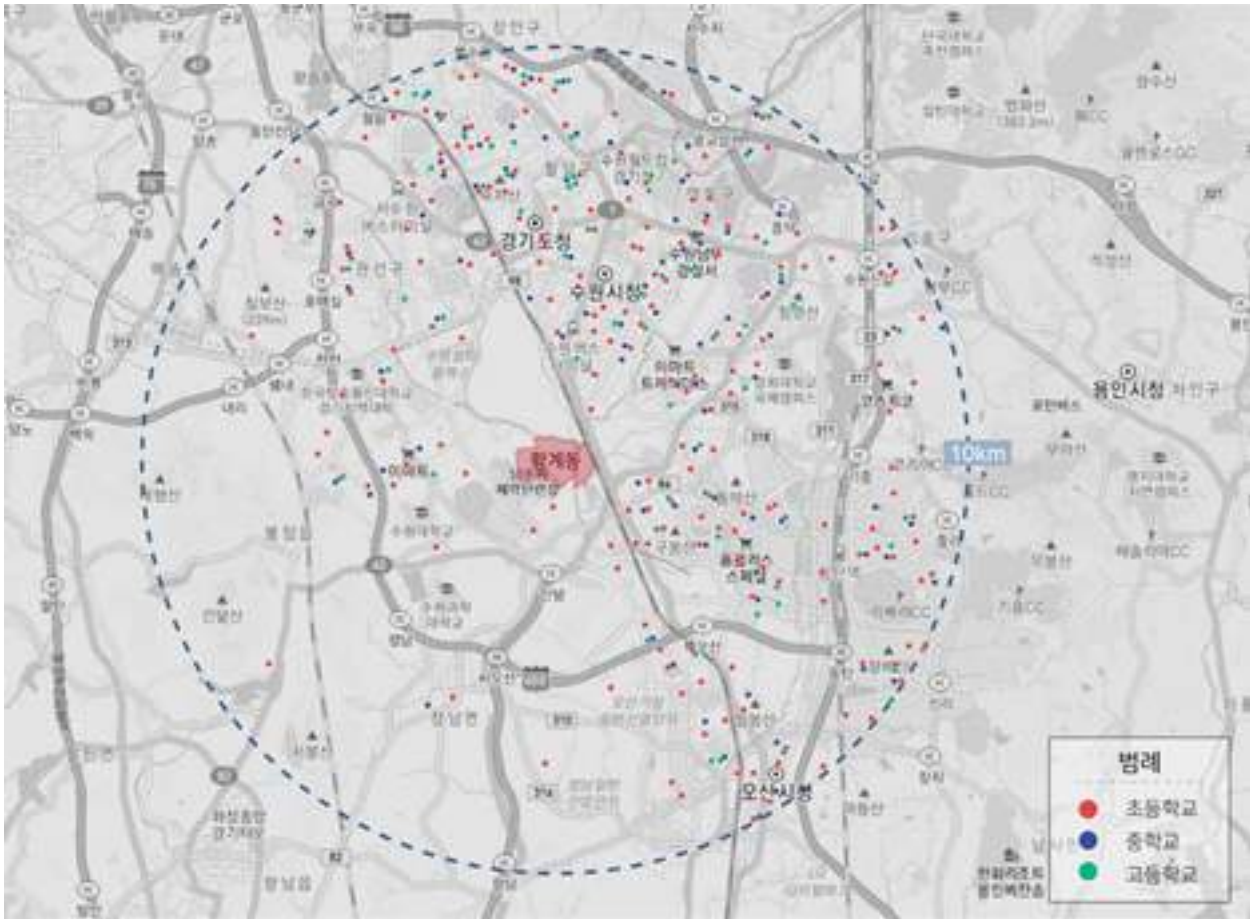
구분	체크리스트
화장실	■ 예상방문객 범위 및 규모에 적절한 화장실 개수 ■ 성별 화장실, 장애인용 화장실의 분리 혹은 통합 ■ 수세식/재래식, 이동식/고정식 화장실의 공간적 배치형태 및 행사장의 적재적소 배치 ■ 전체 예산 대비 화장실 설비에 소요된 예산규모 적절성 여부 ■ 화장실의 청결도 유지여부
휴식공간	■ 휴식공간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적정성 ■ 유료/무료 휴식공간의 구분 ■ 휴식공간의 균형적 배치형태 ■ 휴식공간의 위치 ■ 부대시설[화장실, 매점, 식당]과의 유기적 공간 배치 정도 ■ 행사장 다음 단위로의 접근 용이성
주차시설	■ 독립공간 확보 ■ 가변도로 사용의 유관기관 협조체계 ■ 주차요금 유무의 여부 ■ 주차요금이 유료인 경우 적절한 가격책정 ■ 주차공간의 환경 ■ 주차장의 예상 수용차량 대수 ■ 주차장 위치와 배치의 적절성 ■ 주차장 접근의 용이성
안내 및 BGM	■ 안내부스의 위치 ■ 통역시스템 구축 ■ 각종 표지판, 배너, 팸플릿 ■ 각종 게시물[그래픽, 텍스트] ■ 비상전화 보유 유무 ■ CCTV 보유 유무와 배치 ■ 안내방송 시설설비 구성 ■ 현금지급기, 카드단말기, 택배시설 ■ BGM 곡명 리스트[음반확보] - 시간대별, 방문객 유형별 등으로 구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축제매뉴얼

2. 운영활성화 방안

1) 수익사업: 정조마을 문화체험프로그램

- 주변 도시지역(수원, 동탄신도시, 오산 등)의 체험객 및 학생들의 수요에 맞춘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 현재 타마을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촌체험프로그램은 농업인의 관점에서 개발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농작물 수확이나 농산물 가공 등의 체험프로그램이 많음.
  - 도시민 체험객들의 수요에 맞춰 차별화된 정조마을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수익사업의 성공요인이 될 수 있음.
  - 황계동 주변지역의 유치원 및 초중고 등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정조마을 문화체험프로그램에 덧붙여 부수적으로 농업체험을 실시



[그림 5-6] 황계동 반경 10km이내 위치한 학교분포 현황

[표 5-9] 황계동 반경 10㎞이내 위치한 학교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황계동 반경 10㎞이내(개소)	187	90	63

도농교류 협력사업

1) 사업개요

- 매년 1월에 당해연도 사업 공모(한국농어촌공사)
- 목적: 역량있는 민간단체 및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농촌체험활동, 기술지원, 6차 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고 농가소득을 증진
- 지원대상 : 총 74여개 초등학교 및 단체

대 상	사업분야	단체당 지원예산
초등학교	농촌체험활동	1학교 최대 1000만원
민간단체	농촌체험활동	1개소 최대 2000만원
	체험외 활동	

2) 초등학교신청시

- 초등학교 교과과정과 연계된 농작물재배, 수확체험, 농촌생활체험, 전통문화체험, 자연생태체험 등 농업·농촌 농산물 생산기능 및 다원적 가치를 직접 느낄 수 있는 농촌체험활동 제공
- 선정된 모든 초등학교는 농촌체험활동을 지원 받은 후 농업농촌의 가치와 중요성 인식을 위한 연계교육·활동을 자체적으로 계획하여 운영

  * 교내 글짓기 대회, 사생대회, 식생활 교육, 농촌체험 동영상 만들기 등

- 초등학교대상 도농교류협력사업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선택하거나, 초등학교 자율적으로 방문지, 활동 등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선정된 초등학교대상 농촌현장체험 학습에 대하여 직접 운영지원
- 신청자격: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지역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지역 이외에 동지역 소재 초등학교

-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품화 전략 필요**

  - 문화체험프로그램을 다른 분야로 확장하여, 마을축제 개최, 기념품 제작, 가공식품 제조 등을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함.

- 특히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다른 산업으로의 연계가 필요함.

● **온라인상에서 도시민 방문객과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교류 필요**

- SNS, 동영상 채널 등을 적극 활용하여 쌍방향 소통창구를 마련함.
- 재방문율을 높이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 등의 노력은 새로운 방문객 유치에 소요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며, 이들은 또다시 구전(口傳) 마케팅의 원동력이 됨.

●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인적자원 확보**

- 기업화 된 운영으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콘텐츠 기획 및 운영이 가능한 청년 인력 자원을 적극적으로 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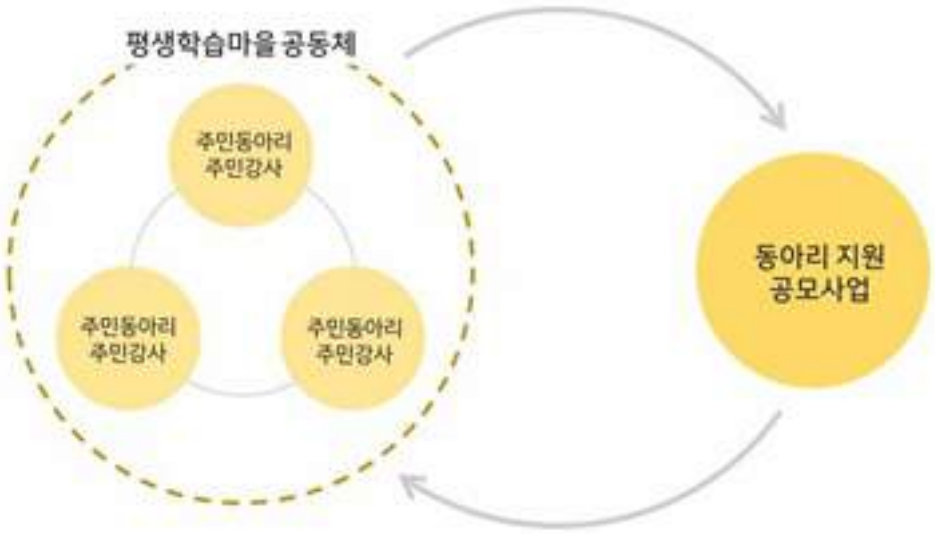
다가치 화성탐사대(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

– 학교 안과 밖의 배움을 연결하여 마을교육생태계 확대 및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초등교육과정과 연계된 지역사회 체험학습활동분야 운영 중(7개 분야 38개 프로그램)

2) 문화교육프로그램: 주민동아리 지원사업

-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황계동 주민들만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체 차원에서 협력

- '주민강사'를 양성하여 황계동 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황계동의 문화적 역량확충에 지속적인 기여
  - 프로그램 운영초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해 오지만, 향후 황계동 내 인적자원 발굴을 통해 다양한 주민강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함.
  - 주민동아리활동을 통해 문화교육을 이수한 주민들 중에 전문 자격증 등을 취득할 수있도록 유도하여 주민강사로 양성함.
  - 이를 통하여 마을내 주민강사 일자리를 창출해나감.
  - 마을 내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주민강사가 양성되면, 이들을 중심으로 다시 다양한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문화교육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



[그림 5-7] 문화교육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중장기)

3) 행사 및 축제: 정조대왕 성황대제, 능행차 마을축제

- **황계동에서 개최되는 2번의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각각의 축제 사이에 전문가 및 예술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배치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함.**
  -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후,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와 같은 시기에 황계동 마을축제를 개최하여 시너지를 높여 나갈 예정이므로 마을축제와 성황대제 사이의 기간에 계획했던 전문가 및 예술가가 참여하는 문화프로그램을 시연하는 행사를 개최함.

[그림 5-8] 성황대제 및 마을축제 연계 활성화방법(중장기)

- **특히 능행차 마을축제는 정조마을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노하우와 주민동아리 지원사업을 통해 얻은 결실을 대내외적으로 발표하는 장으로 활용**
  -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구상을 통해 운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발표의 장으로 능행차 마을축제를 적극 활용
  - 능행차 마을축제를 통해 체험, 음식판매, 가공품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장기적으로 방문객을 확보해 나감.

3. 사업추진체계 구축방안

- 황계동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은 주민자치사업 중심으로 전문가와 문화재단(예술인 지원) 등의 네트워크 관계 속에서 추진
  - '화기치상' 황계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수익사업, 문화교육, 행사 및 축제를 진행하고 전문가와 문화재단(예술인 지원)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정조학당 및 예술가 단체와 함께 하는 사업을 추진
  - '화기치상' 황계 주민협의체 하에 농업회사법인, 주민동아리, 성황대제 추진위원회를 두어 운영
  - 수익사업의 운영자인 농업회사법인이 능행차 마을축제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진행하여 문화체험프로그램과 능행차 마을축제간의 시너지를 도모

[그림 5-9] 황계동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추진체계안(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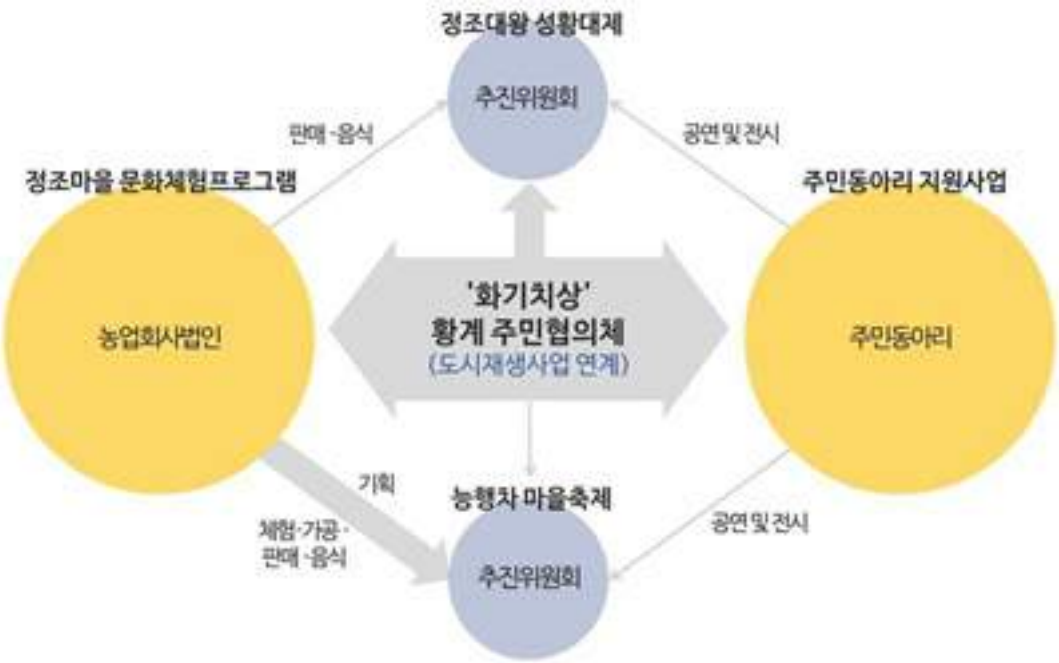
- '화기치상' 황계 주민협의체의 역할
  - 단기적으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자치로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화기치상' 황계주민협의체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의 총괄 추진주체로서 전문가 및 문화재단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해나감.
  - 정조마을로서 황계동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간 내용을 조정해나감.
  - 황계동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취득하고 마을기금 형성 등에 노력함.

- **농업회사법인의 역할**
  - 단기적으로 수익사업은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함.
  - 중장기적으로 주민협의체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취득하게 되어도 직접 운영은 어려우므로 산하기구로서 농업회사법인을 두고 위탁형태로 운영함.
  - 농업회사법인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시설 활용에 따른 마을기금 등을 주민협의체에 적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함.
  -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활용하여 능행차 마을축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며, 능행차 마을축제를 통해 마을 전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함.

- **전문가의 역할**
  - 정조대왕 관련 콘텐츠의 중요 발신지로서 황계동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조학당을 통해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
  - 정조를 연구하고 관심 있는 전문가 및 일반인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장을 마련
  - ‘화기치상’ 황계 주민협의체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

- **문화재단 및 예술인 단체의 역할**
  - 문화재단의 예술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황계동 창작극, 공공예술프로젝트, 커뮤니티 아트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황계동 주민들이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함.
  - 능행차 마을축제 등 마을행사, 문화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마을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중장기적으로 각 문화콘텐츠 프로그램 주체의 역량이 높아지고 해야할 일의 범위가 넓어지는 시점에 여러 주체가 독립적이면서 조화롭게 지역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추진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함.**



[그림 5-10] 문화콘텐츠 프로그램간의 연계(단기)

[그림 5-11] 문화콘텐츠 프로그램간의 연계(중장기)

Ⅵ 사업예산 산출 및 확보방안

1. 정부지자체 관련 사업 검토 및 재원조달계획

2. 사업예산 산출

Ⅵ. 사업예산 산출 및 확보방안

1. 정부·지자체 관련 사업 검토 및 재원조달계획

1) 문화적 공간조성사업

가. 사업비 확보방안 검토

- **황계동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많은 주민활동이 담기게 될 문화적 공간조성사업 중 일부는 21년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검토함.**
  -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실현가능한 어울림센터 내 황계마을박물관과 주민문화실은 우선적으로 설치함.
  - 정조대왕이야기길 조성사업 중 화소구역 표석설치와 안내판 설치, 성황대제가 열리는 보호수 주변정비사업은 단기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검토함.

- **소하천 정비사업과 성황사 재현 등은 시와 협의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실시함.**
  - 소하천 정비사업은 정조대왕 이야기길 출발구역에 포함되는 구간으로 균특회계에 속하는 소하천정비사업으로 관련 과와 협의
  - 성황사 재현은 정조대왕 이야기길 성황산 구역에 포함되는 구간으로 먼저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 사용협의를 거쳐 주민참여예산을 확보하여 실행하는 것을 검토
  - 정조문화공원은 도시공원 중 주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함.

[표 6-1] 문화적 공간조성사업 사업비 확보방안 검토(안)

	구분	사업세부내용	위치	사업비 확보방안	담당부서
정조대왕이야기길 조성사업	단기과제	화소구역 표석설치	출발구역	시예산	화성시 담당과 (고증필요)
		안내판 설치 3개소 (지도, 안내판)	출발구역 황계박물관구역 성황산 구역	마을만들기 주민제안사업 주민참여예산	화성시 담당과
				주민 숙원사업	화산동
		보호수 주변정비	성황산 구역	시예산	화성시 담당과 (보호수 관련)
		성황사 재현 (기본계획 수립)	성황산 구역	시예산	화성시 담당과
		우물복원	성황산구역	도시재생사업	-
	중장기과제	성황사 재현	성황산 구역	주민참여예산 (先 국유지 사용 협의)	화성시 담당과
		소하천 정비	출발구역	균특회계(포괄보조금)	화성시 담당과
		정조문화공원	출발구역	장기적 검토 (先 도시계획시설 결정)	화성시 담당과
황계마을박물관			어울림센터 내	도시재생사업	-
주민 문화실			어울림센터 내	도시재생사업	-

나. 사업비 확보 세부내용

① 정조대왕 이야기길 조성사업

- **단기과제:** 화소구역 표석, 보호수 주변 정비 사업, 성황사 재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화성시 자체 예산을 편성하고, 이야기 및 지도 안내판(3개소) 설치는 마을만들기 주민제안사업, 화산동 주민숙원사업 또는 주민참여예산 등으로 추진
- **중장기과제:** 소하천 정비사업은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소하천별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게 되며, 성황사 재현사업은 주민참여예산 등으로 추진

화성시 자체예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과정**

① 자치단체 예산(안)편성: 9~11월(자치단체)

-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9월15일까지(중앙 각 부처)

② 예산(안) 의회제출

- 시·도: 11월11일까지(회계연도개시 50일전)
- 시·군·자치구: 11월21일까지(회계연도개시 40일전)

③ 지방의회 심의·의결

- 시·도: 12월16일까지(회계연도개시 15일전)
- 시·군·자치구: 12월21일까지(회계연도개시 10일전)

④ 의결예산이송(의회 → 단체장): 의결 후 3일 이내

⑤ 편성결과 보고 및 고시: 이송 받은 즉시

(보고:시·도 → 행정안전부, 시·군·구 → 시·도)

화성시 마을만들기 주민제안사업(공간조성분야: 지역특화발전과)

- **개요**
  -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의 전통과 특성·자원 등을 고려한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지원
  - 화성시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근거
- **지원대상**
  - 10인 이상 주민으로 구성
- **지원내용**
  - 공간조성분야(최대 2천만 원): 기 확보된 공동체 활동공간에 시설비 지원(공간 리모델링, 전기시설, 환기시설 등). 조성 이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활동진행 필수
  - 공간조성분야는 화성시 지역특화발전과에서 추진
- **심사**
  - 서로 배우는 상호학습의 장이 되도록 주민참여심사 실시
  - 공간조성부문은 서류 접수 후 현장확인 진행

주민참여예산

- **운영목적**

-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를 통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 재정민주주의 실현
- 주민이 직접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를 예산에 반영하여 시정운영의 시민만족도 향상 도모

• **운영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화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표 6-2] 주민제안사업 접수 건수 및 예산 편성액 현황

구분	제안서 접수	예산 편성액(백만원)
2019년	192건	11,427
2020년	599건(311%↑)	16,717(146%↑)

제안사업 공모	⇨	사전 심사	⇨	사업검토 및 심사	⇨	총회	⇨	조정협의회 개최 (시↔위원)	⇨	2021년 예산 편성
~5월 31일		6월		7~8월		9월		10월		11~12월

[그림 6-1] 주민참여예산 편성 과정

• **심사방법**

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사전 심사: 부적격 사업은 사업부서 검토 대상에서 제외

*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심사 운영

② 사업부서 검토: 법령, 조례,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 산출 및 검토 의견 제출

③ 위원회 검토: 사업부서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제안 사업 심사

- 시정형 사업: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검토
- 읍면동 사업: 읍면동 주민참여예산회의에서 검토

④ 조정협의회: 조정 필요 시 개최하여 시↔위원 간 검토 의견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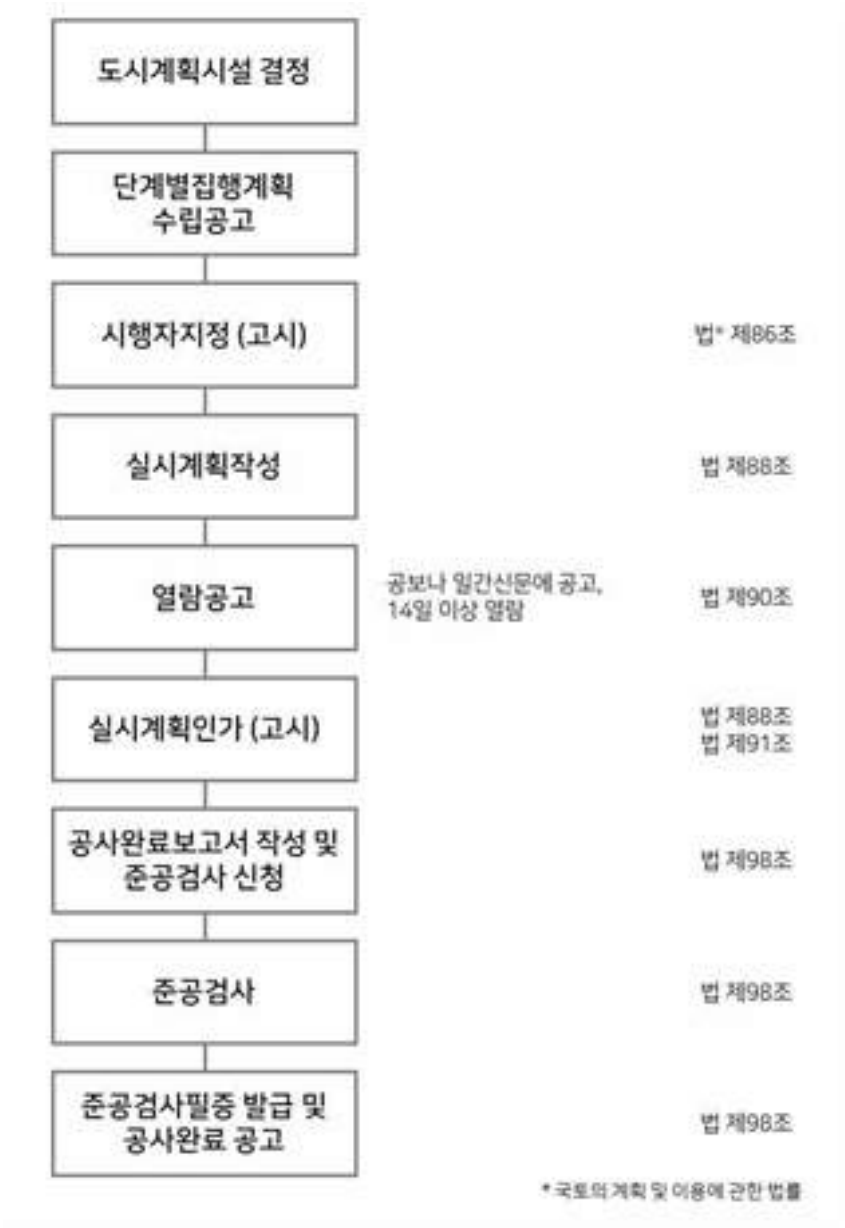
⑤ 주민참여예산 총회: 2022년 예산에 반영할 주민제안사업 의결

⑥ 예산 편성: 2022년 예산안 반영 및 의회 승인

• **중장기과제:** 정조문화공원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

도시계획시설사업

- **개요**
  -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
- **시행주체**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주체는 관할시장·구청장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사업을 시행
- **시행경비**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비는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청이나 구청 또는 공공시설 관리자가 일부 분담할 수도 있음.
- **시행절차**
  - 시장이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실제 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를 지정
  -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또는 규모, 사업시행자 등이 명기된 실시계획서류를 작성하여 일반 주민들에게 공개 열람. 이때 사업에 대한 불만이나 요구사항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건의할 수 있음.
  - 최종적으로 시장으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토지를 수용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그림 6-2]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절차

② 황계마을박물관 조성사업(운영·유지 부문)

- **중장기과제:** 황계마을박물관 조성은 어울림센터 내 도시재생사업으로 실시하나 운영 및 유지부문은 지역문화자원 발굴 및 재생공모사업으로 추진가능

지역문화자원 발굴 및 재생공모사업(경기도 문화재단)

- **개요**
  - 지역 문화정체성 발굴 및 활용을 통해 도시 활력을 제고하고 주민주도 사업추진을 통해 문화자치를 실현
- **지원대상**
  - 신청자: 개인 또는 단체
- **지원내용**
  - ‘지역문화 콘텐츠 발굴’, ‘거점공간 조성 및 운영’, ‘지역문화기반 시민활동 지원’ 세 분야로 ‘지역문화 자원발굴 및 재생 공모사업’을 시행
  - 지역기반 문화콘텐츠 발굴: 지역역사발굴기록, 지역문화연구, 지역기반 문화콘텐츠 제작
  - 지역문화 거점공간 조성 및 운영: 마을박물관, 주민공방, 주민커뮤니티 공간 등 신규조성 및 운영
  - 지역문화기반 시민활동 지원: 지역문화 교육·체험활동, 지역문화자원 활용 소규모 시민축제, 지역자원을 활용한 탐방 및 체험, 문화예술교육, 골목축제, 마을축제 등 지원
  - 사업비: 지역문화콘텐츠 발굴(건당 최대 2천만 원), 지역문화거점 공간 조성 및 운영(조성비 최대 5천만 원, 운영비 최대 2천만 원), 지역문화기반 시민활동지원(건당 최대 2천만 원)

2) 콘텐츠 운영프로그램

가. 사업비 확보방안 검토

- **콘텐츠 운영프로그램은 운영주체들이 주도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해나감.**
  - 단기사업과 중장기사업으로 구분하여 주민들의 역량에 맞춰 공모사업을 진행함.
  - 정조마을 문화체험프로그램은 농업회사법인의 수익사업을 통해 자생적 모델로 발전시킴.
  - 주민동아리 지원사업은 주민협의체가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사업',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등 평생학습과 연계하여 운영
  - 정조대왕 성황대제 및 마을축제는 '화계치상' 황계주민협의체와 농어촌휴양체험마을 사업자가 각각 '읍면동 자생특화축제' 공모사업을 통해 운영
  - 황계동 창작극은 황계동과 연결된 극단을 통해 '지역예술활동 지원사업'으로 창작극을 제작하고 운영은 정조대왕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자와 함께 공연수익을 창출함.
  - 공공예술프로젝트와 커뮤니티 아트프로그램은 '지역예술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예술가들을 모집하여 운영
  - 정조학당은 인근 대학과 주민협의체가 '인문도시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운영

[표 6-3] 콘텐츠 운영프로그램 사업비 확보방안 검토

구분	사업세부내용		위치	사업비 확보방안		담당부서	운영주체
단기사업	주민자치사업	정조대왕 성황대제	수변공원, 보호수	공모사업	읍면동 자생특화축제 공모사업	문화예술과	체험프로그램 운영자
		주민동아리 지원사업	어울림센터	공모사업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평생학습과	주민협의체
					마을만들기 주민제안사업	자치행정과 마을자치센터	주민협의체
중장기사업	주민자치사업	정조마을 문화체험프로그램	정조대왕 이야기길, 어울림센터, 황계동 전역	수익사업		-	-
		주민동아리 지원사업	어울림센터	공모사업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사업	평생학습과	주민협의체
		정조능행차 마을축제	황계동 전역 정조문화공원	수익사업		-	체험프로그램 운영자
	예술가 단체와 함께하는 사업	황계동 창작극	어울림센터	공모사업	지역예술활동 지원사업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해당극단
		공공예술 프로젝트	황계동과 공군비행장 경계 벽	공모사업	지역예술활동 지원사업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해당단체
		과정 중심의 커뮤니티 아트프로그램	황계동 전역	공모사업	지역예술활동 지원사업	문화재단	문화재단
		황계동 예술가 작업실	어울림센터	공모사업	지역예술활동 지원사업	문화재단	해당 예술가
	전문가와 함께하는 사업	정조학당	어울림센터	공모사업	인문도시지원사업	한국연구재단	대학+주민협의체

나. 사업비 확보 세부내용

① 정조마을 문화체험프로그램

• 정조마을 문화체험프로그램 사업은 초기에 농업회사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운영 • 운영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초기단계에 마을기업 지원사업에 공모할 수도 있음.

마을기업 지원사업

- **개요**
  -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의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해 지역 공동체에 기초한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
- **지원대상**
  - 마을중심의 소규모 공동체, 농업회사법인, 지역NPO(민간 비영리 단체)등을 대상으로 함.
  - 2020년 새롭게 도입된 신유형 마을기업으로는 도시재생형이 있음.
- **도시재생형 마을기업**
  -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은 수익과 일자리를 지속 창출하여 자생할 수 있는 마을기업 모델 발굴
  - 대상지역: 국토교통부에서 지정받은 도시재생지구에 포함된 지역

    * 도시재생 선도지구, 도시재생 뉴딜지역, 소규모 도시재생 등
  - 자격요건: 지역 내 주민이 주도하고, 마을기업 4대 요건을 충족하며,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기업
  - 선정방법: 뉴딜지역 167개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그와 별도로 국토부와 협의하여 사업 추진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시범대상으로 선정하여 마을기업 발굴·육성
  - 선정기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고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이 있어야 하며, 지역 내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여야 함.
  - 입문교육(7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신규마을기업에 지원할 수 있으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기초교육(7시간), 공통교육(7시간), 심화교육(3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사업비·컨설팅, 전문인력지원
  -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최대 3차에 걸쳐, 1억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다만, 차수별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공모를 통해 별도심사를 받아 선정되어야 함.

- 마을기업 지정 전에는 예비마을기업으로 1천만원까지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심사

- 정해진 서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단체현황을 제출

✓ 1차년도 마을기업 사업신청서

✓ 마을기업 회원 명단, 법인등기부등본(접수기준 1개월 전 서류), 정관,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내역 정리), 설립전 교육 이수 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비마을기업		1차년도 (신규) 마을기업		2차년도 (재지정) 마을기업		3차년도 (고도화) 마을기업
시도에서 선정 최대 1천만원 지원	⇨	지자체 공모, 시도 및 행안부 심사 최대 5천만원 지원	⇨	지자체 공모, 시도 및 행안부 심사 최대 3천만원 지원	⇨	지자체 공모, 시도 및 행안부 심사 최대 2천만원 지원

[그림 6-3]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체계

[그림 6-4] 1차 년도(신규)마을기업 심사일정

② 주민동아리 지원사업

• 주민동아리 지원사업은 동아리별로 각종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운영비를 확보하고 강사를 섭외하여 운영하여 역량을 키워나간 뒤, '학습코디네이터' 및 '주민강사'를 양성하여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사업에 지원

학습동아리 지원사업(평생학습과)

• 개요

- 시민의 평생학습권을 확대하고 생각이 크는 배움이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학습동아

리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더 나은 삶의 길을 여는 평생학습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학습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업 운영

- **지원대상**
  - 화성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인 7인 이상(화성시민 70% 이상)으로 구성된 학습동아리
  - 학습동아리 등록방법 : 화성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u-life.hscity.go.kr/edu/index.do) 평생학습동아리터 ⇒ 학습동아리 안내 및 등록 (서면 접수)
  - 학습동아리 등록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1부, 학습동아리 소개서 1부, 활동사진 및 활동계획서 1부, 회원명단 및 조직도 1부, 동아리 회칙 1부.
  - 학습동아리 등록기간: 연중가능
- **지원내용**
  - 학습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역량강화 및 재능 나눔에 필요한 강사비, 교재비 등 지원

[그림 6-5]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공모과정

화성시 마을만들기 주민제안사업(화성시 마을자치센터)

- **개요**
  -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의 전통과 특성·자원 등을 고려한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지원
  - 화성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타지역에 비해 역동성은 크나, 외부 인구유입 증가로 인해 공동체성이 상실되고 있어, 마을별 특성을 반영한 마을만들기 활동을 통해 회복
  - 기존에 시행해 왔던 행정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탈피하여 주민들의 자립능력 향상과 참여동기 부여를 통한 자주적인 마을만들기 사업 활성화 도모
  - 마을공동체의 역량수준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핵심주체로서 주민 리더 및 활동가를 양성

- 마을별로 지닌 다양한 역량과 자원이 순환되고 교류되도록 도시와 농촌, 마을공동체간의 네트워크를 형성
- 화성시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근거

● **지원대상**

- 3인 ~ 10인 이상 주민으로 구성

● **지원내용**

- 씨앗분야(최대 100만 원): 주민모임형성단계로 관계형성을 위한 소모임 활동 지원
- 성장분야(최대 500만 원): 지속가능한 공동체 활동 활성화 단계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민모임 지원
- 주민모임연합분야(최대 1천만 원): 두 개 이상의 주민 모임으로 활동하는 사업으로 지역간 단체간 협력활동 지원. ex)도농교류활동, 지역 및 단체간 나눔장터, 마을장터 등
- 기획분야(최대 1천만 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실행하는 사업, 장기적인 마을활동으로 최대 3년 지원
- 공간조성분야(최대 2천만 원): 기 확보된 공동체 활동공간에 시설비 지원(공간 리모델링, 전기시설, 환기시설 등). 조성 이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활동진행 필수

● **심사**

- 서로 배우는 상호학습의 장이 되도록 주민참여심사 실시
- 공간조성부문은 서류 접수 후 현장확인 진행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사업(화성시 문화재단 생활문화사업팀)

● **개요**

- 신규 생활문화동호회를 발굴하여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생활문화동호회는 운영위원진을 선출하여 동호회원들과 함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사업의 주요사항을 스스로 결정하고 운영함.

● **지원대상**

- 동아리는 성인(만18세 이상) 3인 이상이며 전체 구성원 2/3 이상이 화성시민으로 구성되어야 함.

● **지원내용**

- 문화공헌활동 지원

[그림 6-6] 생활문화동호회 추진과정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사업(평생학습과)

- **개요**

  - 평생학습마을공동체를 조성하여 지역인재를 발굴·양성해 학습-일-복지문화가 선순환하는 학습생태계 조성

  - 마을 주민이 스스로 마을리더, 주민강사, 코디네이터가 되어 평생학습을 이끌고 지역주민이 학습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안에서 학습-일-문화가 어우러지는 학습생태계를 조성하는 경기도 평생학습 대표 브랜드로 지난 2012년부터 추진 중

- **지원대상**

  - 지원자격: 대학, 경기도 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주민강사, 학습코디네이터, 마을리더 양성·배치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하길 희망하는 곳

  - 강사, 학습코디네이터, 마을리더는 해당 지역(마을) 주민을 양성하여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수행기관 상근직원 인건비, 강사료 지급 불가)

  ※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우선 선발 채용

  - 학습코디네이터는 마을당 1명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군에서 예산 범위(마을별 1명의 인건비)를 감안하여 시간제로 복수 채용이 가능함.

  - 사업계획서에는 마을별 자생력 확보계획 및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

  - 신규마을: 마을의 특색 및 독창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

  ※ 타 마을과 유사한 사업계획서 및 그대로 도용한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선정 배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지원내용**
  - 5년간 9,000만 원
  - 1~3차 년도: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
  - 4~5차 년도: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 강사, 학습 코디네이터 인건비
  - 학습코디네이터는 마을주민 1명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월 179.5만원 이내 인건비(주 40시간, 보험료 시금공제전 기준) 지원
  -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 평생학습마을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홍보비, 회의비, 인쇄비 등)
  - 신규마을 컨설팅 비
- **심사**
  - 심사방법: 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운영하여 지원 대상 선정
  - 심사기준: 마을별 사업 목표의 명확한 제시, 사업추진 전략의 구체화와 실현가능성, 해당마을에서의 사업 수행능력의 적정성 여부 등 평가, 사업내용이 해당 마을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창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평가, 평생학습마을이 없는 시·군 우선 고려
  - 심사결과 통지: 경기도(평생교육과) → 해당 시·군(관련부서)

[그림 6-7]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사업 공모과정

③ 정조대왕 성황대제 및 마을축제

- 정조대왕 성황대제는 읍면동 자생특화축제 공모사업에 지원함.
- 정조대왕 성황대제는 '화기치상' 주민협의체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사업에 지원
- 능행차 마을축제는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될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농업회사법인)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익사업 모델로 운영함.

읍면동 자생특화축제 공모사업(화성시 문화예술과)

- **개요**
  -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만드는 민간주도형 지역 자생축제 육성
  - 자생특화축제 기본 목적인 지역적 특색이 담겨있는 주민 참여형 축제 선정
- **지원대상**
  - 신청: 읍·면·동별 자생특화축제를 주관할 수 있는 보조금 지원 가능 단체로 단체(대표자)별 1개의 축제를 대상으로만 공모 참가 가능

  * 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본부(지부)를 두고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이거나 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 단순 마을잔치, 노래자랑, 체육대회 형식을 벗어난 지역의 유·무형 문화자산을 토대로 한 축제로 지역의 특색을 표현할 수 있는 축제여야 함.
  - 자생특화축제로 연례화가 가능한 축제
- **지원내용**
  - 심의위원회 평가 등급에 따른 지원 금액 차등 지급 및 미달축제 선정 제외

[표 6-4] 축제위원회 심의 순위에 따라 지원 금액 차등 지급

순위	지원 금액	비고
1~3위 (S등급)	30,000천원	3개 축제
4~8위 (A등급)	25,000천원	5개 축제
9~15위 (B등급)	20,000천원	7개 축제
16~18위 (C등급)	15,000천원	3개 축제
19~28위 (D등급)	10,000천원	10개 축제
29위~ (F등급) 60점 미만시	지원 없음	심의점수 60점 미만 시 순위에 관계없이 지원불가

- 심사

공고 및 접수		심의 및 선정		사업진행 및 정산		평가결과 통보
ㅇ공고 : 1. 3. ~ 1. 23. ㅇ접수 : 1. 3. ~ 1. 23.	⇨	ㅇ자생특화축제 심의 및 선정 ㅇ사업대상 통보 및 예산 읍면동 재배정	⇨	ㅇ읍·면·동별 사업 진행 ·현장평가·컨설팅 ※ 축제 기간별 상이 ㅇ정산 : 읍·면·동별 자체 정산 후 정산보고서 제출	⇨	ㅇ평가보고서 통보
1월		1월~2월		3월~12월		12월

[그림 6-8] 자생특화축제 공모사업 추진과정

[표 6-5] 자생특화축제 공모사업 심의항목 및 배점

항목	세부내용	배점
기획 및 지역 특성 (30)	ㅇ 축제 소재의 지역적 근거 및 발전가능성	30
	ㅇ 지역의 대표성 반영 및 타 읍면동과의 차별성	
	ㅇ 제출한 기획안의 완성도 및 성실성	
프로그램 및 운영 (30)	ㅇ 축제 소재와 프로그램의 연관성	30
	ㅇ 프로그램의 독창성 및 차별성	
	ㅇ 행사 진행 시 지역주민 참여 비율	
예산 (25)	ㅇ 예산 대비 축제 완성도	25
홍보 (5)	ㅇ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의 적절성	5
발전가능성 (10)	ㅇ 자생특화축제로의 장기적인 발전가능성	10

④ 예술가 단체와 함께 하는 사업

- 황계동 창작극, 공공예술프로젝트, 과정중심의 커뮤니티 아트프로그램은 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지역예술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황계동에서 하고자 하는 예술가 및 단체를 섭외하여 추진함.

지역예술활동 지원사업(화성시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예술지원팀)

- **개요**
  -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 사업목적: 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다양한 분야의 예술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속 예술공감대를 확장
  - 사업장소: 화성시 일대
- **지원대상**
  - 경기도 및 화성시에 소재한 공연, 시각예술, 문학, 다원예술 등의 분야의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 예술인·예술단체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한 예술법인 및 단체
  - 문화예술시설 운영자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
- **지원내용**
  - 전문 예술인의 탁월한 예술 프로젝트 지원, 화성시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거점에서 실행되는 예술 프로젝트 지원, 화성시 지역 밀착형 예술 프로젝트 지원
  - 예술활동에 필요한 직접경비 지원(공연예술의 경우 공연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 기획공연의 경우 신진예술인(15백만 원), 중견예술인(20백만 원) 지원
  - 예술단체인 경우, 총사업비의 10% 이상은 자부담으로 책정.(개인예술인 제외)
- **심사**
  - 지역문화콘텐츠 활용 예술활동: 화성시 역사·문화 등 관련 콘텐츠를 프로젝트의 주된

콘셉트로 활용한 예술활동 실행시 가산점 부여.

예) 제암리 학살사건이 주된 이야기의 중심이 된 뮤지컬, 노작 홍사용의 작품이 주제인 회화 전시 등

- 화성시 소재(거주) 전문예술단체 및 예술가 가산점 부여
- 1차 행정심의: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의 적정성 여부
- 2차 서류심의: 사업계획서 및 단체소개서(포트폴리오) 검토
- 3차 면접심의: 2차 서류심의에서 선정된 단체 대상 인터뷰 및 PT 심의

[그림 6-9] 지역예술활동 지원사업 공모과정

- **공연운영**
  - 농업회사법인이나 극단에서 행사시 매표를 통해 운영비 확보

[그림 6-10] 화성 문화재단 주최 지역예술인 간담회

⑤ 전문가와 함께 하는 사업: 정조학당

• 정조학당은 주변의 대학 산학협력단이 한국연구재단의 인문도시지원사업을 공모하여 황계마을 주민협의체가 함께 운영함

인문도시지원사업(한국연구재단)

• **개요**

- 대학·지역사회 간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인문자산을 발굴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인문자산에 대한 지역민의 접근성 제고
- 지역 내 인문역사문화 자산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지역의 인문학적 브랜드를 살릴 수 있는 강좌, 체험, 축제 등의 프로그램 실시(인문주간, 성과교류회 참여 필수)
- 지자체(교육청 등), 지역사회기관(도서관, 박물관 등), 지역 내 사단법인 등과의 협력 필수
- 인문브랜드: 해당 지역의 대표적 유, 무형 인문학 자산을 브랜드로 개발하여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인문강좌: 초·중·고 학생, 소외계층 및 일반 시민 대상의 강좌로 지역의 특성과 연계
- 인문체험: 지역의 인문역사문화의 유, 무형 자산을 이용하여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인문학적 사고와 방법 등을 고취시킬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 실시
- 인문축제: 인문주간 및 지역의 인문학 관련 축제기간동안 지역주민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인문학적 사고와 방법 등을 고취시킬 수 있는 강좌/체험/전시/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

• **지원대상**

- 신청자: 사업단 내 주관연구기관인 국내대학(단과대, 학과 및 부설기관)
- 사업단 참여 인력: 연구책임자(필수), 공동연구원(필수, 강좌 및 행사 기획·운영자), 강사진(필수), 연구보조원(선택)

※ 강사진은 대학 소속 이외(지역의 역사가, 문인, 문화해설가 등) 인력이 30% 이상 포함되어야 함. 대학 소속 이외 강사진은 신청 대학 및 타 대학 강사진 이외의 인력을 말함.

- 대상지역: 주관연구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광역권 한정
- 주관연구기관: 「고등교육법」 등에 의해 설립된 국내 대학(단과대, 학과(부) 및 부설기관)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시청(군청, 구청) 또는 교육청 등] 또는 지역사회기관(도서

관, 박물관 등) 과의 연계[대응자금(현물 또는 현금)] 필수

- 지자체, 지역사회기관 실무자(선택): 강좌 및 행사 기획을 위해 실무자 1인 이상 참여

● **지원내용**

- 사업비: 140백만 원 이내/연
- 지원기간: 1년 또는 3년

[표 6-6] 인문도시지원사업 프로그램 구성(예시)

구 분		세부 내용
인문도시	인문 브랜드	해당 지역의 대표적 유, 무형 인문학 자산을 브랜드로 개발하여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예시) OOOO의 도시
	인문 강좌	초·중·고 학생, 소외계층 및 일반 시민 대상의 강좌로 지역의 특성과 연계 ·(예시1) 노인병원 방문 예술치료, 교도소 재소자와 함께 하는 인문학 강좌, 학교 밖 청소년 인문 프로그램 등 ·(예시2) 지자체 공무원 대상 인문강좌, 청소년 대상 인문학 강좌, 지역 주민 대상 역사문화 강좌 운영 등
	인문 체험	지역의 인문역사문화의 유, 무형 자산을 이용하여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인문학적 사고와 방법 등을 고취시킬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 실시 ·(예시1) ○○ 옛길 역사기행, ○○산성 둘레길 답사 등 ·(예시2) 시민 어울림 한마당, 시민참여형 연극 등 ·(예시3) 다문화 체험, 시민참여형 인문 체험, 조선분청 만들기 등
	인문 축제	인문주간 및 지역의 인문학 관련 축제기간동안 지역주민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인문학적 사고와 방법 등을 고취시킬 수 있는 강좌/체험/전시/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 ·(예시1) 인문주간 연계 감성 콘서트/청년 힐링캠프/인문 토크콘서트, 저자 초청 강연회 등 ·(예시2) 사진전, 시화전, 시낭송회, 영상제, 영화감독과의 대담, 글쓰기 대회 등 ·(예시3) 춘/추계 학술대회, 국제 심포지엄, 인문포럼 등

※ 행사는 연구개시일 이후 연차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여야 함.

[표 6-7] 신청절차

구분		연구자	주관 연구기관	비고
가	사전 준비	① 사업 신청 대상 여부 확인	-	연구자 개별 준비
		② KRI 연구업적 및 개인정보 수정		
		③ 추진 계획서 작성		
		④ 심사요청 학문분야 확인		
나	온라인 신청	① 온라인 신청사항 입력 (http://ernd.nrf.re.kr)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 통합지원시스템
		② 「추진계획서」 파일 탑재		
		③ 추진동의서, 지자체 등의 협력 합의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등(재단 양식, 대응자금 포함, 필수첨부) 탑재		
		④ 기타 확약서 및 동의서, 연구업적 및 강의실적 등(해당 시)		
		⑤ 온라인 신청 내용 및 제출서류 오프라인 제출(주관연구기관 내 사업비 중앙관리부서)		주관연구기관 (산학협력단 등)
다	기관 확인	-	연구자 제출서류 확인 및 온라인 승인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 통합지원시스템

2. 사업예산 산출

1) 문화적 공간조성사업

- 황계동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하여 정조대왕 이야기길 조성사업, 황계마을박물관, 주민문화실이 있음
  - 이중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축되는 어울림센터 내에 들어가는 황계마을박물관과, 주민문화실은 별도의 사업비가 들지 않으므로 정조대왕 이야기길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예산을 산출함.

가. 정조대왕 이야기길 조성사업

- 정조대왕 이야기길 조성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개략적으로 산출하면 다음과 같음.

[표 6-8] 정조대왕 이야기길 조성사업 예산(안)

사업내역	위치	규모		금액(백만원)
화소구역 표석설치	출발구역	표석(화강석) 1식*4,000,000원 고증을 위한 연구비 1식*3,000,000		7
안내판 설치 (지도, 안내판)	출발구역 황계박물관구 역성황산 구역	안내판 1식(2pcs, Duralumin기준)*3개소*15,000,000원		45
소하천 정비	이야기길 출발구역	호안정비 950m*1,000,000원		950
정조문화공원	이야기길 출발구역	-		
성황사 재현	성황산 구역	성황사	18㎡(3칸 한옥)*4,000,000원	72
		조경	347㎡*60,000원	20.8
보호수 주변정비	성황산 구역	성황단 1식(2단 장대석쌓기)*10,000,000원 휴게시설 벤치 등 6개*200,000원		11.2
우물복원	성황산구역	1식(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		-
총계				1,106

① 화소구역 표석 설치

<table>
<tr><th>구분</th><th colspan="6">세부내용</th></tr>
<tr><td>위치</td><td colspan="2">▪ 정조대왕 이야기길 출발구역(황계동 199-6)</td><td>규모</td><td colspan="3">▪ 표석(화강석) 1식</td></tr>
<tr><td>사업내용</td><td colspan="2">▪ 화소구역 표석 설치: 대황교를 건너면 바로 있었던 능원소 ‘화소(火巢)’ 표석을 설치(2장 참조)
▪ 능원소화소: ‘화성지’ 필로조에 따르면 대황교 아래길 동편에 ‘화소(火巢)’라고 새긴 표석이 있었다고 기록함.</td><td colspan="4">사업대상지

</td></tr>
<tr><td>토지이용규제</td><td>지목</td><td>도로</td><td>소유구분</td><td></td><td>지역·지구</td><td>자연녹지지역
소하천구역
도로구역</td></tr>
<tr><td>총 사업비</td><td colspan="6">▪ 7백만 원</td></tr>
<tr><td>사업비</td><td colspan="6">▪ 산출내역
세부내용 | 규모 및 면적 | 사업비(백만원)
표석 | 1식*4,000,000원 | 4
고증을 위한 연구비 | 1식*3,000,000 | 3</td></tr>
<tr><td>기대효과</td><td colspan="6">▪ 황계동이 왕실소유의 능원구역이었음을 널리 알림.
▪ 정조이야기길의 출발점으로서 역사적 사실을 보전해 나감.
▪ 정조마을 문화체험프로그램, 마을축제, 정조대왕 능행차 등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 조성</td></tr>
<tr><td>유지관리</td><td colspan="6">▪ ‘화기치상’ 주민협의체</td></tr>
<tr><td>관련 콘텐츠 운영 프로그램</td><td colspan="6">▪ 정조마을 문화체험프로그램
▪ 정조대왕 성황대제 및 마을축제
▪ 정조대왕 능행차</td></tr>
<tr><td>관련 사진</td><td colspan="6"> </td></tr>
</table>

② 안내판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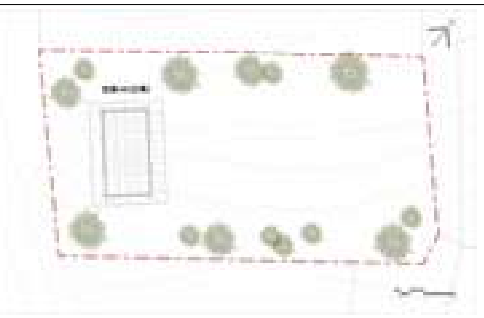
<table>
<tr><th>구분</th><th colspan="3">세부내용</th></tr>
<tr><td>위치</td><td>▪ 정조대왕 이야기길 출발구역(황계동 199-6)
▪ 황계 마을박물관 구역(황계동 159-3)
▪ 성황산 구역(황계동 188-4)</td><td>규모</td><td>▪ 이야기 및 지도 안내판 3개소</td></tr>
<tr><td colspan="4">사업대상지</td></tr>
<tr><td colspan="4">
</td></tr>
<tr><td colspan="4">사업내용</td></tr>
<tr><td colspan="4">▪ 능행차길 지도안내판 설치: 1795년 이전 대황교를 건너 배양치로 이동한 경로, 1795년 이후 대황교를 건너 작현(까치고개)으로 넘어가던 능행차로, 돌아오는 노정으로 성황산을 거쳐 황계동 마을길로 말을 타고 내려오던 정조대왕의 행차길을 표시한 지도안내판 설치(2장 참조)
▪ 이야기 안내판 설치: 정조대왕 능행차이야기, 정조대왕 국장이야기, 대황교 인근의 고종년간 원군들의 민란이야기, 왕실소유의 땅에 정조대왕의 위민정책으로 원속(수호군, 능지기 등)들이 경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만들어진 황계동마을 이야기, 정조대왕이 성황산에 올랐던 이야기, 성황제사 유래 등을 설명하는 안내판 설치</td></tr>
<tr><td>총 사업비</td><td colspan="3">▪ 45백만 원</td></tr>
<tr><td>사업비</td><td colspan="3">▪ 산출내역
<table>
<tr><td>세부내용</td><td>규모 및 면적</td><td>사업비(백만원)</td></tr>
<tr><td>안내판</td><td>1식(2pcs, Duralumin기준)*3개소*15,000,000원</td><td>45</td></tr>
</table></td></tr>
<tr><td>기대효과</td><td colspan="3">▪ 정조대왕 이야기길의 핵심지인 출발구역, 황계마을박물관 구역, 성황산 구역 3개소에 안내지도와 각 구역별로 해당하는 이야기를 전달함으로써 황계동과 정조대왕과의 이야기를 널리 알림.
▪ 향후 문화콘텐츠 운영 및 활성화에 기여</td></tr>
<tr><td>유지관리</td><td colspan="3">▪ ‘화기치상’ 주민협의체</td></tr>
<tr><td>관련 콘텐츠 운영 프로그램</td><td colspan="3">▪ 정조마을 문화체험프로그램
▪ 정조대왕 성황대제 및 마을축제</td></tr>
<tr><td>관련 사진</td><td colspan="3"> </td></tr>
</table>

③ 소하천 정비

구분	세부내용		
위치	▪ 정조대왕 이야기길	규모	▪ 길이 950m
사업대상지			

사업내용			
▪ 출발구역 보도 편측으로 흐르는 소하천(화성시 관리하천)의 호안정비 등을 통하여 정조대왕 이야기길에 쾌적한 걷기환경을 조성함. ▪ 동시에 편측보도에 꽃길 등을 조성해 나감			
총 사업비	▪ 950백만 원		
사업비	▪ 산출내역		
	세부내용	규모 및 면적	사업비(백만원)
	호안정비	950m*1,000,000원	950
기대효과	▪ 정조대왕 이야기길에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 ▪ 소하천 정비를 통해 황계동 마을 경관향상 ▪ 향후 문화콘텐츠 운영 및 활성화에 기여		
유지관리	▪ ‘화기치상’ 주민협의체		
관련 콘텐츠 운영 프로그램	▪ 정조마을 문화체험프로그램 ▪ 정조대왕 성황대제 및 마을축제		
관련 사진			

④ 성황사 재현

<table>
<tr><th>구분</th><th colspan="6">세부내용</th></tr>
<tr><td>위치</td><td colspan="2">▪ 정조대왕 이야기길 성황산 구역(황계동 111-1)</td><td>규모</td><td colspan="3">▪ 18㎡(3칸 한옥)</td></tr>
<tr><td rowspan="2">사업내용</td><td colspan="3" rowspan="2">▪ 보호수 인근에 성황사 등을 재현하여 마을의 핵심 역사문화적 공간으로 조성함.
▪ 성황산에는 성황단(城隍壇)이 아니라 성황사(城隍祠)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제사건축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td><td colspan="3">사업대상지</td></tr>
<tr><td colspan="3">
</td></tr>
<tr><td>토지이용규제</td><td>지목</td><td>전</td><td>소유구분</td><td>국유지</td><td>지역·지구</td><td>자연녹지지역</td></tr>
<tr><td>총 사업비</td><td colspan="6">▪ 92.8백만 원</td></tr>
<tr><td rowspan="6">사업비</td><td colspan="6">▪ 산출내역</td></tr>
<tr><td>세부내용</td><td colspan="3">규모 및 면적</td><td colspan="2">사업비(백만원)</td></tr>
<tr><td>성황사 재현</td><td colspan="3">18㎡(3칸 한옥)*4,000,000원</td><td colspan="2">72</td></tr>
<tr><td>조경</td><td colspan="3">347㎡*60,000원</td><td colspan="2">20.8</td></tr>
<tr><td>소계</td><td colspan="3"></td><td colspan="2">92.8</td></tr>
<tr><td colspan="6"></td></tr>
<tr><td>기대효과</td><td colspan="6">▪ 성황사가 보호수와 별도로 위치할 경우, 보호수 주변과 청운제수변 공원의 다양한 활용에 도움이 되며, 성황사에서 신위를 모시고 보호수로 오는 과정을 잘 살려 성황대제 행사도 다양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td></tr>
<tr><td>유지관리</td><td colspan="6">▪ ‘화기치상’ 주민협의체</td></tr>
<tr><td>관련 콘텐츠 운영 프로그램</td><td colspan="6">▪ 정조마을 문화체험프로그램
▪ 정조대왕 성황대제 및 마을축제</td></tr>
<tr><td>관련 사진</td><td colspan="6">  </td></tr>
</table>

④

⑤ 보호수 주변 정비

<table>
<tr><th>구분</th><th colspan="6">세부내용</th></tr>
<tr><td>위치</td><td colspan="2">▪ 정조대왕 이야기길 성황산구역(황계동 188-4)</td><td>규모</td><td colspan="3">▪ 주민편의시설 1식</td></tr>
<tr><td>사업내용</td><td colspan="3">▪ 2019년 8월 지정된 황계동 보호수는 성황사가 있었던 지역에 남아 있는 것으로 그 수령이 350여년 되어 정조대왕의 능행차와 마을의 역사를 지켜본 고목으로서 그 주변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정조대왕 성황대제’ 행사장소로서 ‘단(壇, 흙이나 돌로 쌓은 제단)’ 등을 설치</td><td colspan="3">사업대상지

</td></tr>
<tr><td>토지이용규제</td><td>지목</td><td>전</td><td>소유구분</td><td>국유지</td><td>지역·지구</td><td>자연녹지지역</td></tr>
<tr><td>총 사업비</td><td colspan="6">▪ 11.2백만 원</td></tr>
<tr><td>사업비</td><td colspan="6">▪ 산출내역
세부내용 | 규모 및 면적 | 사업비(백만원)
성황단 | 장대석 쌓기(2단) 1식*10,000,000원 | 10
벤치 등 | 6식*200,000원 | 1.2</td></tr>
<tr><td>기대효과</td><td colspan="6">▪ 성황산의 보호수를 보존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성황대제와 마을축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함.</td></tr>
<tr><td>유지관리</td><td colspan="6">▪ ‘화기치상’ 주민협의체</td></tr>
<tr><td>관련 콘텐츠 운영 프로그램</td><td colspan="6">▪ 정조마을 문화체험프로그램
▪ 정조대왕 성황대제 및 마을축제</td></tr>
<tr><td>관련 사진</td><td colspan="6">

</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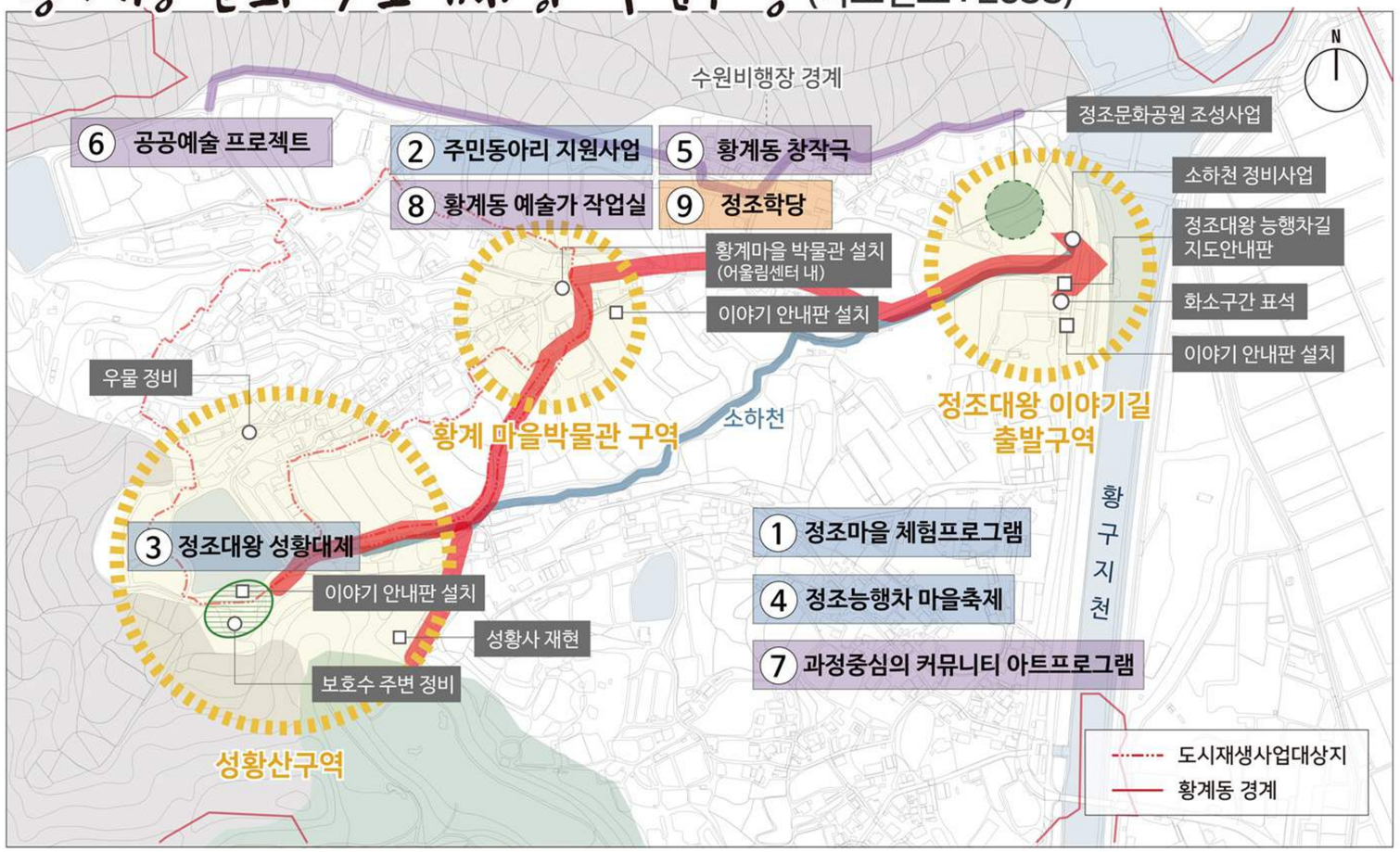
2) 콘텐츠 운영프로그램

- 문화콘텐츠 운영프로그램은 운영주체가 중심이 되어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공모사업예산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표 6-9] 콘텐츠 운영프로그램 사업예산 산출

	사업세부 내용	위치	사업비 확보방안		담당부서	사업예산
주민 자치 사업	정조마을 문화체험 프로그램	정조대왕 이야기길, 어울림센터, 황계동 전역	수익사업		-	-
	주민 동아리 지원사업	어울림센터	공모 사업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사업	평생학습과	5년간: 90백만 원 6차 년도 이후: 12백만 원
				마을만들기 주민제안사업	자치행정과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	최대: 10백만 원
	정조대왕 성황대제	수변공원, 보호수	공모 사업	읍면동 자생특화축제 공모사업	문화예술과	1회: 10~30백만 원
	정조 능행차 마을축제	황계동 전역 정조문화공원	공모 사업	읍면동 자생특화축제 공모사업	문화예술과	1회: 10~30백만 원
예술가 단체와 함께하는 사업	황계동 창작극	어울림센터	공모 사업	지역예술활동 지원사업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1회: 20백만 원
	공공예술 프로젝트	황계동과 공군비행장 경계 벽	공모 사업	지역예술활동 지원사업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1회: 20백만 원
	과정 중심의 커뮤니티 아트 프로그램	황계동 전역	공모 사업	지역예술활동 지원사업	문화재단	1회: 20백만 원
전문가와 함께하는 사업	정조학당	어울림센터	공모 사업	인문도시지원 사업	한국 연구재단	1차 년도:140백만 원 2차 년도:140백만 원 3차 년도:140백만 원

황계동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구상 (목표연도 : 20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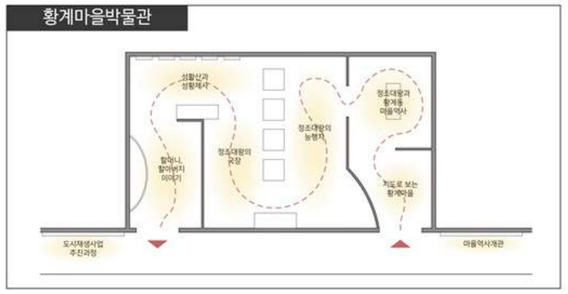


문화적 공간 조성(정조대왕 이야기길 조성사업)

화소구역 표석, 안내판 설치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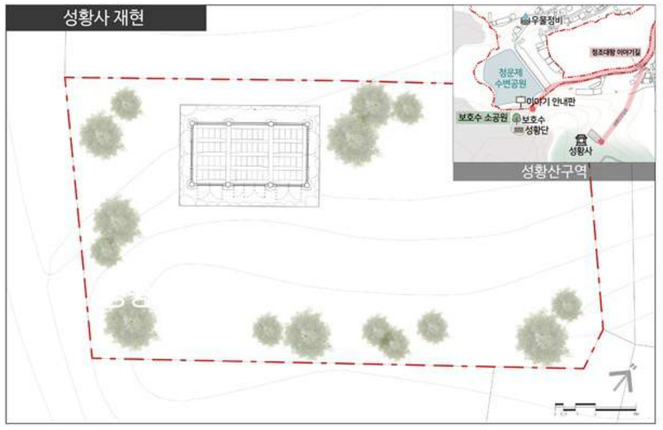
소하천 정비사업

황계마을박물관



정조문화공원 조성사업

성황사 재현



콘텐츠 운영프로그램 구상

주민 자치 사업

1. 정조마을 체험프로그램

- 마을을 방문하는 방문객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조대왕과 관련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황계동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면서 동시에 수익창출

2. 주민동아리 지원사업

- 주민들이 하고 싶은 놀이, 문화, 운동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어 문화학습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직접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운영

3. 정조대왕 성황대제

- 2019년에 시작한 정조대왕 성황대제에 이번에 발굴된 황계동 역사문화 콘텐츠를 덧붙여 더욱 풍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

4. 정조능행차 마을축제

- 정조마을로서 황계동 일대의 마을축제를 개최하고 정조마을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축제에 응용하고, 주민문화교실에서 익힌 솜씨를 발휘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

예술가 단체와 함께하는 사업

5. 황계동 창작극

- 화성시 관내 연극인들과 함께 정조대왕과 황계마을의 역사문화콘텐츠를 창작극으로 만들어 공연을 함

6. 공공예술 프로젝트

- 축제기간을 전후하여 참여객이 직접 만들어내는 인터렉티브형 공공예술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지역주민간 또는 지역주민과 방문객 간의 소통의 장치 역할을 함

7. 과정 중심의 커뮤니티 아트프로그램

- 참여 예술가들을 모집하여 황계동 주민들과 함께 예술 등을 매개로 창작활동에 참여하여 공동체의 사회문제 등을 해결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함

8. 황계동 예술가 작업실

- 어울림 센터 내 청년예술가 작업실을 확보하여 작품활동과 주민소통프로그램 마련

전문가와 함께하는 사업

9. 정조학당

- 황계동이 정조대왕 관련 콘텐츠의 중요 발신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조학당을 운영
- 정조대학, 정조대왕 관련 세미나 개최, 사회활동가 교육, 정조마을신문 발행 등

부록:정조대왕의 을묘원행과 효행음식이야기

1) 을묘원행 기간 상차림

가. 을묘원행 기간 상차림 종류

- 일상음식(日常飮食)
  - 수라상(죽수라3회, 조수라 7회, 주수라3회, 석수라 7회)
  - 미음상(16회)
  - 반과상(조다소반과3회, 주다별반과1회, 주다소반과7회, 만다소반과1회,야다소반과7회)
- 의례음식(儀禮飮食)-진찬(進饌)
  - 고임상: 각색병, 약반, 국수, 대약과, 만두과, 다식과, 흑임자다식, 송화다식, 율다식, 산약다식, 홍갈분다식, 홍매화강정, 백매화강정, 황매화강정, 홍연사과, 백연사과, 황연사과, 홍감사과, 백감사과, 홍요화, 백요화, 황요화, 각색팔보당, 인삼당, 오화당, 조란, 율란, 강란, 용안여지, 밀조건포도, 민강, 귤병, 유자, 석류, 배, 준시, 밤, 황율, 대추, 대추찜, 호두, 산약, 잣, 각색정과, 수정과, 배숙, 금중탕, 완자탕, 저포탕, 계탕, 홍합탕, 편육, 절육, 어전유아, 생치전유아, 전치수, 화양적, 생치숙, 숭어찜, 해삼찜, 연저증, 각색만두, 어만두, 어채, 어회, 숙합회, 숙란 등 70기
  - 소별미한상: 대추미음, 각색병, 침채만두, 다식과·만두과, 홍백연사과, 배·석류, 대추·밤, 각색정과, 별잡탕, 열구자탕, 어만두, 저포, 꿀, 초장 등 12기

나. 을묘원행 기간 자궁께 올린 상차림

일자	주요일정	상차림	일자	주요일정	상차림
윤 2월9일	창덕궁 ↓ 시흥행궁	■조다소반과(16기) ■조수라(13기) ■주다소반과(17기) ■석수라(14기) ■야다소반과(12기) ■미음(3기-4회)	윤 2월13일	화성행궁 (봉수당 -회갑연)	■죽수라(15기) ■조수라(15기) ■조다소반과(19기) ■진찬(70기), 소별미(12기) ■만다소반과(12기) ■석수라(15기) ■야다소반과(12기)
윤 2월10일	시흥행궁 ↓ 화성행궁	■주다소반과(16기) ■주수라(13기) ■주다별반과(25기) ■석수라(15기) ■야다소반과(12기) ■미음(3기-5회)	윤 2월14일	화성행궁 (낙남헌 -양로연	■죽수라(15기) ■조수라(15기) ■주다소반과(17기) ■석수라(15기) ■야다소반과(12기)
윤 2월11일	화성행궁	■죽수라(15기) ■조수라(15기) ■주다소반과(17기) ■석수라(15기)	윤 2월15일	화성행궁 ↓ 시흥행궁	■조수라(15기) ■주다소반과(16기) ■주수라(13기) ■석수라(14기)

		■ 야다소반과(12기)			■ 야다소반과(12기) ■ 미음(3기-2회)
윤 2월12일	화성행궁 ↓ 현륭원 ↓ 화성행궁	■ 조수라(15기) ■ 주다소반과(17기) ■ 석수라(15기) ■ 야다소반과(12기) ■ 주다소반과(17기-원소참) ■ 주수라(13기-원소참)	윤 2월16일	시흥행궁 ↓ 창덕궁	■ 조다소반과(17기) ■ 조수라(14기) ■ 주다소반과(16기) ■ 주수라(13기) ■ 미음(3기-2회)

2) 효행 음식이야기

- 을묘 윤 2월 12일, 임금께서 자궁을 모시고 화성행궁에 계셨다. 인시(寅時)에 임금께서 자궁을 모시고 현륭원에 나아가기 위해 거둥하셨다. 임금께서 군복을 갖추어 말을 타시고 자궁은 가교에 올라 출발하셨다. 중앙문, 좌익문, 신풍루를 지나서 팔달문으로 나와 상류천가게 앞길에 이르시어 자궁의 어가를 잠시 쉬도록 하고 미음다반(米飮茶盤)을 진어하셨다.

가. 효행음식의 배경

- 윤 2월 9일부터 2월 16일까지 8일간의 원행기간 중 정조대왕께서 지극한 효심으로 자궁(玆宮)인 혜경궁홍씨에게 다양한 음식을 올림.
  - 반과상: 면, 만두, 탕, 적, 전유화, 어채, 편육, 육병, 회, 조과류, 음료 등
  - 수라상: 반, 갱, 조치, 구이, 좌반, 해, 만두, 전, 적, 편육, 증, 채, 침채, 담침채, 장, 탕, 각색적, 증, 편육
  - 미음상: 미음, 고음, 정과
- 정조대왕께서 어머니를 모시고 화성 융릉(현륭원)에 전배를 한 윤 2월 12일에 올린 음식을 중심으로 시식, 체험, 효행밥상의 메뉴를 구성

나. 재해석한 효행음식

- 초미: 대추미음, 삼령차
- 이미: 금중탕, 어만두, 연계적
- 삼미: 수정과, 각색다식

정조대왕 효행밥상	대추미음, 삼령차	금중탕	어만두, 연계적, 금중탕	각색다식, 수정과

- **대추미음(大棗米飮)**
  - 원행기간 동안 총 16회 올려진 미음상은 미음, 고음, 각색정과의 형식을 갖추고 있음.
  - 미음은 백미음, 대추미음, 생동찰미음, 가을보리미음, 삼합미음, 메조미음, 식혜미음 등의 다양한 종류로 구성
  - 미음은 죽보다 더 소화력이 좋은 음식이고 죽보다 훨씬 수분함량이 많아 '음료'에 가까운 물성을 갖고 있음.
  - "대추를 무르도록 찌고 무슨 곡식이든지 갈아서 겨는 버리고 대추와 섞어서 볕에 말려 7~8분쯤 마르거든 맷돌에 갈아 다시 볕에 바싹 말렸다가 쓸 때에 맷돌에 다시 곱게 갈아 미음을 쑤어 점심에 먹나니 무슨 곡식이든지 수수나 옥수수나 보리나 밀이나 다 되느니라 이것을 세 번 갈아 만드는 것이니 심이 수고스러우니라.(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
- **삼령차(三苓茶)**
  - "자궁의 기후가 도중에는 한결 같이 강녕하시어 경행이 더할 나위 없더니 조금 전 가마 앞에서 문후하였을 때는 옥음이 조화롭지 못하시었다. 자궁께서 몸이 편치 않으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으니 참으로 민망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경은 먼저 원소에 나아가 자궁께 드릴 삼령다(三苓茶) 한 첩을 즉시 달여 놓고 기다리도록 하라."
  - 원기를 보하고 정신을 안정시키고 지력에 도움이 되는 인삼과 비위를 튼튼하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백봉령을 주재료로 하여 달인 차

- **금중탕(錦中湯)**

- “궁중에서만 먹는 탕”이라고 하여 이름 붙여진 음식
- 숙종 임금이 59세에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가는 것을 축하하는 의미로 진찬한 1719년 진연의궤에는 금중탕(禁中湯)으로 기록되었던 것이 궁중을 뜻하는 금중(錦中)으로 변한 것으로 보이며, 수라상과 반과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간 음식
- 일상식때의 재료는 묵은 닭, 쇠고기, 무, 다시마, 박고지, 참기름, 간장, 후추 등을 사용하였고, 의례식 때에는 묵은 닭, 쇠고기,무, 다시마, 박고지, 간장, 후추에 전복, 해삼, 표고, 오이, 달걀, 밀가루 등의 재료를 첨가하여 더욱 고급스럽게 만들었음.

• 어만두(漁饅頭)

- 밥과 국 중심의 수라상과 달리 반과상은 면, 만두, 탕, 적, 조과류, 음료 등을 중심으로 차려진 것이 특징
- ‘원행을묘정리의궤’에 기록된 만두류는 어만두, 양만두, 각색만두(양, 천엽, 생복, 숭어, 황육, 숙저육, 진계), 어육만두 등이 있음.
- “소와 돼지와 꿩과 닭고기를 살만 익혀 난도하고 생강, 후춧가루와 버섯과 표고와 석이 등을 잘게 이겨 한데 버무려 기름과 장을 치고 볶아서 밤톨같이 둥글려 놓고 큰 숭어를 손바닥같이 넓고 얇게 저며서 둥글린 소를 싸서 송편처럼 만들되 가위로 가를 돌려 벤 후에 녹말을 묻혀서 끓는 물에 하나씩 고이 집어 넣고 익거든 채반에 건져내어 찬물을 들어 부어 식거든 초장에 먹나니 각색 생선도 저며 만드나 숭어 맛과는 갖지 못하니라. 소에 실백을 많이 넣느니라.(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

• 연계적(軟鷄炙)

- 자궁께 올린 수라상은 음식의 가짓수가 많을 경우 큰상인 원반과 작은 상인 협반으로 구성되는 데 원반에서는 구이(灸伊), 협반에서는 적(炙)으로 구분하여 기록되었으나 자궁의 협반에 사용한 적의 재료를 대전 및 군주의 상에서는 구이에 사용하였으므로 구이와 적은 비슷한 의미로 보임.
- 원반의 구이는 주로 어패류를 많이 사용하였고, 협반의 적은 어패류, 수조류를 섞어서 사용.
- “살찐 햇닭을 깨끗하게 만들어 각 떠서 소금치고 한참 두었다가 불 위에 구워 두 번 쌀뜨물에 담갔다가 또 구워 담그기를 서넛 차례를 한 후에 비로소 장을 발라 구어 익거든 초장에 먹느니라. 닭을 생치(生雉)와 같은 방법으로 구우면 맛이 좋고 맛이 좋으나 도리어 맛이 시큼하나 한 때 먹는 것이라 생치를 낫게 아니 우습도다.(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

• 수정과(水正果)

- 을묘원행 기간 중 수정과와 각색다식은 반과상에 빠지지 않고 올린 음식

- 조선시대의 수정과는 오늘날의 계피 수정과와는 다른 형태이고 배숙으로 알려진 음식과 유사
- 시흥참과 사근참의 주다소반과에 사용된 수정과의 재료는 배 7개, 꿀 5홉, 후추 5작으로 만들었고, 윤 2월 12일 야다소반과에는 배 2개, 유자 1개, 석류 ½개, 꿀 2홉, 잣 3작을 사용하였다. 또한 고임상에 오른 수정과는 석류 3개, 감자 2개, 유자 2개, 배 5개, 연지 1주발, 꿀 5홉, 잣 2홉으로 하였으며 배 15개, 꿀 1되 5홉, 잣 2홉, 후추 3홉으로 생이숙을 만들었음
- 배를 중심으로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 수정과가 음료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번 행사에서는 계피와 배, 후추, 꿀 등으로 시원한 음료를 만들어 시음할 수 있도록 함.

● 각색다식(各色茶食)

- 다식은 원행의 백미인 봉수당 진찬의 고임상과 반과상에올려진 중요한 음식
- 고임상에는 흑임자다식, 송화다식, 율다식, 산약다식, 홍갈분다식 등으로 5기를 올릴 만큼 중요한 음식이었으며, 반과상에는 각색다식으로 올려졌음.
- “흑임자를 잠깐 볶아가지고 절구에 훔씬 찧어 체에 쳐서 손으로 쥐어짜고 꿀에 반죽을 하여 가지고 또 절구에 넣고 다시 담깐 만 찧은 후에 다식판에 박느니라. 먼저 사탕가루로 다식판에 글자를 메이고 그 다음에 깨 반죽한 것을 박으면 검은 비단에 흰 글자를 놓은 것 같아 보기에 매우 좋으니라. 이것을 먹으면 눈 밝고 오래 사느니라 흑임자를 구증구포하여 대껴버리고 찌여 체에 쳐서 가루를 만드느니라.(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